

제418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정기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24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4.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상정된 안건

- | | |
|--------------------------------------|----|
|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1 |
|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 |
| 4.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 2 |
|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71 |
| 4.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 72 |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전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총 6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장소는 국회 등으로 하되 일부 지역에 대한 현장시찰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과정 등에서 감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류제출 요구서가 제출 요구일 7일 전에는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가 될 때까지 잠시 의결을 미루었다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10시06분)

○위원장 전재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질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들께서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5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하는 현안질의에 증인 25명과 참고인 8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김병철 증인과 김중수 증인 그리고 참고인 4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곤 대한체육회 특보입니다.

김중수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입니다.

김중웅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입니다.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입니다.

김학균 파리올림픽 배드민턴국가대표 감독입니다.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윤성욱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입니다.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입니다.

이상순 대한배드민턴협회 체육인인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입니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입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입니다.

장재근 진천선수촌 촌장입니다.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입니다.

전명섭 대한배드민턴협회 의무위원장입니다.

정강선 파리올림픽 선수단장입니다.

정동국 진천선수촌 부촌장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입니다.

정해성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입니다.

한수정 전 배드민턴국가대표 트레이너입니다.

한우구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처장입니다.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업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장입니다.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입니다.

박문성 스포츠해설가입니다.

차윤숙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입니다.

(인사)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정몽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몽규 증인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몽규 “선서, 본인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하는 현안질의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9월 24일

증인 정몽규
증인 유인촌
증인 장미란
증인 이정우
증인 이기홍
증인 윤성욱
증인 김종수
증인 장재근
증인 정동국
증인 정강선
증인 김승곤
증인 이임생
증인 홍명보
증인 정해성
증인 박주호
증인 김택규
증인 김종웅
증인 전명섭
증인 한우구
증인 전경훈
증인 김학균
증인 한수정

증인 이상순

○위원장 전재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위원장 전재수 김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김승수 위원 예.

대구 북구율의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이번에 대한체육회 또 대한축구협회 현안질의를 준비하면서 여야 위원 막론하고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충실한 현안질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엇그저께 언론 보도했던 바와 같이 공통 질의자료 129건 중에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또 비밀유지 약정 이런 걸로 인해서 아예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특히 축구협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홍명보 감독 나와 계십니다마는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기간, 연봉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자료 또 역대 국가대표팀의 연봉 책정 기준이라든지 이전의 국내·국외 대표팀 감독별 연봉액 또 계약기간 그리고 외국인 감독후보군들에게 제시한 연봉 이런 것들이 전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종목별 단체에 여러 가지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금들의 통계자료를 받아 보면 아예 지원에서 누락돼 있는 단체라든지 또 연도별 지원금이 누락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 또 누락된 이유 이런 데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전혀 자료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갈 그런 예정이니까 오후 질의시간 이전이라도 지금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박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19대 4년 의정활동을 했고요. 그런데 도합 5년째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정말 첫 발언입니다.

어지간하면 기관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자료제출에 관한 미흡한 태도를 질타하거나 요구를 하지 않고 계속 접촉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자 기관의 입장을 생각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자료제출 요구,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국회, 국민 경시행위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현안질의에 관련된 이 부분은 전 국민적 관심사, 염려 또는 심지어는 국민적 분노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프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또 우리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취지로 오늘 이렇게 현안질의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에 임하는 기관들의 태도가 정말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할 만큼 매우 심각하다, 도대체 국민의 관심사와 분노 앞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제가 축구협회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임시감독의 선임 과정에 관한 회의록, 이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요청드렸는데 이 기본적인 자료를 어떻게 됐냐면 축구협회의 보도자료 링크 한 줄을 딱 보냈어요.

이게 도대체가 박수현 개인 국회의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바로잡거나 협조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축구협회 등에 경고를 해 주시고 또 과거에도 그런 선례가 있다 그러는데, 앞으로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기관의 자료 협조와 관련한, 제출과 관련한 아주 적극적인 협조 이런 것들을 위원장 명의로 서신을 보내서 사전에 정확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님, 박수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미비한 자료는 오후 질의시간 전까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증인 정몽규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자료제출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성실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게 돼서 민망하기는 한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 세 쪽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바로 드릴 텐데 축구국가대표팀의 감독 선임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아주 시끄럽고요. 거기다가 승부조작이니 비리축구인 사면파동이니 전 대표팀 선임과 경질 관련해서 위약금 논란이 아주 시끄러운데, 말씀들 하셨지만 오늘 이 현안질의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축구·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화가 많이 났고 특히 그동안 축구와 배드민턴을 아끼고 사랑해 온 분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싶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나 축구협회나 대한체육회에서 관련 자료를 너무 안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개인정보 핑계를 대는데 협회 정관 및 규정 관련한 거나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서면결의한 게 이게 개인정보라고 무슨 관련이 있고, 이런 정보들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요. 축구지도자 자격증 관련한 거나 대한축구협회 가이드라인, 징계 건수하고 내용 이런 걸 어떻게 공개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이러면 오늘 같은 기회에 말끔하게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문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나 박수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목록을 제출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 현안질의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을 꼭 좀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서면결의한 것의 내용이 이사들한테 전달이 됐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밝히려는 게, 이게 제공을 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자료들이거든요. 대개 보면 그런 자료들이 지금 제가…… 굵직굵직하게 열여덟 항목이 있으니까 문체부장관님, 대한체육회 회장님, 대한축구협회 회장님, 꼭 이 자료를 주셔야 그래야 오늘 이 현안질의가 끝난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기관의 기관장님들, 조금 전에 김승수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몽규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변호사와 상의하여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안질의가 열리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국민들께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춰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가리고 국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취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현안질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참석하신 기관장님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 대개 축구협회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이 다 있으셨으니까 제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체육회 관련해서 저희가 받은 제보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이 회의 속기록과 인원 명단 등을 아예, 민감한 자료는 비식별 자료로 생성해서 제출하라고 이런 지시를 했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웬만한 포털 같은 데서 검색이 충분히 가능한 인물들도 블라인드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로, 최소한도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최소한도의 팩트 체크만 해도 되는 사안들이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로 나온다면 앞으로 당장 벌어질 국정감사도 똑같은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제출의 여러 가지 양이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런 질적인 부분도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실관계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분명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위원장님의 강력한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보내라는 자료는 안 보내고 지금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양문석 위원님께, 정몽규 배상’ 이 자료는 도대체 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우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자료 요청에 협조하라 하는데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변호사와 상의해서 보내겠다, 지금 저렇게 증인이 대답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따끔하게 이야기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다.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여기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 요청에 제대로 응하고 그리고 그게 음모가 아니었다, 실상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리고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야 되는 게 축구협회의 기본 아닙니까? 아니었다고 선언하면 아닌 겁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나와 가지고, 자료 요청에는 협조 못 하고 그리고 ‘당신들은 다 오해야, 잘못 알고 있어, 가짜뉴스에 노출되어 있는 거야’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인지 강하게 좀 따져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이 됩니까? ‘회의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한국대표팀 감독을 지원하고 팀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결코 건설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국민에 대해서, 축구팬들을 위해서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도 안 주면서? 왜 양문석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요, 자료도 안 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께서 더 강하고 따끔하게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의사진행발언을 다 듣고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중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중오 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저에게 약간 마음이 많이 무거운 날입니다. 체육계에 너무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 요즘 가장 이슈가 된 체육계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한다는 게 좀 불편한 상황인데요.

먼저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들 같은 말씀이신 것 같고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너무 의아해한 부분이 축구협회 회장님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이 와중에 협회에서 창립일과 그다음에 재량휴일, 주말까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협회장이 나오는데 협회가 휴일을 챙긴다는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로 3일에 선행된 자료제출에는 명기된 징계 내역을 갑자기 기한이 말소됐다면서 19일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내역이 없음으로 제출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오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12조에 따라서 엄중히 판단해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의사진행발언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진행이 되는 현안질

의입니다. 왜, 통상적으로 현안질의를 하게 되면 증인 채택까지는 하지 않는데 오늘 증인 채택을 한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그러한 결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또 분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될 텐데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이 돼야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고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또는 다른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춰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려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대한체육회장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미비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후 질의 전까지 자료에 성실하게 응해 주실 수 있겠지요?

○증인 이기흥 예.

○위원장 전재수 그다음에 대한축구협회장님 가능하지요?

○증인 정몽규 예.

○위원장 전재수 대한배드민턴협회장님 가능하지요?

○증인 김택규 예.

○위원장 전재수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후 질의시간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다른 이유를 들지 말고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강선 증인은 전국체육대회 전북선수단 결단식 개최 및 운영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 조기 이석함을 요청했기 때문에 여야 간사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문체위 위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체육이 늘 우리 국민들에게 힘든 시절에 정말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정말 고마운 분야였는데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배드민턴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자랑거리였고 2002년 월드컵은 당시 IMF 때문에 정말 힘들던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또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로 축구, 배드민턴, 대한체육회, 문체부 주요 인사들을 불러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뭔가 잘못을 따져 물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뭔가 이러한 잘못들을 감독하고 시정해야 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과 반목이 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그런 불쌍사나운 일까지 있으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문체부장관님을 비롯해서 대한체육회장님, 많은 우리 체육 인사들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 황제 회장님이라고 불려야 될 것 같아요. 황제 회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대한축구협회 뉴미디어 중계권이 어떤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증인 정몽규 쿠광이랑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자료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축구협회에서, 뉴미디어 통합중계권 관련 계약 현황에 대해서 사본을 달라고 하니까 비밀이라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비밀이 많아요.

참고로 회장님, 국가정보원도 국회에 와서 보고합니다. 국가정보원도 와서 보고하는 국회에 어쩔 그렇게 비밀이 많으신지 답답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팀트웰브라는 회사 아십니까, 회장님?

○증인 정몽규 예?

○김윤덕 위원 팀트웰브, 팀트웰브요. 모르세요?

○증인 정몽규 팀트웰브요?

○김윤덕 위원 이 팀트웰브 회사가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잡코리아에 나와 있는 그 회사를 보니까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뉴미디어 방송권 사업자 선정’ 이렇게 돼 있어요, 팀트웰브가.

회장님, 계약한 거 쿠광이랑 한 것 맞지요?

○증인 정몽규 쿠광이랑, 쿠광이 제일 메인 스폰서라고 이렇게……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팀트웰브가 자기들이 뉴미디어 방송권 사업자 선정이 되었다고 저렇게 올려 놔습니다. 팀트웰브가 맞든지 아니면 틀리든지 둘 중 하나지요?

○증인 정몽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여기 계신 전한진 본부장이 그 계약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설명드리게 해도 될까요?

○김윤덕 위원 홍명보 감독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팀트웰브 박정선 대표 잘 아시지요?

○증인 홍명보 예, 압니다.

○김윤덕 위원 공교롭게도 팀트웰브가 뉴미디어 방송권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본인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증인 홍명보 예.

○김윤덕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축구협회 전무이사 맞지요?

○증인 홍명보 예, 맞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런데 제가 계약서, 하도 자료를 안 주니까 굉장히 의구심이 커져 갈 것 아닙니까? 축구협회에서는 뉴미디어 건 계약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쿠광하고 했다고 하고 팀트웰브는 자기들이 했다고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모 기자에게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이라는 게 수익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팀트웰브에서. 수익계약을 했고 그리고 그 수익계약 15억 원 정도 했는데, 계약서를 모르니까 제가 모릅니다. 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재계약해서 쿠광,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에 비싸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것 뭔가 구린내가 난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구린

내가 나면 계약서를 보여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지요. 보여 주는 데 한 1분이면 될 것 아닙니까?

감독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증인 홍명보 제가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있을 때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는 축구협회 전체적으로 방송권, 중계권을 하다가 잘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1차, 2차에 어떤 회사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윤덕 위원 아니요, 감독님 어디와 계약했어요, 어디하고? 지금 회장님께서도 쿠팡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홍명보 저는 그다음 일이라서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김윤덕 위원 아주 잘 아시는 분이 회사에서 지금 자랑거리로 홍보하고 있지요? 그런데 잘 모른다, 본인은?

○증인 홍명보 아니, 그 계약관계는 제가 떠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잘 모른다, 전무이사였는데?

○증인 홍명보 제가 20년 말까지 하고 21년부터 울산현대로 갔기 때문이에요.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20년 당시에 계약한 내용을, 전무이사 당시에……

○증인 홍명보 예, 그때는 계약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의혹을 살 것 아닙니까? 홍명보 감독하고 아주 친한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뉴미디어 방송권을 땀는데 그걸 따 가지고,싼값에 따서 여러 업체에 비싸게 팔아먹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못 준다 안 준다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여 주면 끝나는 것을? 구린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증인 홍명보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김윤덕 위원 전무이사 시절 모른다는 거지요?

○증인 홍명보 예.

○김윤덕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증인 홍명보 예, 알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홍명보 감독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어요. 구린내가 난다고, 너무 심하게 나니까 의심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증인 홍명보 예, 알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자료제출하실 겁니까? 자료 보여 줄 겁니까?

○증인 홍명보 저는 말씀드리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자료는 제가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윤덕 위원 아니요, 그 말을 못 믿겠어요.

○증인 홍명보 예?

○**김윤덕 위원** 말을 못 믿겠으니 간단하게, 회장님은 쿠광하고 계약하고 있다고 하고 이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계약했다고 잡코리아에 올려 놔 있고, 서류를 보여 주면 끝나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전무이사 시절에 아주 친한 기업체의 대표가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축구협회는 뭐가 이렇게 비밀이 많아요? 국가정보원도 국회에 와서 보고한다고.

○**증인 홍명보**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쿠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그 당시에 뉴미디어 중계권을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을 같이 계약하는 선정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실무자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쿠광하고 계약한 것은 제가 축구협회를 떠난 이후의 일이라서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쿠광하고 계약했다고 하는 건 회장님 얘기고요 팀트웰브라는 회사는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홍명보 감독과는 특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당시 전무이사였고. 그렇다면 그 계약관계를 서류로 제출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리는 일이라고요. 구린내가 너무 나니까 확인 요구하는 겁니다.

○**증인 홍명보** 그것은 저도 한번 협회에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정몽규** 제가 말씀드린 쿠광 관계는 쿠광에서 대부분의 경비를 낸다든지 구체적인 쿠광으로 했는지 팀트웰브로 했는지 그 사실은……

○**김윤덕 위원** 이것 보세요, 회장님. 말 뒤집지 마세요.

○**증인 정몽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재수** 정몽규 회장님, 서로 이야기가 좀 다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증인 정몽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배현진 위원** 저희 발언대가 두 군데가 있는데 국민의힘 위원들과 김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반대쪽 발언대로 좀 나오게 안내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배현진 위원** 홍명보 감독님, 발언대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지난 7월에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이라는 국민청원이 한 달 내 동의 수가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장 사랑받던, 2002년에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신화를 써 냈던 우리의 그 축구협회가, 국민들에게 최고의 기쁨, 희망을 안겨 줬던 이 축구협회가 지금은 국민적인 질타의 대상이자 가장 큰 비난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쏘아 보자면, 여러 군데 여쭙봤습니다, 저도 축구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지속되는 성적 부진, 일단은 40년 만에 올림픽에 진출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여쭙본 많은 분들이 표현하신 대로 인용하자면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경기에서의 그다지 훌륭하지 못한 졸전 그리고 두 번째, 감독 선임 과정 등을 비롯한 축구협회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투명성, 클린스만 감독의 이른바 시중에서는 먹튀라고도 얘기들 하셨지요, 보도가 되기도 했고.

두 번째는 홍명보 감독님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것은 감독님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억지스럽다, 축구팬들이 보시기에.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했고, 실제로 감독님께서 울산FC에서 잘 뛰고 계신데 중간에 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쩐지 상황이 급변하면서 국대 감독이 되셨고요. 이 과정에 특정한 학교의 어떤 그런 학연에 근거한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다 인정하십니까, 감독님?

○증인 홍명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대표팀의 성적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현장에 있는 축구인들이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배현진 위원 동감하시지요?

○증인 홍명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배현진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증인 홍명보 또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제가 감독님을 앞으로 모신 이유는, 자료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축협 자체의 재원까지 동원해서 약 155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 축구종합센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20년 3월에 축협이 천안 부지를 지정하고 난 후에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건축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제공모를 시행했고 6월에 네덜란드의 유엔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홍명보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참 제가 의아했던 게 축구협회가 하는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그러니까 HDC라고 그 문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해서 관련된 여러 문서들에 등장을 한다는 점이 제가 참 의아했습니다.

감독님, 축구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되던 2017년에서 20년 12월까지 전무이사로 축구협회에서 재임하셨지요?

○증인 홍명보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혹시 이 당시 축구협회 전무이사 외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른 유관한 직위를 맡으신 적 있습니까?

○증인 홍명보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배현진 위원 다시 한번 그 레터 띄워 주십시오.

2020년 3월 13일 축협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입니다. 이 문서는 홍명보 전무이사의 명의로 발송됐습니다. 이 문서 잘 아시지요?

○증인 홍명보 기억은 못 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축구협회 CEO였기 때문에

아마 서류가 제 이름으로 나간 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배현진 위원 그랬겠지요? 홍 감독님의 명의로 4개의 해외 건축사에 이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축협과 현대산업개발은 당신, 즉 당시 그 업체의 참가를 고대한다라는 4개의 업체에 대한 문서가 이 문서 안에…… 띄워 주십시오, 계속. 이런 내용이 담겨서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편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 국제공모에 최종 선정된 유엔스튜디오가 당시 이 문서에 대해서 답신을 합니다. 답신을 하는데 수신된 장소가 어디냐?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두 곳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전체적인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겁니다.

다음 문서 띄워 주세요.

2020년 11월 24일 유엔스튜디오가 다시 과업 범위 및 수수료 제안이라는 계약조정 문건, 비용에 관한 문건을 축구협회에 발송합니다. 이 문서 또한 현대산업개발도 동일하게 수신을 합니다.

이 문서의 네 번째 페이지를 보면 현장방문 관련 내용에 ‘대한축구협회,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한국의 설계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일정량의 한국 방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이곳에 다시 특정 회사 명칭인 현대산업개발이 등장합니다.

같은 문서의 6쪽에는 야외운동장 설계는 지난 9월 25일 현대산업개발과의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논의하고—등의 내용, 제가 지금 띄워 드린 자료에 다 있지요—라고 구체적인 설계에 관한 논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지속적으로 실무 논의 과정에, 지정된 유엔스튜디오라는 그 업체와의 과정 중에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정몽규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에 참 기여 많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재임하시면서 나름대로는 본인께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실 텐데 지금 이 질타받는 상황이 좀 억울하신 면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인, 국가적으로 축구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회장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지시하신 바 있습니까?

○증인 정몽규 그 설계 관해서 좀 설명……

○배현진 위원 단답해 주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현대산업개발의 임직원들에게 축구협회의 센터 건립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실무를 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로 부탁드립니다.

○증인 정몽규 저희가 설계에 있어서 5개, 6개 외국 설계회사에 공모를……

○배현진 위원 4개 했지요?

○증인 정몽규 했습니다.

○배현진 위원 아니, 지시하신 바 있습니까? 현대산업개발의 일반 직원들이 축구협회 센터 건립에 참여하게끔 도우라거나 개입하라고 하신 바가 있습니까?

○증인 정몽규 축구협회를 최대한 잘 도와줘서, 우리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배현진 위원 지금 축구협회는 대한민국의……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1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축구협회는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개인적인 지역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 축구의 강령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조직인데 아주 굉장히 자발적으로 업체의 직원들이 동원됐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다시 띄워 드릴게요.

유엔스튜디오가 일차적으로 이런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디자인 결과물을 보내왔고 실제 이 디자인이 해외 여러 곳에 공개가 됐습니다. 해외 매체에서는 축구의 미래를 짓기 위한 대한민국의 탐구라며 이 디자인을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 속에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지요? NFC라고, 축구협회는 분명 NFC 센터라는 목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주받은 디자인에는 HDC 아레나라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KFA, 대한축구협회도 아니고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도 아니고 왜 현대산업개발 아레나로 디자인이 왔을까요?

○증인 정몽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4개의 건축회사한테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싸게 짓기 위해서, 설계비를 아끼기 위해서 여러 곳 했는데 네 군데 다 거절해서……

○배현진 위원 지금 말 돌리지 마시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왜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으로 왔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 대답해 주시고. 왜냐하면 축구팬들이 정몽규 회장께서 12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공사를 구분 못 하고 지금 축구협회를 사유화했냐라는 질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하게 하고 있으십니다. 그 부분 아시지요?

○증인 정몽규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조금의 이득이나 혜택을 본 건 하나도 없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 업체에 5억이라는 설계비를 줬는데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20억, 30억 설계비가 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서도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스타디움을 지으면서 거기 네이밍 라이츠를 알리안츠 스타디움처럼……

○배현진 위원 축구협회는 NFC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HDC로 왔냐는 말씀입니다.

○증인 정몽규 네이밍 라이츠를 앞으로 팔 예정으로 여러 회사랑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설계회사에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칭 어느 회사, 뭐 아시아나 아레나 아니면 HDC 아레나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 했지 현대산업개발이 축구협회 관련돼 가지고 하나의 이득 본 거나, 도와준 것은 있어도 이득 본 것 이런 건 절대로 없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번에 배현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바는 아주 간명합니다. 축구협회가 NFC라는

이름으로 센터든 아레나든 그걸 발주를 한 게 분명히 흔적이 있는데 왜 다른 디자인으로 왔느냐라는 질문에 지금 참석하신 회장께서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이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질의한 바에 간명하게, 목적인 바에만 대답하게 해 주시고 한번 주의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정몽규 회장님, 질의의 취지에 맞게끔,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간명하고 단답형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증인분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의 답변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홍명보 감독님, 축구선수에게 축구화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축구선수에게 축구화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선수에게 신발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증인 홍명보 경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경기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증인 홍명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학균 감독님, 저 사진 한번 봐 보십시오. 혹시 저건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 김학균 예.

○민형배 위원 이쪽이 좀 안 보입니다. 좀 치워 주세요, 여기.

보셨어요, 저 사진?

○증인 김학균 예, 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무슨 사진이지요?

○증인 김학균 발바닥의 물집성 염증입니다.

○민형배 위원 어느 선수 겁니까?

○증인 김학균 안세영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게 언제적 일이에요?

○증인 김학균 훈련 과정이나 또 대회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민형배 위원 자주 나타났었지요?

○증인 김학균 예, 자주 나오는 과정입니다.

○민형배 위원 저게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증인 김학균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양말, 신발, 본인들만의 또 그런 게 다르니까요.

○민형배 위원 본인은 신발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발.

한번 다음 사진 봐 볼게요.

운동화가 다르지요? 하나는 A로 시작하는 회사의 브랜드 신발이고요 또 하나는 Y로 시작하는 회사의 신발입니다. 지금 저 Y로 시작하는 회사의 저 브랜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이거예요.

이걸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니까?

○증인 김학균 저희는 일단 스폰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쪽에서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김택규 회장님, 지금 김학균 감독님 저 답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증인 김택규 예.

○민형배 위원 왜 그 회사가, 다른 나라들은 대개 보면 협회에서 저런 걸 다 예외규정을 뒀는데 왜 대한민국의 대한배드민턴협회만 몇 년 동안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서 안세영 선수의 신발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안 바꿨습니까?

○증인 김택규 처음부터……

○민형배 위원 아니,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쭙보는 게 아니에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어른들의 한심한 처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수가 신발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저렇게 발이 난리가 났는데 저걸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규정 때문이라면서요, 협약 때문에? 협약을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증인 김택규 4년간 계약이 이뤄……

○민형배 위원 4년간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4년간 저 발 상태에 저 신발을, 저렇게 찡그리면서 경기하는 걸 계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증인 김택규 신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시안게임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이라는, 아시안게임 때 나온 말이고요.

○민형배 위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세영 선수가 건의서를 올해 1월에 A4 용지 열세 장 제출했지요? 이것이 그중의 일 부인데 보셨지요?

○증인 김택규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이후 겁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증인 김택규 예, 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보셨지요?

○증인 김택규 예.

○민형배 위원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요. 신발을 호소해요. 바꿔 줘야 됩니까, 안 바꿔 줘도 됩니까?

○증인 김택규 바꿔 줘야 되는 입장인데요.

○민형배 위원 아니, 바꿔 줘야 되는데 왜 안 바꿔 줬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증인 김택규 안 바꿔 준 이유는……

○민형배 위원 규정 때문에, 협약 때문에?

○증인 김택규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게 협회 회장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증인 김택규 그런데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뀌지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 이후에……

○민형배 위원 정말요?

○증인 김택규 예, 올림픽이나 이런 것을……

○민형배 위원 협회장을 왜 하십니까? 협회장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해결하라고 협회장 하시는 것 아니에요? 협회장 그만두세요, 지금이라도.

○증인 김택규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한 30~4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규정이……

○민형배 위원 여보세요, 회장님. 국가대표선수가 신발이 안 맞아서 저 불편을 호소하고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걸 풀어 줄 생각을 해야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규정이에요,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증인 김택규 그래서 그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민형배 위원 계약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김택규 예, 바꾸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왜 이제 바꾸냐고요. 이 어린 선수가 올림픽 앞두고 저것 바꿔 주시라고 13장이나 되는 여러 가지를 제출했는데 왜 이제 바꾸세요? 진작 바꿨어야지요.

○증인 김택규 그때 당시에는……

○민형배 위원 핑계 대지 마시고요.

○증인 김택규 후원사와의 계약도 있고……

○민형배 위원 또 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네?

○증인 김택규 그것 어쩔 수 없는 답변입니다.

○민형배 위원 회장님!

○증인 김택규 예.

○민형배 위원 어쩔 수 없는데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증인 김택규 예?

○민형배 위원 왜 회장을 계속하고 계시냐고.

○증인 김택규 아니지요. 회장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회장님.

PPT 좀 올려 보세요, 87차 2022년 10월 19일.

요넥스에서 골프대회, 골프 잘 하셨어요?

○증인 김택규 언제요?

○민형배 위원 2022년 10월 19일 87차 이사회 회의록.

○증인 김택규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골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11월 20일에 열두 팀 구성해서 할 계획인데 식사하실 때 운동을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말씀을 하시면 요넥스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하니 편하게 오셔서 운동하시고 주니어대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김택규 안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안 했습니까?

○증인 김택규 예.

○민형배 위원 두 분한테 요넥스 쪽에서 골프채를, 골프클럽을 제공했다는데 받으셨어요?

○증인 김택규 저는 그런 말 처음 듣습니다.

○민형배 위원 처음 들으세요?

○증인 김택규 예.

○민형배 위원 그냥 나오는 얘기입니까?

○증인 김택규 처음 들으니까 저는 모르지요.

○민형배 위원 그래요.

페이백 이 문제는 왜 회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증인 김택규 페이백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저거 하는 것 같고요. 후원물품인데……

○민형배 위원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증인 김택규 아닙니다. 그건 틀립니다.

○민형배 위원 기준도 안 맞다 그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회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협회를 회장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선수 중심으로 협회를 운영하셔야 돼요.

○증인 김택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회장님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증인 김택규 제가 먼저 답변하면, 그래도 되겠습니까?

○민형배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계속 그런 말씀 하셨는데 여기까지 하시고요. 협회가 제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온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얘기에요.

○증인 김택규 위원님, 우리 협회는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혼합되어 있는……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런 것 다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는 얘기에요.

○증인 김택규 그래서 페이백이나 후원물품이라는 것이 생활체육용……

○민형배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요. 그것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인데……

○증인 김택규 지금은 제대로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좋습니다. 오후에 다시 해 보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차윤숙 이사님, 지금 회장님이 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즉 답을 하셨는데…… 차윤숙 이사님, 마이크 드셨어요?

○참고인 차윤숙 예.

○민형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제시한, 제안한 일곱 가지 문제를 비롯해서 협회가 정말 선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임원, 협회 중심으로 돌아가서 선수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내부의 갈등도 많고 파벌 때문에 다투고.

진단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사시니까 협회의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조금 간결하게, 차분하게 진단을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 차윤숙 우선은 김택규 회장님의 페이백에 대한 논란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사님들이 다 알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스포츠평정위원회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제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좀 확고하게 답을 얻고 싶어서 이사진 중 4명에서 문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답은 아직, 여차했던 과정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답을 아직 못 받았었고요.

그리고 안세영 선수의 신발에 대한 그 말씀은 지금 저희가 물품·용품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그래서인지 예산적인 부분이 되게 적다 보니까, 계약하는 과정에서 협회가 자체적으로 조금 재정이 여유롭다면 그렇게 용품업체하고의 그런 관계를, 계속 끌려다니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재정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지금 와서 협회는, 저희 배드민턴 종목이 금메달하고 은메달을 땀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나 잔치를 열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선수 보호도 안 되고 그리고 후진 행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 한다라는 점 진짜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정말 부끄럽고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협회가, 행정부가, 집행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사로서 그리고 지도자의 일원으로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먼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체육계 인사분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점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이건 한국 체육계가 정말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서운하시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대답한다는 차원에서 대답을 해 주시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축구협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언론인으로서 서울광장에서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스튜디오가 쿵쾅거리고 스튜디오가 움직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IMF 때문에 어려울 때였는데 그 역동성을 바탕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 국민들은 축구협회의 문제든 대한체육회의 문제든 배드민턴협회의 문제든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그 절실한 공감대가 여야의 합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질의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홍 감독님이 대한민국 축구에 끼친 큰, 스타로서 또 국민 영웅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편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이 잘못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홍 감독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팬들이나 국민들은 경기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좋은 선수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시면 손흥민이라든지 김민재라든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의 실력을?

○증인 홍명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짚막하게 좀 해 주시지요.

○**증인 홍명보** 언론이든 어디든 다 말씀해 주셨듯이 대한민국 안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지금 포진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물론 축구가 발전하지만 앞으로 이런 선수들을 다시 우리가 보유한다는 보장은 꼭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홍명보** 보장은 없지만 또 앞으로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도 저희가 예측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혹시 지금 경기력 부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홍명보** 우선 이런 감독 선임과 모든 축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경기력을 끌어올리기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경기력으로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PPT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정몽규 회장이 구체적인 표결에서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후보들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추천 수 7표, 바그너가 7표 또 카사스가 6표, 포엣이 6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해성 전 위원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증인 정해성** 예.

○**신동욱 위원** 잠깐만 나오시지요.

올해 6월 21일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명보 감독이 최다 추천됐다 이렇게 회장님께 보고드린 것은 맞지요?

○**증인 정해성** 예,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이후에 보고된, 지금 저희가 제시한 표를 보면 최다 추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정해성** 최다 추천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위원회 전체 인원수에서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감독으로서……

○**신동욱 위원** 이게 7표, 7표……

○**증인 정해성** 예, 7표로……

○**신동욱 위원** 6표, 6표 나왔으면 홍 감독이 최다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증인 정해성** 아니요, 동표로 나온 바그너 감독과 홍명보 감독이……

○**신동욱 위원** 아니, 최다라는 건 1명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때 2명을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홍명보 감독이 표를 제일 많이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증인 정해성** 2명이 같은 7표를 받아 동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홍명보 감독이 최다 투표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차순위 바그너, 포엣에 대해서도 대면 면담을 지시했는데 면담을 앞둔 6월 28일 날 갑자기 구두로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과정이 도무지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흥 감독을 염두에 두고 한 과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증인 정해성** 아니요, 최종적으로 저희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지막 순위를 가리는, 감독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일임을 하겠다 해서 제가 일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들어가시고요.

박주호 전 위원 잠깐……

당시에 전강위원이셨지요?

○**증인 박주호** 예.

○**신동욱 위원** 지금 정해성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증인 박주호** 복수투표였고요. 그리고 투표가 아닌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처음에 결렬이 됐던 제시 마시 감독을 하는 과정이 1순위를,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9차, 10차,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투표가 안 된다는 말을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동욱 위원** 위임했다는 부분은 맞습니까?

○**증인 박주호** 위임은 모두가 5명의 좋은 감독을, 그래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 능력이 좋은 그런 감독 5명을 최상위에 올려놓고 그 감독을 모두 협상을 하면서 마지막 판단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결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안에서 이 팀이 모두 한 팀인데 위원장님만 책임을 지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같이 표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전달을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1·2순위 동일 표가 나왔는데 1순위를 홍명보 감독으로 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판단하십니까?

○**증인 박주호**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 부분은, 한 번 더 회의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걸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 하는 감독, 복수투표기 때문에 12명 그리고 16명에 대한 감독을 복수투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신동욱 위원** 그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증인 박주호**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조금 전에 제시 마시 감독 얘기를 했는데 이 분은 굉장히 비싸서 포기한 게 맞습니까?

○**증인 박주호** 저는 제시 마시 감독을 이야기하면서, 위원장님도 제시 마시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 마지막은 돈과 관련해서, 연봉 아니면 세금 관련해서 협상이 틀어졌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듣기로 제시 마시 감독도 본인이 해외에서 받는 연봉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들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연봉 30억 정도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제시 마시 감독이 굉장히 과다한 연봉을 요구한 결로 아십니까, 혹시?

○**증인 박주호** 협상 진행 사항은 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제시 마시 감독과 이야기를 한 적, 수차례 줌 미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

눈 적이 있었는데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한국 축구에 대한 발전 그리고 자기의 명예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욱 위원** 다른 후보들이 포기하는 과정이 결국은 이런 절차적이라기보다 뭔가 흥 감독을 이미 염두에 두고 배제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로 느끼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박주호**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위원회에서는 항상 전체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결과적으로 브리핑을 할 때는 국내 감독이 선임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흐름에 좀 맞추기 위해서 축구협회와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홍명보 감독의 팬입니다. 정말 모든 국민이 그러셨겠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킥으로 나서서 승리를 확정 짓는 골을 넣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라운드를 도는 홍명보 감독의 그 표정은 정말 국민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위안의 상징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홍명보 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의 말씀처럼 국민께서 오해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해를 풀어드리는 자리여야 되고 또 정말 계속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 의혹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의 있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몽규 증인께서 위원님들 테이블에 놓아 주신 이 서신 내용에 보니 두 번째 페이지에 ‘이번 선임 과정과 여론 형성 과정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뽑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데 무슨 뜻입니까?

○**증인 정몽규** 예를 들어서 제시 마시 감독을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실질적인 것은,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는 감독이.....

○**박수현 위원** 증인, 잠시만요. 나중에 제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정몽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지금 국민께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신 우리 정몽규 증인의 어떤 일방적인 지시나 의지에 따라서 홍명보 감독이 그냥 그렇게 선임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의혹을 다시는 사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적 문구로 저는 읽었는데 증인께서는 정반대의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국민께서 대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혹시 이 국회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 잘 모르시는 국민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핵심만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그래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면서 여쭙 보겠습니다.

우선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 후보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외국인 감독은 유럽 현지까지 찾아가서 대면 면접을 했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홍명보 감독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자택으로 찾아가서 한국 축구 기술·철학 등을 설명하며 감독직을 맡아 달라고 거의 부탁을 한 그런 면접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께서는 이것은 홍명보 감독을 의중에 두고 형식적인 면접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면접과 감독 선임을 하는 이런 권한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축구협회 규정에 보면 그런 근거조차 없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했듯이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어디에도 회장이 일방적으로 기술이사에게 그런 것들을 위임할 그런 권한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권한 위임 절차라도 밟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 문체위원들 대다수의 생각인데,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장 증인의 서신에서 나왔던 이러한 선임 절차는 다시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혹을 갖는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사 이 권한을 위임을 한다는 것도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들어 보면 면접에 한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지 그 면접하고 최종적으로 후보를 거의 선임한 것 같은 이런 것까지 위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 나왔던 우리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같은 경우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현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정 학맥이나 이런 어떤 분위기가 축구협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지배를 해 와서 증인을 비롯한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임생 기술이사에게 이런 것들을 위임할 권한이 회장에게 있는 것입니까? 또 이임생 기술이사는 그렇게 대면 면접이 아니라, 대면 면접이긴 하지만 거의 밤 11시에 자택 앞에 있는 카페에 찾아가서 그렇게 특혜로 보이는 이런 면접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증인 정몽규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바그너, 포엣, 홍명보 감독 세 명을 추천했고 저와 정해성 위원장의 면담에서 정해성 위원장께서 홍명보 감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분에 대해서, ‘바그너, 포엣에 대해서 어떻게 면담을 했느냐’ 이렇게 여쭙 봤고 ‘거기서 줌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 전에 제시 마시랑 카사스는 직접 가서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두 분을 보고 그러고서 직접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으로 정하더라도 셋을 보고 나서 세 명을 공평하게 하고 추천을 결정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면 우리 정몽규 증인은 이런 감독 선임 절차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그냥 의혹에 불구하고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증인 정몽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정몽규 증인, 저는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하도 오랫동안 그런 문화 속에 있어서 그런 작은 절차적 하자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국민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거든요.

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묻고 계신 게 있어요.

증인께서 축구협회 규정 이걸 고쳐 가지고 회장 연임과 관련한 그런 과정, 연령 제한 이런 것도 좀 바꾼 적 있으시지요?

○증인 정몽규 FIFA나 AFC의 경우에 있어서는 70세 연령 제한이 있고요. 3회, 3회, 3회 제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데 증인……

○증인 정몽규 그래서 저희 축구협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3회, 연령 제한으로 의결을 했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지금 의혹을 받는 건 뭐냐 하면 충분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인만 2회나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연령에 해당이 되시고요. 나머지 직전 도전자들이나 잠재적 도전자들은 모두 70세가 훨씬 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70세 규정으로 바꾸게 되면 증인만 축구협회 회장을 4회 연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이에요.

○증인 정몽규 그런데 그거는 뭐 FIFA나 AFC, 전 세계의 지배구조를 관장하는 FIFA나 거기서 다 똑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체육회나 문체부에서는 3회 연임 제한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축구협회에서는 결의를 했다가 3회 연임 부분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다시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축구는 저도 좋아하지만 70대 중반이신 저희 어머니가 꼭꼭 챙겨서 보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축구가 나오면 한 10분 보시다가 다른 데로 돌리십니다. 그만큼 이제 실망이 굉장히 크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국민이 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성 증인께 묻겠습니다.

축구협회가 본 위원에게 회의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증인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하실 적에 축구협회 회장·부회장에게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정해성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회의록 보면 증인은 위원장으로서 그래도 한국 축구의 시스템과 철학 그리고 공정성 이런 것을 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회의록에서 일부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좀 의도적으로 감독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증인, 1차 회의 때부터 10차 회의까지 지속적으로 국내 감독 선임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위원들이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 증인이 ‘우리가 졸속 행정, 위에서 선임한 인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국내·해외 모두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정해성**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내용 보시면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이제 PPT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4인 후보자가 협상이 결렬이 되고 나서 8차 회의록부터 이임생 기술이사가 다시 우기고 나옵니다. 8차 회의록부터 정확히 시작입니다. 기존 논의 과정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이지요.

국내 감독 선임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날 회의에 처음 기술이사로서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보다 말을 더 많이 해요. 이임생 기술이사가 16회 그리고 정해성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6회밖에 말씀을 안 하십니다.

증인이 당시에 위원장으로서 회의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증인 정해성** 예, 회의는 위원장으로서 주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처음 이사로 들어오신 이임생 이사가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발언을 더 많이 하는 거지요?

○**증인 정해성** 그때 이임생 기술이사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협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고 해서 일단 그러면 간사를 통해서 해 보라고 제가 그렇게……

○**김재원 위원** 그런데 16회씩이나 주셨다고요?

이임생 기술이사가 정몽규 회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감독 선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되고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증인 정해성**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게 이임생 이사부터 국내 감독을 해야 된다, 특히 홍명보 감독을 선임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주장이 되고 있었던 와중에서도 그래도 증인한테는 감독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때 1순위로 생각한 것이 개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었습니까?

○**증인 정해성**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협회에 해당 감독을 추천을 했었을 때 협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증인 정해성** 마지막 1·2·3순위를 결정을 하고 회장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회장님께서

세 분 다 좋은 분 같은데 한 번 더 나가서 외국 감독을 비대면 말고 대면으로 한번 만나고 그리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 일주일 뒤에 전력강화위원장직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하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언론에, 사실을 이야기하면 정말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증인 정해성**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별다른 게 아니고 제가 1차 때 그리고 또 2차 때, 1차 때 제가 제시 마시하고 카사스 감독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할 때도 너무 많이 힘이 들었고 그다음 2차 때 세 분을 제가 감독 추천을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김재원 위원** 그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감독 선임을 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일인데 언론에다 흘리신 건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셨어요. 왜 이제 와서 지금 수그리십니까?

자,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 증인으로 출석해 주십시오.

벤투 감독 선임 과정에서 김판곤 당시 위원장한테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철학과 부합하다며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라 이렇게 나온…… 카톡 내용인가요, 메신저 내용이 있어요. 맞지요, 본인 것?

○**증인 홍명보**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증인이 한국 축구 철학과 시스템 유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당시에 기준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과연 이 시점에 왜 우리가 이 대표팀 감독을 뽑아야 하는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홍명보** 예.

○**김재원 위원** 그러면 증인은 본인이 감독으로 선임된 이번 과정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투명하게?

○**증인 홍명보** 저는 제가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시다.

○**김재원 위원** 아니요, 감독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홍명보** 저 개인적으로는……

○**김재원 위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선임 과정 중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이루어졌느냐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증인 홍명보** 제가 이걸 한번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뭔가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임생 이사가 찾아가서 감독을 해 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홍명보** 아니지요.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났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든지 3위라든지 했으면 저는 받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라고 제가 이임생 이사한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감독직을 받아들인 겁니다.

○**김재원 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가서 거의 부탁을 하는 식으로 하셨다고 아까 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증인 홍명보** 부탁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 과정들이 다 공개된 위원회 내의 회의 시스템으로 해서 회의록이 분명히 있고 이런 과정으로 되지를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정하다고 안 보는 것입니다. 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증인 홍명보** 그러니까 제가 전력강화위원회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인 생각을 여쭙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 홍명보** 예, 제 객관적인 생각은 저도 이걸 한번 해 봤는데 저한테 뭔가 특혜가 있다라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원 위원** 특혜가 있지 않다고요?

○**증인 홍명보** 예.

○**김재원 위원** 특혜가 없는데 위원회를 통하지도 않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임생 이사가?

○**증인 홍명보** 이임생 이사의 역할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최종의 3인 후보가 올랐기 때문에 이임생 이사의 역할은 그 최종 3인을 접촉해서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재원 위원**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역할이라고요?

○**증인 홍명보** 예.

○**김재원 위원**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합니까?

○**증인 홍명보** 그건 당연히 이임생 이사께서는 해외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찾아가서 어디에서 만나서 면담하고 모두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무 할 때도……

○**김재원 위원** 이임생 이사, 당시에 해외 누구누구 만났습니까?

○**증인 이임생** ……

○**김재원 위원** 왜 바로 대답 못 하시지요?

○**증인 이임생** 아니, 날짜를 기억하려고 그랬습니다.

○**김재원 위원** 날짜가 아니라 당시에 홍명보 감독이랑, 지금 홍명보 감독이 말씀하시는 게 두 분이 더 계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증인 이임생** 유럽에 가서 거스 포엿을 만나고요 그다음에 다비트 바그너를 만나고 그리고 5일 날은 홍명보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재원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전재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양문석 위원 아니, 그런데 정해성 전 위원장하고 정몽규 회장하고 지금 증언이 다른 말이에요. 두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님이 따져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해성 위원장은 ‘다 좋다. 면접해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정몽규 회장은 ‘홍명보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면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각각의 진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몽규 회장, 이임생 총괄이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 스스로 이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의 평가와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홍명보호 응원해 달라’, 7월 8일 축구협회에서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저 스스로 이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고 싶은 마음 없습시다라고 하면 이분이 지금 정하는 거지요?

○증인 정몽규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임생 위원장이 세 분을 만나 보고 전문적인……

○양문석 위원 정 회장님, 정 회장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추천 결정을 해 달라라고 정해성 위원장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추천 결정을. 그런데 이분은 확정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증인 정몽규 그리고 외국 출장 갔을 때 저는 만나 보시고……

○양문석 위원 전권 위임을 하셨어요, 회장이?

○증인 정몽규 예, 그렇게……

○양문석 위원 회장이 무슨 자격으로 전권 위임해요?

○증인 정몽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이사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전권 위임을 합법적인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의를 통해서 이임생 총괄이사한테 전권 위임하셨어요?

○증인 정몽규 추천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 했고요.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요. 회장님으로부터 전권 위임을 받았다고 이임생 이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증인 정몽규 정해성 위원장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그 세 분을 면담한 다음에 이임생 이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는다, 그래서 잘 정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문석 위원 왜 전력강화위원회의 판단을 안 믿고……

11차 임시회의 있었지요?

○증인 정몽규 11차는 없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참고자료 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록…… 제가 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 결정된 것 아니에요! 왜 11차가 없어요. 11차가 없으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증인 정몽규 10차에서 사실상 그 추천을 다 했고요.

○양문석 위원 참, 나.

자, 11차 회의록 읽어 드릴게요.

위원장 부재로 인해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과 결정권한 그리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다수 위원들이 문의를 해요. 그랬더니 다, 기능 그대로 유지되고 그다음에 결정권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지금 전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록에, 축구협회가 보내 줬던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놓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게, 아주 상습적인 거짓말인데요.

○증인 정몽규 그것 10차……

○양문석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11차는요, 축구협회 상근부회장 김정배는 이견 자격이 없는 불법 회의였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1차 회의에서 위임을 받은 이임생이 이후에 면접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설득을 해서 추천 결정이 아니고 사실상 공표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1차 회의도 불법이고 그리고 이임생 총괄이사가 위임을 받은 부분도 불법이고 그 불법의 토대 위에서 세상에 서류제출도 안 하고 사전 면접도 안 하고 그리고 실제 대면 면접을 한, 그 당시의 언론은 설득을 한 홍명보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것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정몽규 김정배 상임부회장님께서 불법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기 나와 계신데……

○양문석 위원 보세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문체위원들과 함께 회의했던 그 자리에서 자격 없는 전력강화위원회의 11차 회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증인 정몽규 위원님이 한번 직접 여쭙보시면 어떨까요?

○양문석 위원 이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뭘 직접 여쭙봐요?

장관님, 자격 없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자격 없는 총괄이사가 선임한 감독은 합법적인 감독입니까, 불법적인 감독입니까?

○증인 유인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감독으로 선임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양문석 위원 홍명보 감독님, 한때 전무의 입장에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자격이 없어요. 그다음에 총괄이사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감독을 선임했어요. 그 감독은 합법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감독입니까, 그만되어야 되는 감독입니까?

○증인 홍명보 전력강화위원회가 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전력강화위원회의……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만 해 보세요.

자격 없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증인 홍명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역할이 끝났다거나 하면 자격이 없을

수 있지요.

○양문석 위원 역할이 끝났었어요, 10차에서. 그런데 11차에서……

○증인 홍명보 10차에서 끝났기 때문에 11차 그건 자격이……

○양문석 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임생 기술이사가 말아서 담당하되 위원회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이임생에게 11차 임시회의에서 위임을 합니다. 자격 없는 거지요. 11차는, 회장은 11차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상근부회장 또한 11차는 불법이고 자격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위임받은 이임생이 추천을 결정하고 사실상 감독후보를 발표했어요. 그 감독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로 물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이 내용이 맞다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홍명보 감독 잠시 일어나 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전무로서 그 감독이 계속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증인 홍명보 제가 감독 선임 책임자는 아니지만……

○양문석 위원 제가 설명한……

○증인 홍명보 전무이사의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강위 10차에서는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10차에서……

○양문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11차 회의록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1차 회의록이 있는데 무슨 10차에서 끝나요?

○증인 홍명보 제가 보기에는 문제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없다?

○증인 홍명보 예.

○양문석 위원 나는 끝까지 혜택도 받은 적도 없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절차에 내가 동의한 적도 없다?

○증인 홍명보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게 우기면 이 자료는 누가 만든 자료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령이 만들었나요?

○증인 홍명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이미 1분 더 드렸습니다.

○양문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딱 한마디만 할게요.

이것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증인 홍명보 그건 저도 모르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양문석 위원 회장님,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참고자료 1, 전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록, KFA 전력강화위원회 임시회의(비대면), 국가대표운영팀.

회의 개요, 2024년 6월 30일 일요일. 온라인. 참석 전경준, 윤정환, 이미연, 이상기, 박주호 등

총 5명, 협회 이임생 이사, 김대업 본부장, 한동근 매니저.

주요 내용……

양문석이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회장은 11차가 없었다고 우겨요, 데이터가 있는데.

○증인 정몽규 없었다고 우기는 게……

○양문석 위원 잠깐.

그리고 전임 전무, 행정을 전문했던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해요.

양문석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먼저 이기흥 회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 이기흥 예.

○정연욱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중에서 지금 체육 대통령이라고 회장님을 보통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기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연욱 위원 예, 간단하게……

지난번에 아마 낚은 관행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증인 이기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정우 문화부 체육국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답변만 하십시오. 그냥 제가 쪽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체육회의 여러 가지 행정상에 불투명한 점들이 지적이 됐지만 저는 이 대목만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체육회에 그동안 2019년부터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총 162건의 각종 정부 보조금 등 지급된 액수가 한 3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정상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혹을 담고 있는 건지 한번 따져 봤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시지요.

특정 기업에 300억 원 수의계약 몰아주기입니다. 체육회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독점광고권, 독점공급권, 독점후원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한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물품과 용역 구매 시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아마 중소기업,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은 5000만 원이지요. 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상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육회는 문체부가 이런 부분을 승인을 했다고 해서 자체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당시 이기흥 회장이 계셨던 대한체육회는 수의계약, 독점공급권을 요구합니다. 2021년입니다. 지난 정부의 문체부가 이걸 승인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체육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문체부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이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승인권한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고 승인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수상한 케넥션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가시지요.

하나의 흐름을 한번 짚어 봤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먼저 기획재정부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수의계약 건에 관련한 결정권한을 기재부가 갖고 있습니다. 사업권자의 상품·서비스 독점공급권을 요청합니다, 기재부에. 그런데 기재부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모든 계약의 모법인 국가계약법에서 후원사의 독점공급권에 대한 특례 적용은 어렵다, 다만 여러 가지 특수성들이 있으니까 문체부와 협의하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하라 그랬지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모든 것을 오케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거쳤으니 기업에 사업 이익 발생을 전제로 해서 독점공급권, 사실상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에 올립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2021년에 독점공급권을 주라고 조건부 승인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수의계약 건이 이 문체부의 승인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사실상 국가계약법상 이런 것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고 체육회는 문체부에, 이런 부분이 협의 대상인데 그걸 기재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결정권한을 무시한 겁니다. 결국 대한체육회는 문체부가 협의권자이고 승인권자가 아닌데도 수의계약 승인을 요청했고 문체부는 독점공급권을 승인하였습니다.

설령 문체부가 이런 사항을 잘 몰랐다고 해도 기재부 등과 상의 후에 국가계약법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국민에게 의혹을 주는 불법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부분은……

다음 장까지 보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문체부에 몇 차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미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계약 규정은 상위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법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2일, 하루 지나서 그랬습니다. 협의권만 있는 문체부, 승인권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체부가 승인할 수 없는 겁니다. 승인한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관련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법률 자문을 실시해서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체육국장 답변하세요.

○**증인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인 이정우** 일단 저희가 관련 사항들을 한번 조사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기흥 회장님도 낡은 관행이라 하시고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낡은 관행이 아니라 아예 잘못된 관행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뜯어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런 부분에서 체육회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자꾸 끊이지 않는 것이, 체육회는 자율성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뭔가 뚜렷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한 생각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이기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체육 대통령, 지금 그동안에 권한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린 거기에 걸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이기흥** 알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저희가 앞에 축구협회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많은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또 언급을 안 하겠지만 지금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부터 모든 산하 60여 개의 협회를 관장하는 부서 아닙니까?

○**증인 이기흥**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거기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이 없으면 과연 우리가 체육회에 어떤 후원사가 어떤 식의 독점공급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당수 많은 계약 자체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데 누가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문체부도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엄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유인촌**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예.

○**증인 유인촌** 아마 2020년도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성이나 또는 자율성을 부여하자 이런 의미로 이런 부분을 대개 승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문체부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이것은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주변의 여건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후원사 독점공급권이 대한체육회가 특정 업체를 후원자로 선정해서 후원금을 받고 또 해당 업체가 국가계약법을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수익계약으로 이권을 챙겨 가는 이런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지점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초부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체육회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다 시정돼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일산의 이기현입니다.

공정이 사회적 이슈입니다. 특히 체육계에 이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특히 대한 축구협회의 사회적 불공정 이슈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축구경기장에서, 12년간 협회장을 역임하신 정몽규 회장님에 대해서 ‘정몽규 나가’ 그리고 대한민국 체육계 축구 영웅이신 홍명보 감독님께 ‘홍명보 나가’라는 팬들의 외침이 본인들에게도 힘드시겠지만 대한민국 체육을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했던 저에게도 굉장히 아픔입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불공정 사례 관련해서 지금 홍명보 감독님의 감독 선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클린스만 감독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행사장에서 회장님을 만나 뵙고 내가 요새 놀고 있는데 대한민국 감독에 관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담조로 얘기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리고 본인이 절차에 따라서 감독이 되었다라고 본인의 고향인 독일의 슈피겔 지의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내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홍명보 감독님 선임 관련해서는 10차, 11차에 걸쳐 전력강화위 회의가 있었지만 클린스만 감독 관련해서는 단 두 번의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화면 좀 띄워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클린스만 감독이 그렇게 카타르에서 회장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전력강화위원회의 마이클 뮐러 위원장 그리고 축구협회 사무국에서 첫 회의를 하면서 이승환 팀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과 대한축구협회 사무국에 선임에 대한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얘기했고 몇몇의 위원들이 ‘아니, 전강위가 감독 선임 관련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믿어주십시오. 맡겨 주십시오’ 하고, 두 번째 회의가 약 한 달 뒤인 2월 27일 날 있습니다. 27일 날 뮐러 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61명서부터 줄여 줄여 줄여서 클린스만 감독으로 확정했습니다라고 결정 통보를 합니다. 이걸로 전강위 회의가 끝나 버립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었지요.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다시피 선수로서는 위대했지만 감독으로서의 지도력은 국제적 평가가 끝난 감독이었고 이미 오랫동안 쉬고 있었던 감독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이 된 뒤에 1년간 성적 부진 그리고 자질 문제 등으로 1년만에 하차했고 그로부터 위약금 30억 원이라는, 추산입니다만, 제가 정확한 자료는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만 대한축구협회에 이런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그 부분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현 위원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증인 정몽규** 간단하게 설명할 문제는 아닌데요.

제가 클린스만 감독을 잘 알아 가지고 선임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제가 U20 때 그 아들이 U20에 참가해 가지고 그때 지인의 소개로 처음 뵈고요. 그리고 카타르에서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제가 잘 알아서 이거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현 위원** 슈피겔 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깐요. 회장님, 제가 말씀에 대해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공정했는지 안 공정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과의 인연을 소개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슈피겔 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인과 몇 번째 만나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증인 정몽규** 두 번째 카타르에서 만났고요. 본인이 강력하게 한국 감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본인은 농담조로 얘기했다는 게 슈피겔 지에 한 본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서는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셨고 그로부터 몇 주 뒤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감독 선임 절차가 진행이 돼서 본인이 감독이 됐다는 게 클린스만의 슈피겔 지 인터뷰의 주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따 다시 말씀해주시지요.

정해성 전강위원장님의 갑작스러운 사퇴가 이 불공정 이슈의 시작이었습니다. 10차 전강위가 끝나고 3명을 압축한 뒤에 그리고 회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회장님께서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독들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면접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다음 날 사퇴하셨어요.

정해성 위원장님, 왜 사퇴하셨습니까?

○**증인 정해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증인 정해성** 그때는 제가 1차 때와 연이어진 감독 선임에 대한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체력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제가 회장님께 보고드린 그 이상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제 건강과 가족들의 걱정에 의해서 제가……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록을 쭉 보면요, 정해성 위원장님은 국내 감독 선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특히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추천하셨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협회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회의록을 보면 홍명보 감독을 추천하는 다른 위원의 표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있다. 홍 감독은 K리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도 없는데 비대면 면접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다’ 이런 얘기를 회의록에 남기셨어요.

저는 정해성 위원장께서 해외 감독을 염두에 두고 10차까지 진행된 회의의 결과를 결국 회장 보고 이후에 회장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고 급격하게 접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급격하게 사퇴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임생 위원장께서 기술이사이신데 갑자기, 배석자셨어요.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열 번의 회의에 배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의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시는데…… 전권 위임을 하셨어요, 배석자에게, 위원이 아닌 분. 이게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은 다른 분과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관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위 위원도 아니신 분이 배석자로 있다 갑자기 전권 위임으로 왔습니다. 이 절차조차도 저는 법률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의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만……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을 7월 5일 날 유럽 갔다 와서 만나셨다고 했는데 판교에 있는 홍명보 감독님 집 앞에 가서 오후 내내 기다리시다가 11시에 만나서 한 1시까지 계셨다고 해요.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이사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증인 이임생 집 근처 빵집 같은 데서 만났습니다.

○이기현 위원 카페 아닙니까? 11시에 여는 빵집이 있습니까?

○증인 이임생 밤이라서, 저도 커피숍이랑 빵집 그렇게 두 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11시에 여는 빵집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변 다 뒤져 봤고요.

○증인 이임생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빵집은 홍명보 감독님이 알고 지내시는 지인이라 그래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홍명보 감독님과 만나서, 그러면 11시에 만나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말씀을 나누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이에 두 분이 그러면 빵집에서 불 꺼놓고 그렇게 만나신 겁니까?

○증인 이임생 그 안에 불이 켜져 있어 가지고요 서로 얼굴이나 그런 것들은 다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원님.

○이기현 위원 다음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저는 대한체육회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회장님, 저와 오랜 시간 함께 지내셨고 오늘 제가 하는 질문에 격노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회장선거 제출 서류 목록을 한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는 곧 띄워질 거고요.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이지요?

○증인 이기흥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진종오 위원 기타공공기관이요?

○증인 이기흥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장은 공직자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이기흥 아닙니다.

○진종오 위원 공직자가 아닙니까?

○증인 이기흥 예.

○진종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인지……

○증인 이기흥 아니,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진종오 위원 기타공공기관입니까?

체육회장선거 제출 목록이 아직 안 뜨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회장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라고 있는데 이 본인 서약서 하나로 범죄 경력과 탈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기흥 아마 제가 동의를 하면 그게 검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 본인 서약서 하나로요?

○증인 이기흥 예.

○진종오 위원 이 같은 방식이 검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약서만으로도?

○증인 이기흥 아니,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인지를 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이 대한체육회장선거에, 회장님께서 3선에 도전하신다고 나와져 있는데 이것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신다라는 거지요, 회장 결격사유에, 이 서약서만으로?

○증인 이기흥 왜냐하면 후보자 자격에 관계되는 사안만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 또 이걸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선관위에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관위가 정하면 거기에 물론 따라야 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종오 위원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본인 서약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증인 이기흥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진종오 위원 생각을 안 하십니까?

○증인 이기흥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건 언제든지 제출을 해야지요.

○진종오 위원 왜냐하면 이 본인 서약서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조금 실효성 있는 검증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이기흥 그런 건 얼마든지 하면……

앞으로는 이런 것 하면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면 약간 이런 검증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본 의원실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이기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회장님,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해 12월에 해병대캠프에 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증인 이기흥 그때 가고자 했던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목이 다른 선수들은 서로 간에 교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500명 넘는 그런 선수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신력 강화하고 이런, 육체적 훈련이 아니고 교육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하고, 간다는 데 동의하는 선수들, 동의하는 선수들로만

다녀왔던 겁니다.

○진종오 위원 동의하는 선수들만 갔다고요?

○증인 이기흥 예.

○진종오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캠프가 성공적이었다, 어떤 선수들은 불만이 많다는 제기도 했었는데요. 제 경험상 올림픽을 앞두고 해병대캠프를 간다는 게 조금 약간 비과학적이고 선수들의 반감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회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증인 이기흥 그때 제가 익명으로 여론조사를 다 했는데 한 90%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든다고.

○진종오 위원 90% 이상이요?

○증인 이기흥 예.

○진종오 위원 회장님, 이게 파리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만약에 캠프를 안 갔다면 이번 파리 올림픽 메달은 몇 개 예상하셨겠습니까?

○증인 이기흥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결 짓는 건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왜냐하면 회장님 해병대캠프를 가신 목적이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파리 올림픽의 성공적인……

○증인 이기흥 가장 중요한 팀워크를……

○진종오 위원 회장님, 제가 말씀 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이기흥 예.

○진종오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메달 집계도 좀 약간 낮게 변경하셔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갑자기 메달 집계가 이렇게 낮게 측정됐을까,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이기흥 역부로 낮게 측정한 건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 올림픽 3개월 전에 양궁 같은 경우도 2명밖에 입상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진종오 위원 엔트리가 확정이 안 됐었지요?

○증인 이기흥 예. 여자 선수 셋도 전부 다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했고 역시 사격도 마찬가지로 펜싱도 독일 그랑프리에서 한 사람도 입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평가를 한 것은, 객관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를 한 건 5개 정도를 또 그리고 저희가 너무 과장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약간 보수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갈 때쯤, 출발할 때쯤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한 7개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때도 가기 전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5개를 목표로 했는데 잘하면 7개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진천선수촌에서 야간에 와이파이를 차단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증인 이기흥 와이파이……

○진종오 위원 인터넷을 차단한다는, 인터넷이 아니라 와이파이를 차단한다는 얘지요. 회장님 알고 계십니까?

○증인 이기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존장님, 맞습니까, 와이파이 차단한다라는 게?

○증인 장재근 예, 제가 지시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존장님, 와이파이를 차단한다고 해서 선수들이 휴대폰을 사용 안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장재근 차단……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진종오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증인 장재근 저희가 와이파이를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와이파이를 차단한다고 해서 핸드폰을 안 할 수는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마는 게임에 집중하는 선수들이 좀 있고 그래서 와이파이가 통합으로써 게임을 하다 보면 새벽에 훈련할 수 있는, 훈련에 좀 지장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12시부터 5시까지는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동시에 5시가 되면 와이파이가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종오 위원 와이파이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존장님?

○증인 장재근 데이터로 하면 게임이 굉장히 늦습니다. 요즘 게임은 굉장히 복잡해서요 게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사행성 게임을 많이 하는 선수들도 좀 있어서……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이기흥 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임기 초에 25명이던 임원을 50명으로 200% 증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이기흥 그게 생활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진종오 위원 통합 때문에 그렇게 되신 부분이지요?

○증인 이기흥 이게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행정이라든지 입법, 국제 이런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진종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사진, 임원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계의 통합 때문에 발전을 위해서 증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발전됐다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혹시 있으십니까?

○증인 이기흥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지표로도 아마 나올 겁니다.

○진종오 위원 지표로는 나온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슈인 배드민턴협회만 봐도 임원진, 이사진들이 40명이 늘어났고 다양한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임원진이 증가됐다고 해서 이게 발전적인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기흥 그건 또 좀 다를 겁니다. 그때는 통합을 하다 보니까……

○진종오 위원 통합은 했지만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게, 과연 임원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이게……

○증인 이기흥 왜냐하면 통합 초기에 양 단체의 물리적인 그런 통합,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종오 위원 물리적인 충돌은 있긴 하지만 결국 임원진들이 많아짐을 통해서 회장님의 연임을 위해서 준비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

○증인 이기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진종오 위원 전혀 아닙니까?

○증인 이기흥 예.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사항은 나중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님, 정해성 전 건강위원장 사임 이후 제11차 임시비대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들로부터 감독 선임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셨지요?

○증인 이임생 예.

○조계원 위원 이게 합법적인 절차인가요?

○증인 이임생 저는 그……

○조계원 위원 아니, 합법적인 절차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이임생 행정총괄 김정배 상근부회장님이 규정상 된다고……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냐고만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증인 이임생 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요 그렇게……

○조계원 위원 박주호 증인님, 이게 지금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증인 박주호 저희는 7명 이상, 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이사님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의견일 뿐이지요. 그게 절차에 맞다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증인 박주호 7명 이상이 아니면, 그래서 저희는……

○조계원 위원 7명이 안 됐잖아요?

○증인 박주호 예, 안 됐습니다.

○조계원 위원 규정 절차에 맞지 않네요.

이임생 이사님은 포엣과 바그너 면담 후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하셨지요? 바그너와 포엣 면담 과정에서 동행한 사람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증인 이임생 그 당시에 김대업 본부장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행정직원, 통역 이렇게 왔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과정에는 누가 동행했습니까?

○증인 이임생 면담은 저랑 홍 감독님 둘이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면접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이임생 주로 포엣과 바그너 분의 축구 철학이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홍명보 감독이 맡아 줘야만이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나요?

○증인 이임생 제가……

○조계원 위원 감독직을 제안한 것 아닙니까? 면담입니까, 감독직 제안입니까?

○증인 이임생 저는 면담을 하기 위해서 홍 감독님한테 부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이분이 한국 축구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게 면접입니까?

○증인 이임생 위원님, 혹시 제가 설명할 시간을 주실 수……

○조계원 위원 아니, 면접에서 왜 그걸…… 홍 감독이 감독을 맡아야 하는지를 수차례 말씀드린 게 그게 면접이냐고요?

○증인 이임생 위원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배워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전력 위원회에서……

○조계원 위원 대한민국축구협회의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배워 가는 과정으로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임생 전력위원회에서 최종후보 3명이 뽑히면요 이분들은 의사 타진을 하고 협상의 대상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계원 위원 그만하시고요.

박문성 참고인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고인 박문성 개인적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하신 특히 축구협회 쪽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저희 팬들도 아마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당했냐라고 공정했냐라고 얘기했는데 공정했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벗어난 감독 선임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게습니까?

○증인 유인촌 저는 어쨌든 그 절차적인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두 사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는 하고 있고요. 10월 2일 날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 발표를 하고요.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감독의 거취 문제는 축구협회가 그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조계원 위원 홍명보 감독님께 묻겠습니다.

본인은 절차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임이 됐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절차에 위법이 발생해서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이, 감독직에 임명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홍명보 위원님……

○조계원 위원 그것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

요.

○증인 홍명보 위원님, 지금 저희는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예선을 코앞에 두고 그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에 선임이 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증인 홍명보 저는 제가 이 일을 한 번 해 본 경험으로서……

○조계원 위원 ‘예, 아니요’로만 답하세요.

○증인 홍명보 전혀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계원 위원 그러면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이 됐으면……

○증인 홍명보 감독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팀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감독은 홍명보 감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증인 홍명보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감독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지금 축구인들이 다 의구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증인 홍명보 이번 두 경기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니다.

○조계원 위원 두 경기의 첫 번째 경기는 어땠는데요?

○증인 홍명보 첫 번째 경기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니다.

○조계원 위원 결과가 좋지 않은 게 축구인들의 열화와 같은 분노와 감독은 물러나라, 정몽규 회장은 물러나라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홍명보 예, 맞습니니다. 영향……

○조계원 위원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증인 홍명보 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앞으로도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감독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끌 어졌을 경우 계속해서 그런 사기 저하와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오만과의 성적이 3 대 1,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증인 홍명보 예, 그래서 뭐 제가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예, 그러니까 분명히 해 주세요.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사퇴의 용의가 있다 이런 걸 분명히 밝혀 주셔야지요.

정몽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사실상 10차 위원회에서 추천을 다 했고요. 그리고……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절차에 위법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증인 정몽규 위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의 임명 과정에서는 위법이 없었습니까?

○증인 정몽규 뭐 클린스만 감독도 제가……

○조계원 위원 마이크 뮐러 감독은 전혀 본인이 감독 선임 절차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 했고 중간중간 보고하면서 이미 임명을 했다, 과정 자체가 나중에 전력강화위원들조차도 제대로 관여하지 못했다. 결국 그 모든 게 제왕적인 회장의 뜻에 의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임명된 거 아닙니까?

○**증인 정몽규** 클린스만 감독 때도 여러 명이 추천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리고 솔샤르 감독도 후보로, 제스 토롭 감독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이 해임된 이후 위약금 문제가 지금 7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위약금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증인 정몽규** 클린스만 감독이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임명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래서 위약금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서, 클린스만 감독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지시해 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충분히 협회의 재정에 문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투 감독이나 코치진들 선임할 때도 제가 40억, 외국인이어 가지고 40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 위약금 문제가 본인의 불공정한 임명에 의해서, 감독 임명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라면 본인이 책임지겠습니까?

○**증인 정몽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됐을 때 책임지겠냐는……

○**증인 정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책임지겠다는 것이지요?

○**증인 정몽규** 예.

○**조계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정몽규 회장님,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멀어서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증인 정몽규** 예.

○**강유정 위원** 축구협회가 동네 계모임이나 동아리모임인가요?

○**증인 정몽규** 아닙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지요? 오늘 주신 말씀 자료를 보니까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자리는 공정했느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혹시 불공정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공정과 불공정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자료 주셔서 설명하시면 더 이상 여기서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여깁니다라고 판단을 물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자료제출을 거의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정은 설명 영역입니다, 입증 가능한. 그렇다면 최종 후보자 3인의 평가에 대해서 정성지표, 정량지표로 구분된 점수표, 회의록, 채점 결과 있습니까?

○**증인 정몽규**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강유정 위원** 아니, 최종 선택을 하셨는데 이걸 왜 모르십니까? 본 적 없으세요? 정량지표, 정성지표로 나누어진 점수표, 회의록, 채점 결과 보신 적 없습니까?

○**증인 정몽규** 위원님께서 혹시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없는……

○**강유정 위원** 아니요, 설명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영역이라고.

없어요, 있어요?

○증인 정몽규 감독 선임에 있어서……

○강유정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했지만 안 왔습니다. 있으면 오후에까지 받아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요즘 동네에서 뭐 하나 하려면, 이거 인사 문제예요. 회장님, 인사 문제입니다. 감독을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다 놓는 문제가 아니라 감독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인사 비리, 인사 불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채점 결과를 못 주겠대요. 황당합니다. 또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못 받은 게 많은데 박주호 선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에 제가 묻겠습니다.

기록이나 점수, 서술로 기재된 채점표를 남기거나 협회에 제출 혹은 제공한 적 있습니까?

○증인 박주호 제시 마시 감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의 과정은 제출을 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출했군요. 감사합니다.

4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선임 일정, 서류제출 기준, 평가, 이게 3월 12일이거든요.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거 달라고 했습니다, 했다고 했길래. 지금 박주호 선수 말씀 들으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있겠네요. 하지만 또 요구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출하고 설명이 다 됐으면 이 자리까지 안 오셨어도 될 문제인데 지금 기초적인 자료를 뭐 때문인지, 저를 비롯해 많은 축구팬들은 불공정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좀 띄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넘겨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바로 정해성 건강위원장과 그 밑에 보면 이임생 나중에 위임받은 건강위원장의 평가표가 되어 있는데 이 평가표를 한번 보십시오. PPT 보고를 보면 우측 하단 밑에 뭐라고 쓰였냐 하면 이 면담의 분위기가 흥미롭게 만들었다 이런 매우 주관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만들었다라는 분위기 평가가 어떤 감독을 선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성지표, 정량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걸 보여 주게 되면 축구팬들은 훨씬 더 의아하게 될 겁니다.

그 뒤에도 PPT 있는데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 주세요.

세 사람을 비교한 보고서가 A4 5장 분량으로 있다고 하길래 제가 요구했더니 이 PPT 1장을 달랑 보냈는데요. 요즘 중학생 축구팬도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전력과 전술을 비교한 평가표를 각각 개인 후보당 A4 5장은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지어 사후적으로라도 저한테 만들어 제출할 줄 알았지 이렇게 성의 없는 평가보고서의 PPT 1장짜리가 올 줄은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계모임이나 요즘 동아리모임에도 정관이 확실해요. 계모임이나 동아리모임도 들어가고 나갈 때는 그 정관에 대해서 위배되면 상당한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네 계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 하다는 생각 일단 들고요.

또 여쭙겠습니다.

회장님, 이임생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를 겸임해도 됩니까?

○증인 정몽규 병행한다기보다는……

○강유정 위원 겸임해도 됩니까라는 정관에 써 있는 용어로 물었는데 말씀 바꾸지 마십시오. 겸임해도 됩니까?

○증인 정몽규 그……

○강유정 위원 안 됩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나름의 동네 계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겸임을 하면서 정관을 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 받았습니까? 거쳤습니까, 이사회의 결의?

회장님에게 여쭙고 있습니다.

○증인 정몽규 예, 그……

○강유정 위원 이사회의 결의 있었습니까?

○증인 정몽규 지금까지 관행상 이사회 결의는 선임한…… 그 보안을,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선임한 다음에 추후 추인받습니다.

○강유정 위원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도 있어요. 맞아요, 가능해요. 그래서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가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증인 정몽규 예.

○강유정 위원 남아 있습니까?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에 열린 이사회 안건, 결정 사항 어디에도 이임생 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위증하신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인 정몽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걸로 해 가지고……

○강유정 위원 아니요, 이사회.

○증인 정몽규 나머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전력강화위원회 말고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된단니까요? 이사회하고 전력강화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회장님 구분 못 하십니까? 이사회 따로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되어야 돼요. 그런데 전력강화위원회에서만 서로 이렇게 저렇게 위임한다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정관의 위배입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공정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공평하다, 모든 절차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정관을 협회 스스로 만들어 놓았으면서도 위배하면서까지 약간의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질의가 나왔지만 정해성 위원장이 6월 27일 정몽규 회장에게 대면 보고를 하고 최종 후보자 3명 명단도 보고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사임하거든요. 그때 무슨 일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증인 정몽규 말씀한 그대로고요. 제가 절차적인 거, 그러니까 두 외국인 감독을 직접 대면해 가지고 그다음에 판단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래서 면담 일정까지 계속 만들어 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사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증인 정몽규 예, 저도 그다음 날 그 소식을 듣고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공정성 시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증인 정몽규 그다음 날……

제가 약간 설명……

○위원장 전재수 예.

○증인 정몽규 여기서 그 인사 문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선발되지 않은 지원자를 공개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오후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다시 답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를 출신 김승수입니다.

정몽규 회장님, 94년도부터 프로축구단 구단주를 하였고 한 30년 동안 우리 축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였고 축구를 사랑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한축구협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선째 축구협회장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증인 정몽규 예.

○김승수 위원 체육단체의 협회장을 3선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정몽규 회장님도 3선 당시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지요?

○증인 정몽규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스포츠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직후에 당시 스포츠공정위원장이었던 김병철 위원장 등 8명을 원주 오크밸리…… 오크밸리가 지금 회장님 소유로 있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되었지요, 2019년에?

○증인 정몽규 예.

○김승수 위원 회장님 소유의 골프장에 8명을 초대해서 접대 골프를 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정몽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 그런 적이…… 한 번 친 적은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바로 3선 승인을 받고 불과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공정위원장을 불러서 골프 접대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정몽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정위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수 위원 아니요, 승인받고 나서 그 이후에 골프를 치신 겁니다.

대한체육회장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스포츠공정위원장이 본인이 3선을 승인해 준 회장의 소유 골프장에서 이렇게 접대 골프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기흥 그게 이제 그때……

○김승수 위원 아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기흥 그분이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증인 정몽규 아니, 저도 어떤 분이 계셨는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위증을 할 경우에 1년 이상 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증인 정몽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 정몽규 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스포츠공정위원회도 공정성에 오해를 받고 있고 회장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절차와 과정이 다 공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앞서 자료 요구했는데 안 들어왔다고 한 것 중에, 홍명보 감독의 연봉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책정하셨습니까?

○증인 정몽규 그것은 개인정보라서 그런 부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외국인 감독과 동등하게 대우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언론에는 한 20억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까?

○증인 정몽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김승수 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지금 이야기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7월 15일 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처럼 절차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팬과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겁니다.

앞에 영상을 좀 틀어 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회장님, 이 화면 보시고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증인 정몽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왜 저렇게 축구팬들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수 위원 당연히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할 때…… 회장님도 얼마 전에 ‘축구의 시대’ 책을 쓰셨지요? 거기에 보면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후보 리스트 작성하고 또 우선 순위 체크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규정상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지도계획서 내야 되고 면접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다 거른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선임이 됐어요.

만약에 대학 입시 같으면 또 기업 채용 같으면 입시 지원서도 내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고 면접도 안 했는데 채용할 수 있습니까?

○증인 정몽규 절차와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김승수 위원 크게 벗어났지요.

○증인 정몽규 그리고 외국에서도 감독 선임이나 선수 선발할 때 다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회장님, 지금 우리 규정에 선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은 처음 기업에 입사하실 때 현대자동차에 대리로 바로 입사하셨지요, 시험 없이?

○증인 정몽규 대리로 입사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바로 입사하셨지요?

○증인 정몽규 예.

○김승수 위원 지금도 그러면 현대산업개발 채용은 마음대로 그렇게 채용합니까, 직원들을?

○증인 정몽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요, 당연히.

○증인 정몽규 예, 당연히.

○김승수 위원 회장님께서 처음 기업에 취업할 때도 그렇게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취업을 했고 또 프로축구 구단을 운영하시면서 구단까지는 구단주 마음대로 감독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공적기관인 대한축구협회의 감독을 회장님 마음대로 임명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정몽규 마음대로 임명한 적은 없고요,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다들 위원님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원 의사도 밝히지 않고 서류도 제출 않고 면접도 안 한 사람을 선정한 것이 절차가 공정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회장님의 최근 ‘축구의 시대’에 보면 홍명보 감독에 대한 회장님의 애정이, 정말 각별한 애정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납니다. 저번에 브라질 월드컵 때 참패를, 아주 참담한 성적을 당하고 그때 물러났을 때도 여론이 아니었으면 계속 유임을 하고 싶었다는 것들을 여러 군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계속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호주 아시안컵까지 맡겼더라면 어땠을까……

이것 외에도 3선 할 때 먼저 홍명보 감독한테 축구협회 회장을 제안했다고 이렇게 책에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정몽규 저희가 러시아에서 독일이랑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2 대 0으로 이겼었습니다. 그때 린트 독일 감독은 저희한테 2 대 0으로 하고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FIFA 랭킹 1위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린트 감독은 4년 동안 국가대표 감독을 계속 해 왔습니다.

○김승수 위원 외국 사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증인 정몽규 저는 그런 선진국의 연속성을 갖는 것이 저희도 필요하고 한 경기 잘 했다고, 한 경기 못 했다고 국가대표를 물러나라 이런 것은 좋은 관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3선 당시에 차기 축구협회장으로까지도 제안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국가대표 감독을 물러났던 상황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마음에 담고 아쉬워하는 회장님의 마음이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물러났을 때도 보면 지금도 아쉬워하는 것이 그때 식당에서의 동영상이 그것 자체가 과장된 동영상인데 노출이 됐기 때문에 물러났다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영상을 유출했다고 그 포토그래퍼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박주호 위원이 선임 과정에서 부당성을 제기하니까 애초에 또 징계하려고 했던 게 대한축구협회의 태도 아니었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러 오면서 참 굉장히 국민들 인식하고 동떨어졌다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오늘도 지금 회장님이나 홍명보 감독 말씀하시는데 축구협회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정말 축구에 대해서, 그대로 직설적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축구에 대해서 뭇도 모르는 것들이 떠든다. 우리만큼 축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축구협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경청할 생각은 고사하고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고 뭐 때문에 개인적인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금 축구협회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 전부 다 이런 식의 해명입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한결같이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 ‘감독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결국 마지막 카드는 경질밖에는 없다’ 이렇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홍명보 감독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아직 초반이라서 알 수가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가대표 감독은 축구협회에서 결혼이나 마찬가지로, 파트너를 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파트너가 그 전에 A를 만났었다, B를 만났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장단점은 뭐다 이렇게 논의되는 것, 인사 과정이 논의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앞으로 어느 국내 감독을 다시 채용하거나 해외 감독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낱알이 해부하듯이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인사 관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절차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을 받고 개선하고 그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는 이번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은 명백한 무효인 행위고 이미 홍명보 감독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경기도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광복 이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세 가지를 꼽은 게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88 서울 올림픽 개최고 두 번째가 IMF 금 모으기, 세 번째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4강 진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분노, 국민적 관심,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축구팬들에게 진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나아가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체육회가 더 발전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절차를 말하기에 앞서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몽규 회장님, 지난 2월 1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은 시스템적으로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정몽규 예.

○임오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 단 두 번의 전략강화위원회 회의와 온라인 면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스템적인 결정이었습니까?

○증인 정몽규 접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스포츠의 경우에는 선수를 뽑고 이럴 때도 1시간 만에 답해라, 마라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다 과정을……

○임오경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축구는 이제 그냥 축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결정이라고 하지만 신중함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비해 클린스만 감독 선임 절차는 허술함을 넘어 의도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중도계약 해지로 연봉 29억 원 그리고 계약 해지에 있어서 70억 원, 그래서 총 100억 원을 날렸습니다.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증인 정몽규 저기 숫자는 상당히 오해가 있는 숫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이렇게 해지까지 할 정도면 신중함이 더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선임 과정에 있어서 의구심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회장님, 2022년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과의 만찬 자리 회장님과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초대받지 못하셨지요?

○증인 정몽규 예, 그날은 못 갔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때 문체부장관도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었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축구협회 회장이 또 문체부장관이 참여하지 않은 식사 자리였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선수들은 윤 대통령께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감독이 선임되기를 희망했고 축구계의 한 관계자의 말로는 용산의 의중을 파악한 당시 박보균 전 문체부장관이 회장님께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외국인 감독 선임을 독촉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통화하신 적 있으시지요?

○증인 정몽규 외국인 감독 하라, 마라 이런 말씀은 하신 적 없고 다음에 좋은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도는 얘기했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회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정몽규 그 정도, 그게 정확한……

○임오경 위원 여기서 거짓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 정몽규 예.

○임오경 위원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받은 것은…… 축구협회 통화기록을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회장님과 박보균 전 장관의 통화기록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하시면 통화기록 내역을 저에게 오후까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축구협회가, 문체부장관이 이렇게 감독 선임에 관련돼서 개입을 해서 재촉을 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이런 재촉을 한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차례밖에 클린스만 감독을 만나지 않고 감독을 선임하는 줄속 선임을 했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100억 원에 가까운 클린스만 감독이 계약 해지에 들어간 비용을 손해배상청구를 정부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에게.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증인 정몽규 지금 저한테……

○임오경 위원 예, 회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정몽규 그런 게 사실이 아니지요……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증인 정몽규 사실이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유인촌 장관님, 만약에 박보균 전 장관께서 이렇게 개입해서 줄속으로 감독을 영입했다라면 문체부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증인 유인촌 글썬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서……

○임오경 위원 모르는 사실인데, 제가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유인촌 장관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증인 유인촌 제 입장으로 얘기하면 저는 어느 누구하고도 그런 통화를 안 하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지금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홍명보 감독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독님, 처음부터 감독을 맡을 의사가 있었습니까?

○증인 홍명보 없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6월 30일 축구협회 행정력을 비판하면서 감독직 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셨습니다. 바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홍명보 그 당시에는 제가 울산 HD 감독이었습니다. 제가 협회에서 어떤 제안도 받지 않은 상태에 대표팀을 간다, 만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2월부터 계속 제 이름이 대표팀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우리 팀이나 팬들이 너무나 흔들렸고 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는 어떤 제안도 없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울산 서포터즈에게 사과까지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울산 서포터즈 입장에서는 황당무계한 일이었고 많이 분노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절차상으로 우선 공모에 응하고 면접을 봐서 감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의 말을 들어 보면 협회가 싫다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감독으로 섭외한 것 같습니다. 감독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이임생 위원장은 집까지 찾아갔는지 저는 이것도 아이러니하고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로는 정몽규 회장님은 외국인 감독을 선호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에게 대표팀 감독을 맡아 달라고 부탁도 했다. 회장님, 어떤 게 진실입니까?

○증인 정몽규 둘 다 아니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정해성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내국인 감독을 원하느냐, 외국인 감독을 원하느냐 이렇게 한번 여쭙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전장위에서 우리 대표팀이 지금 상태에서 뭐가 가장 필요한 요소냐 이것을 많이 토의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왜 외부에서는 정몽규 회장님께서 홍명보 감독을 기피했다, 또 한편에서는 외국인 감독을 선호했다 이런 말들이 자꾸 언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과 축구팬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회장님. 그래서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감독 섭외를,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홍명보 감독님도……

마지막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번 사건은 진짜 국민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국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장님의 답변에 있어서는 회장님은 절대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또 홍명보 감독은 감독을 처음부터 원치 않았다.

하지만 협회 측에서 계속해서 제안이 들어왔더라는 말이 사실입니까, 홍명보 감독님?

○증인 홍명보 협회 측에서 저한테 계속 들어온 건 아니고요. 7월 5일 날 이임생 위원장 면담 후에 제가 결정을 한 겁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얘기가 있어서 결정을 한 거지요? 그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증인 홍명보 예.

위원님, 혹시 이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임오경 위원 마지막 설명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증인 홍명보 예.

○임오경 위원 회장님, 그렇다라면 제가 볼 때는 협회의 행정 절차적인 허점으로 인해서 지금 뒤에 있는 감독은 피해자인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정몽규 선임 절차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여러 가지 SNS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한 게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SNS에서 제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한 말씀만 하면 보통 조회 수가 몇십만이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약간 왜곡된 뉴스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언론 왜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홍명보 감독에게 마지막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 전재수 홍명보 감독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 홍명보 예. 시간이 괜찮으시면 잠깐 한마디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예.

○증인 홍명보 이 선임 과정에서 참 마음이, 여러 분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울산 HD 감독으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했고 팬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으면서 축구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축구 인생 40년에 가장 힘든 시간이 지난 10년 전에 2014년 월드컵 후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월드컵 대표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임생 위원장이 집 근처로 찾아와 가지고 면담을 할 때 한국 축구의 지금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울산 HD에 있으면서 또 대표팀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처음 제의를 받았고요. 그 제의를 저는 울산 HD가 아닌 국가대표팀에 마지막에 봉사를 한번 하고 그동안, 예전 10년 전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저는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임생 위원장님 면담 후에 또 그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원주갑 출신의 박정하입니다.

회의 시작한 지 한 3시간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들 자리도 불편하실 텐데 고생하십니까.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님께 우선 간단하게 여쭙게요.

앞서 배현진 위원님께서 조감도 같은 것 보여 주셨는데 천안 센터 그게 착공이 됐나요?

○증인 정몽규 예, 내년 5월 달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내년 5월에 완공……

이 조감도 오늘 말고 그 전에 보신 적 있으시지요?

○증인 정몽규 조감도는 항상 보고 설계도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거기 보면 축구협회 아레나가 아니라 HDC 아레나, 아까 저도 이렇게 선명하게 봤는데 그것 보신 적 있으세요?

○증인 정몽규 그것 처음 봤고요.

○박정하 위원 처음 보셨어요?

○증인 정몽규 저희가……

○박정하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갖고 계시는 조감도는 지금 화면에 비쳐졌던 조감도하

고 다른 조감도였나요?

○증인 정몽규 아마 그 네이밍 라이츠를 앞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스타디움에 대한 네이밍 라이츠를. 그것에 대한 예시로 설계사에서 그렇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축구협회나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조감도에는 HDC 아레나라고 돼 있진 않아요?

○증인 정몽규 조감도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장이 있습니다. 수십 장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혹여나 그런 일들이 있었거나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아니면 회장님이 직접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좀 봤으면, 그런 것들이 유통되지 않게 했으면 훨씬 지금처럼, 정몽규 회장님 그동안 축구 많이 좋아하시고 축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만큼 지금 축구를, 축구협회를 사유화한다라는 오해는 없었을 텐데 왜 그런 조감도가 유통되고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정몽규 저희가 운영하는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축구협회에 관련해서 어떤 거래도 하지 않고, 건설 부분에 저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찰 과정이나 이런 것을 조언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께 좀 여쭙게요.

정연욱 위원님이 ‘체육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동의하세요, 아니면 부동의하세요?

○증인 이기흥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정하 위원 동의하지 않아요?

○증인 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어떤 면에서 그러신가요?

○증인 이기흥 저는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오히려 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체육 대통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어요?

○증인 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어제 강원도 춘천 다녀오셨나요?

○증인 이기흥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거기서 보니까, 아침 보도 보니까 강원도 현지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문화체육부장관이 체육계를 정치집단으로 표현한 데 따른 체육인들의 집단 입장 표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장관님께서 정치집단이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문체부가 괴물이고 정치집단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유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도돼 있는데 맞나요?

○증인 이기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박정하 위원 이 보도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 이기흥 아니, 같은 그런 취지인데……

○박정하 위원 이런 취지예요?

○증인 이기흥 예. 그건 시도·시군구 회장님들이 다 모이셨는데……

○박정하 위원 이 표현대로, 여기 보도대로 하면 시군구 회장들이 모여서……

○증인 이기흥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박정하 위원 문화장관님의 정치집단이란 표현에 대해서 체육인들이 막 부글부글 끓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 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집단 입장을 표명하자라는 의견들을 제시했다는 거지요?

○증인 이기흥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기흥 회장님이 ‘문체부가 오히려 괴물이고 정치집단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거지요?

○증인 이기흥 그런 이야기를 한다……

○박정하 위원 한다?

○증인 이기흥 예, 그런 이야기……

○박정하 위원 아는데요. 여기 보도는 ‘장관님께서 정치집단이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문체부가 괴물이고 정치집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증인 이기흥 그런 말씀……

○박정하 위원 그러면 판 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증인 이기흥 아니, 내용은 같은 얘기인데 시군구 회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이야기……

○박정하 위원 이거는 이기흥 회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증인 이기흥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요?

○증인 이기흥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체육계에서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박정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것 오늘 아침에 강원도 현지 뉴스에서 발행된 건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니까 고쳐라,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증인 이기흥 제가 한번 보고, 제가 그것을 정확히 보고 정정할 게 있으면 정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제 춘천 다녀오셔서 이렇게 큰 행사 하시고 이런 건에 대해서 체육회 임직원들이나 보지 않은 분들이 회장님께 이것 아침에 스크랩이나 이런 것 안 보여 주시나요?

○증인 이기흥 예,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모르셨어요?

○증인 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우리 회의 10시부터 시작이었는데 미리미리 이런 것 안 보여 주나 보다.

○증인 이기흥 일찍 바로 국회로 왔습니다.

○박정하 위원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일각에서 체육 대통령이더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시군구에 있는 체육회장님께서 ‘집단행동하자’ 그러니까 ‘우리 들고일어

날 수 있어. 한번 해 볼까요?’라는 얘기들을, 전국에 다니시면서 이런 얘기들, 이런 의견들을 들으니깐 일각에서 체육 대통령이다, 그리고 체육계의 힘을 가지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라는 오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이기흥 그건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만약에……

○증인 이기흥 그 기사에도……

○박정하 위원 회장님, 이것 한번 기사 보시고요. 인터넷에도 보면 다 나오니까 보시고……

○증인 이기흥 예, 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잘못됐다면 오후 회의 개의 전까지 이 해당 매체에 항의해서 정정해서 새로운 기사가 나가게끔 하고 여기서도 분명하게 회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기흥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아마 스포츠재단 운영과 관련한 건가 본데, 회장님 멘트예요. ‘김진태 강원도지사과 강원도의회 의장에게도 경고를 한 상태다’ 이런 말씀도, 없었어요?

○증인 이기흥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다……

○박정하 위원 올해도 논의 결과가 미진하면 내년에는 다른 방안을 찾아, 이걸 뒷부분이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증인 이기흥 문제 제기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경고를 한 상태가 아니라 문제 제기를 했다?

○증인 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증인 이기흥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역에서 혼란이 일어난다.

○박정하 위원 마찬가지로입니다. 하여튼 확인해서 오후 보충질의 때 말씀 주세요.

○증인 이기흥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기흥 회장님도 3연임 하시려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증인 이기흥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확정되지 않았어요?

○증인 이기흥 예, 확정 안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체육회장님이 3연임이나 이렇게 하실 때 아까 축구협회장님과 달리 스포츠공정위원회만 거치면 돼요, 아니면 정관도 바뀌야 돼요?

○증인 이기흥 정관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냥 스포츠공정위원회만 거치면 되나요?

○증인 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오늘 아마 몸이 불편하셔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님 안 나와 계신 것 같은데 김병철 위원장님하고는 인연이 얼마나 돼요?

○증인 이기흥 저는 체육회 특보로 모셔올 때 어드바이저로……

○박정하 위원 언제쯤이에요, 그게?

○증인 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언제쯤?

○증인 이기흥 알고 이렇게 지낸 것은……

○박정하 위원 그렇지요? 알고 지낸……

○증인 이기흥 그 전이고……

○박정하 위원 훨씬 전부터?

○증인 이기흥 예, 전이고 모실 때부터 이렇게 깊게 알게 됐습니다.

○박정하 위원 1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심의를 하려면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몇 분이나 계세요, 위원회가?

○증인 이기흥 열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열다섯 분?

○증인 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거기에 이기흥 회장님하고 애초부터 인연이 있었던 분들, 전혀 모르는 분들 비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증인 이기흥 90%가 전혀 몰랐던 분들……

○박정하 위원 90%가 전혀 모르는 분들?

○증인 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그건 이따 제가 보충질의에 따져보겠습니다.

장관님, 하나만 여쭙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스포츠공정위원회 제4조 보니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정기 대의원총회 거치고 추천회의 거치고 체육회가 문체부에 검토 요청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문체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지요?

○증인 유인촌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거의 관리 감독은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전문성이나 자율성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 보면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우리 공정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과정을 거쳐서 연임된 분들이 아마 거의 다,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도 계속 어떤 심사를 하더라도 다 통과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서울 서초구의 신동욱입니다.

아침에 축구협회 관련된 질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 느낌상 이게 우리 스포츠계의 상당히 이런, 일종의 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협회가 좀 사유화된 듯한 느낌들이 좀 대체적으로 만연돼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엄격하게 따져서 바로잡을 것은 반드시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홍 회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홍 회장님을 향한 세간의 시선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3선 연임을 하셔서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조금 전에 스포츠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꼭 보니까……

지금 화면 좀 잠깐만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원들이 연임한 비율을 저희가 보니까요 이기홍 회장님 취임하기 전에는, 2016년까지는 22% 정도가 연임을 했는데 2017년부터 보니까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까운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임원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계속 체육회를 통제하려고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것은 왜 저렇게 갑자기 높아졌습니까?

○증인 이기홍 기본적으로 지금 연맹 회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시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 번 하게 되면 연맹이나 이런 데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요청도 드리고 아마 그런 데 기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22%에서 그래도 90~100%까지 하는 것은 너무 좀 심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회장 연임을 위한, 이기홍 회장님 연임을 위해서 임원들 내 사람 만들기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3선 도전 관련해서 정치권에 이런저런 말씀들 하고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실제로……

○증인 이기홍 전혀 그것은, 그런 얘기는 정치권은 특히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 것은 없으시고요?

○증인 이기홍 예, 없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스포츠공정위원장은 누구시지요?

○증인 이기흥 김병철 위원장이십니다.

○신동욱 위원 김병철 위원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증인 이기흥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조직이 방대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때 통합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입법 문제라든지 행정 또는 국제, 투명성 강화 이런 부분에 좀 굉장히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모시게 된 겁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김병철 위원장님이 굉장히 가까운 분이시라고 하는데……

○증인 이기흥 저는 뭐 다 가깝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 연임 심사는 공정위원장님한테 받으시는 거지요?

○증인 이기흥 위원장님이 아니고……

○신동욱 위원 승인 사항인 거지요?

○증인 이기흥 그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신동욱 위원 위원회 승인 사안이신 거지요?

○증인 이기흥 예.

○신동욱 위원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임원들을 계속 연임시킨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측근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결국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문체부장관님,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를 테면 연임 승인을 공정위원장이 하는데 그분을 또 대한체육회에서 임명을 하고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증인 유인촌 두 번 이상 할 경우에 거길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공정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그건 전혀 체육회나 우리 문체부나 관계없이 제3의 기관으로 다시 위탁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것뿐 아니라 지금 스포츠 내부의 문제 같은 것도 심사를 하게 되는데 내가 내 문제를 심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 같은 걸 이번 기회에……

○증인 유인촌 저희들이 그래서 시정권고를 일단 했고요. 그리고 특히 김병철 위원장은 아마 이기흥 회장의 특보를 꽤 오래 하다가 이리로 옮겨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뭐 관계로 봐서도 이해충돌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기흥 회장님, 지금 특보를 오래 하셨는데……

○증인 이기흥 19개월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런 분을 공정위원장으로 두고 계신 것은 이해충돌의……

○증인 이기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기흥 왜냐하면 특보라는 그 어드바이저 역할이 대한체육회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저의 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 공정위

원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구성에서부터 위원회의 진행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는……

○**신동욱 위원**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적어도 본인의 특보를 이렇게 오래하신 분을, 공정위원장은 정말 사심 없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증인 이기흥** 말이 특보지 실질적으로는 체육회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어드바이저이십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특보가 굉장히 많지요?

○**증인 이기흥** 보통 한 3~4명 정도입니다. 나가고 들어오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신동욱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특보……

지금 시간이 다 됐군요.

다음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정몽규 회장님, 저 사진 좀 봐 보실래요.

자주 보시지요? 팔레스타인전 할 때 저 사진 보셨지요?

○**증인 정몽규** 예.

○**민형배 위원** ‘정몽규 OUT’, 요즘 축구 경기장 가면 저것 자주 나옵니다. 아시지요?

○**증인 정몽규** 예?

○**민형배 위원** 저런 광경이 자주 나온다고요.

○**증인 정몽규** 예.

○**민형배 위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말씀해 보세요.

축구협회 황제회장, 축구 대통령, 축구계 윤석열,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증인 정몽규** 예.

○**민형배 위원** 저 축구계 윤석열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냥 죽 돌아다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축구팬들과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함량 미달 인사를 요직에 임명한다, 회장 당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돌려 막기 한다, 비리 축구인들 사면을 시도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랬거든요. 자격 미달 장관 임명하고 MB 정부 뉴라이트 인사 돌려 막고 재벌·정치인 특별사면하고, 그래서 둘이 닮았대요. 그래서 이른바 평행이론이라는 건데 축구계 윤석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음에 안 드시지요?

○**증인 정몽규** ……

○**민형배 위원** 회장님, 마음에 안 드시지요?

○**증인 정몽규**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요즘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제가 노조 성명서를 비롯해서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축구팬들의 이야기를 죽 종합해 보니까 지금 띄워져 있는 것처럼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야 할 열 가지 이유, 저것 얼른 한번 죽 봐 보십시오. 혹시 내가 이거 한 것 아닌데 그런 게 있습니까?

박문성 참고인 잠깐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회장님, 혹시 억울한 것 있으세요? 아니다, 이것 아닌데 싶은 것 있습니까? 사면 파동, 집행부 무능력·무원칙, 클린스만 선임, 아시안컵 4강 탈락, 위약금 논란, 올림픽 진출 실패, 홍명보 감독 선임과 절차, 회장 4선 연임 논란, A매치 티켓값 기습 인상, 협회 사유화 및 한국 축구 발전 저해. 혹시 이것 나 아닌데 싶은 것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증인 정몽규 10번, 9번 이런 것은……

○민형배 위원 9번, 10번은 아닌가요?

○증인 정몽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8번도 아닌가요?

○증인 정몽규 저도 4연임한다고 제가……

○민형배 위원 하신 적 없으시지요?

○증인 정몽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박문성 참고인님, 저기 열 가지 중에서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만 뽑아 보십시오.

○참고인 박문성 제일 심각한 거요?

○민형배 위원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

○참고인 박문성 일단 스포츠의 근간을 흔들었던 승부조작 비리 축구인 사면 파동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민형배 위원 빨리빨리요.

○참고인 박문성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과 절차 문제 그리고 2번, 본질적으로는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의 독선, 무능력, 불공정, 무원칙……

○민형배 위원 지금 축구협회가 행정을 너무 잘못하는 거지요, 운영을?

○참고인 박문성 예.

○민형배 위원 제가 오전에 내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허술하게 협회가 운영이 될까, 대기업의 회장님이 협회 운영을 아마 임원들한테 너무 맡겨 놓으셔서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대로 그냥 가서 그랬나 싶을 만큼이었어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제가 저 중에 7번 홍명보 감독 선임과 절차 관련해서 한 가지만 따져 보겠습니다.

PPT 올려 줘 보세요.

이임생 이사님, 지난 7월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저런 말씀 하셨지요? ‘동의를 얻어 내고 나서 내가 결정했다, 전권을 위임받은 다음에’, 그러셨지요?

○증인 이임생 예.

○민형배 위원 하셨지요?

○증인 이임생 예.

○민형배 위원 다섯 분한테 모두 동의를 받으셨어요, 다섯 분한테?

○증인 이임생 유선상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민형배 위원** 아니, 어떤 형식으로든 동의를 다 구하셨냐고요.

기억 안 나시지요? 그러면 저것 봐 보세요.

저 카톡 대화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저 카톡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전강위 위원 한 분하고 나눈 카톡인데 카톡 기억나시냐고요?

○**증인 이임생** 예, 제가 카톡을 했었는데요.

○**민형배 위원** 왜 저렇게 동의해 달라고 하세요, 동의를 받았다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대답해 달라……

○**증인 이임생**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증인 이임생** 제가 위원분들한테 지난……

○**민형배 위원**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고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컨펌만 해 줘라. 그런데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당신한테 동의를 구한 적이 없대요, 위원 다섯 분 중에 한 분인데.

○**증인 이임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섯 분의 위원들한테 전화 통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결정……

○**민형배 위원** 왜 이렇게 회유를 하시냐고요, 이미 동의를 구하셨는데. 동의를 구하셨는데 왜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그날 아침이에요, 기자회견한 날 아침에.

제가 그러면 그분을 다음에 다시 부를까요, 한 번 더 열어서?

○**증인 이임생** 저는 통화를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좋아요.

그러면 박주호 위원님, 혹시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5명 전원 동의를 구했습니까?

○**증인 박주호** 전화 통화를 한 1분가량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이야기는 나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통보에 가까운……

○**민형배 위원** 그중에 감독 선임 건에 동의를 했고 그 대상에 홍명보 감독이 있었습니까?

○**증인 박주호** 후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고 그리고 포엣 감독과 바그너 감독에 대해서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랬지요.

그러니까 회장님, 제가 오전에도 봤고 지금도 봤는데 정말 허술하게 일을 하셨어요, 밑에 임원들이. 임원들 다 갈아치우시거나 아니면 회장님이 물러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셔야 아까 ‘정몽규 OUT’ 이런 구호가 더는 안 나올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제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감독 선임에 아무 문제가 없고 축구팬들이 오해하고 있다, 감독 선임에 문제가 있었고 책임지고 회장직 사퇴하겠다, 감독 선임에 문제가 있고 축구팬들과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임기 내 협회를 혁신하겠다. 어느 선택을 하실습니까?

○**증인 정몽규**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민형배 위원**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증인 정몽규** 잘못된 게 있으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3번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물려나실 일 없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있다 사과하고 협회를 혁신해 보겠다?

하여튼 지금부터 아주 간결하게 어떻게 축구협회를 혁신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정몽규** 여러 가지 이런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지적하는 것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협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어떻게 잘해요? 어떻게 잘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하셔야……

○**증인 정몽규** 오늘 지적해 주신 것 잘 참고해 가지고 걱정 없게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PPT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정몽규 회장님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천안 축구센터 건립 과정에 있어서 현대산업개발이 굉장히 깊숙하게 실무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것이 12년간 재임하신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님의 대한축구협회 사유화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렸고 ‘실제 HDC가 축구협회에 기여하고 있는 바는 많다. 임직원을 일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정몽규** 예.

○**배현진 위원** 그리고 그 결과물에 있어서 1차 결과물에 왜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도 아닌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명의로도 아닌 HDC 아레나라는 이름으로 그 결과물이 답신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왜 언론에 공개됐는데도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회장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앞서 질의하신 박정하 위원님의 질의에도 네이밍을 위한 어떤 가치이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증인 정몽규** 예.

○**배현진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제안이, 결과물이 왔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증인 정몽규** 여러 가지 결과물……

○**배현진 위원** 여러 가지 가치 제안이 왔다, 그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증인 정몽규** 여러 가지 제안이 아니라 앞으로 네이밍 라이츨, 스타디움에 붙일 네이밍 라이츨 팔 것이기 때문에……

○**배현진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증인 정몽규** 그것을 저희가 사거나……

○**배현진 위원** 오전에 정몽규 회장님께서 저희 위원 전원에게 이렇게 이름을 직접 펜

으로 써서 주셨어요. 대단히 성의 있어 보이지만 않습니다만 그래도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제가 밑줄 쳐 가면서 문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축구협회의 예산 그리고 지금 이 센터를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는 77억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모으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취지의 글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정몽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 그렇지요? 은행 차입도 본인이 직접 하셨고 국제축구연맹 회장도 천안 센터 건립에 6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것도 본인 업적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안 읽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것 FIFA 회원국들이 매년 FIFA에 납입하는 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지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잘하셔서 주는 돈이 아니라.

○증인 정몽규 그런 건 아니고요. FIFA한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배현진 위원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또 드릴게요.

분명히 회장님께서 HDC 아레나라고 온 것이 네이밍 라이즈용 가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정몽규 예.

○배현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지금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축구협회에서 2020년 3월에 공모를 띄울 때 분명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National Football Center(NFC)’라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HDC라고 올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회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에게 주신 편지나 이런 것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나는 12년 동안 이곳에서 재임하면서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 회사 임직원까지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국가 세금이 한 해에 몇백억씩 들어가는 체육계 공조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정몽규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대기업 회사에 체육계 공조직의 모든 실무가 아무 가림막 없이 노출되고 또 그 실무에 깊이 관여한다는 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증인 정몽규 저희가 거기에서 사익을 취한다든지 그러면……

○배현진 위원 사익을 취하고 안 취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계 공조직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특정 대기업에 의해서 실무와 그 내부의 모든 정보가 관여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지요?

○증인 정몽규 국가 세금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배현진 위원 자, 다음 자료 보여 주실래요.

공모나 이런 관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착공된 이후에

계속 공사되고 있지요?

○증인 정몽규 예.

○배현진 위원 이곳의 현장소장이 지금 HDC의 전·현직원들입니다.

현장소장은 건설업법상, 확인해 보세요, 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사장을 대리하는 현장대리인이지요?

○증인 정몽규 현장소장은 동부건설……

○배현진 위원 동부건설인데 다 현대산업개발 출신이지요?

○증인 정몽규 아닙니다.

○배현진 위원 자, 보십시오.

2022년 10월 HDC 사직 직후에 진 모모 씨가 천안 NFC 건립 현장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분이 그만두고 나서 지금 현재 HDC 소속의 직원이 파견계약으로 현장소장으로 가 있습니다.

회장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계 공모 단계부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 각까지 모든 관계, 지금 자재 하나 들어가는 것 하나까지 다 HDC가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협회가 너무 모자르고 부족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증인 정몽규 주 계약자는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고요.

○배현진 위원 현장소장이 HDC 파견이지 않습니까? 이것 굉장히 의심…… 됐습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HDC가 이렇게 축구협회의, 특히 천안 센터를 건립하는 데 실무와 모든 재정여건과 이런 정보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증인 유인촌 저는 몰랐고요. 이번 감사 결과로 이런 문제는 다……

○배현진 위원 추가를 하셔야겠지요?

○증인 유인촌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리고 특별히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사장을 대리하는 현장대리인인 현장소장이 현재 HDC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기업에서 대한 축구협회라는 조직을 사조직처럼, 회장님 주머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 가는 그런 조직처럼 운영하면 안 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놀랍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사를 하시는데 만일 이 부분을 누락하셨다면 살살이 감사하셔서 이것이 돈이 얼마가 들어갔고 하건 간에……

정몽규 회장님께서도 명예를 회복하고 싶으시면 아까 네이밍 라이츠부터 비롯해서 왜 이렇게 HDC의 많은 관계자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고 공사 감독까지 하고 있는지를 문체부에 낱낱이 소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증인 유인촌 우선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감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동안 저희들이 감독기관으로

서 여러 가지 허점이 많았던 점에 대한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박수현 위원입니다.

정몽규 증인께 질문합니다.

오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70세 연령 제한 그다음에 3회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FIFA와 AFC 모두 그런 규정이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문체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70세 이상 연령 제한은 FIFA에는 없고 AFC에는 있고 그다음에 3회 연임 제한은 FIFA에는 있고 AFC에는 없어요. 이게 문체부가 확인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전 답변의 취지를 보면 FIFA와 AFC 모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정몽규 증인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하게 바로잡고.

장미란 증인, 맞지요?

○**증인 장미란** 예, FIFA에는 70세 이상 후보자 제한이 없고 AFC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바로잡고 제가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정몽규**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께 질문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회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협회 부회장 4명의 사퇴 축구 또 지난 22일에도 협회 소속 14명의 이사들이 사퇴를 축구하고 있는 이 상황, 회장님의 이 상황 인식을 보니까 생활체육 출신인 회장님과 엘리트 출신인 이사들의 갈등, 엘리트 출신들이 생활체육 출신 회장님을 배척하는 이런 것에서 굉장히 원인을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까?

○**증인 김택규** 예,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데 오전에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정말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안세영 선수를 비롯한 후원사 신발 규정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장님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엘리트 출신 내부 인사들의 반대로 그것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가 있지요. 물론 그것이 민주당 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습시다만 그런 취지로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의 그 당시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증인 김택규** 제가 그렇게 답변은 안 한 것 같고요.

○**박수현 위원** 그때 이렇게 하셨어요. 양문석 위원님께서 ‘회장님은 후원사 신발 규정을 풀고 싶는데 엘리트 출신 인사들 때문에 지금 어떤 개혁도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전체적인 문제로 회장님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을지 모르지만 양문석 위원님은 그 당시에 신발 규정에 대해서 물으셨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체부가 10일 발표한 중간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관련된 이사회 논의에서 회장님의 반대로 후원사 신발 규정, 현행 규정이 그냥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홍 부회장께서 ‘국가대표선수들 신발은 규제를 좀 풀어 줬으면

하는 게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신발이 본인에게 가장 편하게 가야 하는데 신발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 신발만이라도 다른 제품으로 안 될까요?’ 이렇게 하니 회장님께서 ‘안 됩니다. 그것은 협회의 후원계약 위반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렇게 진행하셨거든요.

○증인 김택규 그 부분은 88차 이사회 때 홍성길 부회장이 이야기한 거고요. 87차 때 이 후원계약 부분에 대한 것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88차는 이사회가 끝나면 바로 협약식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정말 피나는 노력, 선수생활을 통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충분히 선수로서 그 순간을 정말 국민과 함께 기쁨을 즐거야 될 그 시간에 안세영 선수가 작은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에 앞서서 안세영 선수가 쏘아 올린 그 공이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또 체육계가 또 배드민턴협회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또 그런 작심 발언을 한 안세영 선수나 이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선수들의 요구, 발언들이 결코 묻히거나 폄하되거나 또 비난받아서 안 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협회장님께서 충분히 하게 이사회에서 그런 논의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1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조항은 쉽게 얘기해서 고쳐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절차적으로 그런 이사회를 거치고 하셨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택규 예.

○박수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정말 용기를 낸 선수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그리고 폄하되지 않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또 협회가 또 체육행정이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들여다봐서 배드민턴협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육계의 모든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내 잘못만이 아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묻는 것도 그런 책임을 묻고 질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아까 신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받아들이고 자꾸 바꿔 나가겠다고 하는 용기를 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 김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몽규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보니까 예산 언급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자료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면접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해라. 면접 대상 규모도 줄여라’ 그러니까 불멘소리가 나옵니다. ‘좋은 감독 뽑으려면 비대면보다 한번 만나라도 봐야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9차 회의록 보면 연봉 문제로 협회가 협상을 결렬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준비한 예산 규모를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답답해합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연봉 포함한 충분한 예산 지원을 협회장으로서 보장을 한 것이 맞습니까? 혹시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국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까?

○증인 정몽규 제시 마시 감독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시 마시가 세금 문제라고 그래서 22%를 내든 55%를 내든 그 부분은 협회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예산 문제는 얘기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회의 재정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니까 마이너스통장 개설했다가, 문체부와 협의 없이 했잖아요. 그래서 급히 변제하고 통장 닫았고, 이게 모든 원인이 축구종합센터 예산이 코로나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거치면서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오전에 말하셨던 것처럼 아까 회장이 설계비조차도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체 공사비 중에 자체 조달, 차입금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축협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예산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떻게 올해 건립공사가 착공될 수 있었느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하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요.

이렇게 협회가 힘든데 외부 재원 확보에 미온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외국인 지도자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선수들한테서도 나오고 또 정부도 감독 연봉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정몽규 제시 마시 감독의 경우에는 주거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본인의 마지막 편지에서요.

○김재원 위원 아니요, 제시 마시 감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축구종합센터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정몽규 아까 감독……

○김재원 위원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는 것이고요.

종합해 보면 국대 감독 예산도 지원을 거절하고 사단법인이니까 문체부 감사도 피하고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불응하고, 즉 이런 것들이 모두 축구협회가 어딘가로부터 간섭 받거나 흠잡히고 싶지 않다, 허물이 있다면 가리고 싶다 이 뜻이겠지요.

이번에 협회장선거 또 도전하시나요? 이제 당선되면 4연임인데요, 개인적으로 4연임을 꼭 하고 싶으신가요? 왜 그러냐 하면 국대 감독 예산도 줄이고 돈이 필요해도 예타 받지 않기 위해서 정부 지원도 받지 않고 축구종합센터 사업은 꼭 성공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본 위원한테는 증인이 4연임 포석을 두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PT 1·2 보시지요.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이 4연임 도전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임 시 흠집이 없어야 하고 특별한 업적과 재정적 기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또한 예산 줄이는 것과 더불어 4연임을 위한 정교한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SNS가 아니라 증인의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PT 3번 보시지요.

3연임 도전 직전인 2020년 7월경에 홍명보 당시 협회 전무이사한테 협회장 출마를 제안했고요. 당시 홍명보 이사가 ‘무엇보다 지도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회장 출마는 그다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로서 성공을 선행 과제로 제시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협회 재정 부담을 국내파 감독 선임으로 해소하는 한편 짬짜미로 회장 후계자를 양성하고 본인의 이번 협회장선거 승리를 위한 고려대 축구부 영향력 확보라는 두 가지 이점도 노린 것으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연임 도전, 지극히 개인적인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조직처럼 협회의 결정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축구는 회장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4연임 하시지 말고 한국 축구 국민에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20초 정도 남았는데 말씀드리자면, 여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회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번 다 해 보십시오. 들어 드리겠습니다.

○**증인 정몽규** 위원님께서 저의 모든 축구 관련 활동을 4연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축구종합센터는 우리 축구대표선수뿐만이 아니라 지도자 그리고 각종 대회 그리고 심판 이런 데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로서 앞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도 말씀드렸듯이 잔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현안으로……

○**김재원 위원** 그러면 4연임 도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축구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정몽규**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역시 약속을 바로 하시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팬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4연임 도전을 위한 포석이 아니라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증명하실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증인 정몽규** 결국 역사가 평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문석 위원님의 보충질의시간입니다만 오전에 의결하지 못했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참고인 등을 선정하여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국정감사 증인은 통상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기관증인과 피감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감사에 필요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일반증인으로 구분하고 그 외 참고인이 있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을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후 추가적인 증인 등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추후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인 등을 추가로 출석요구하실 경우에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일을 감안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5시40분)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수 국정감사 증인과 관련된 발언입니까?

○민형배 위원 예.

제가 요청한, 증인·참고인 명단에 제가 요청한 분이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는데, 이것의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파라다이스의 전필립 대표 건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제출을 확실하게 담보를 해 주시고……

간사님,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좋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만약에 이 자료가……

○민형배 위원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다시 증인으로……

○위원장 전재수 종합국감 때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제가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언론 칼럼으로 사위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가 있어 직접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했습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국힘당 간사께서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이 부분이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은 증인이 안 되나요?

그리고 아리랑TV 사장 선임 과정에, 사위가 선임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은 하나 의결 이후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 국정감사 증인은 오늘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증인 채택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야 간사 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오경 간사님.

○임오경 위원 임오경 위원입니다.

2024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관련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고, 위원님들이 만족스럽지 않고 아쉬움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에서 요청하신 증인들만 배제를 시킨 게 아니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요청하신 증인들을 저희가 함께 논의하에 배제를 했더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쉬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또 증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종감 때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요구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증인의 철회 등의……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전재수 박정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앞서 증인과 관련해서 제가 반대를 강력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증인 채택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를 했습니다만 강력하게 반대를 한 건 사실관계에 꼭 부합하지는 않는 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하세요.

○위원장 전재수 이 부분은 위원장 직권으로 그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요구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증인의 철회 등은 위원장이 두 분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관증인의 경우 오늘 이후 각 수감기관의 공식인 증인 직위가 새로 충원되거나 채택된 증인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충원 또는 변경된 자가 각각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기관증인은 10월 24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4.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15시45분)

○위원장 전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음으로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안산갑 양문석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면서 품격 있게, 우아하게 그리고 목소리 톤을 현재 톤으로 유지하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해성 전 위원장님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그럼에도 그 인간적인 고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전에 누가 봐도…… 정해성 위원장 그만두실 때 전강위원 4명이 따라 동시 사퇴를 하셨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제가 질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정몽규 증인, 저도 좀 품격 있게 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증인 정몽규 예.

○양문석 위원 11차 전강위 회의 없었다, 오전에 말씀하셨어요. 워딩 그대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1차 전강위 회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증인 정몽규 그 11차 회의라는 건, 10차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있었고……

○양문석 위원 변화가 있는 건 아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인 정몽규 그 있었던 사항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양문석 위원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증인이 위증하신 거예요. 11차 전강위는 있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것 이것 허위 문건입니까?

○증인 정몽규 전강위……

○양문석 위원 이것 제가 만들었습니까, 축구협회에서 만들었습니까?

○증인 정몽규 축구협회 국회 담당 직원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축구협회에서 국회로 보냈기 때문에 11차 전강위는 있었지요?

○증인 정몽규 그 실질적인 내용은……

○양문석 위원 좀 품격 있게 하게 해 주세요.

○증인 정몽규 예,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문석 위원 있었지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 정몽규 전강위 위원장이 관둔 상황에서 그걸……

○양문석 위원 아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 정몽규 그걸 어떻게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저희는 임시회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문석 위원 임시회의든 정규회의든 전강위원회 제11차 회의록 1·2가 나왔는데, 앞서 오전에는 없었다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양문석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위증은 정몽규 회장이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있었지요?

○증인 정몽규 전강위원장도 안 계시고요. 그리고 7명……

○양문석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다 알고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 정몽규 그걸 어떻게 이름……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10차로 다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걸 11차라고 굳이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한 번째……

○양문석 위원 있었다? 오케이, 있었다 하셨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임생, 김대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위원장만 부재인 상황이며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임’이라고 회의록에 나와요.

○증인 정몽규 예.

○양문석 위원 그러면 있었고, 여전히 감독 선임은 10차에서 11차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는 11차 회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끝난 것처럼 위증함으로써 국회가 위증죄로 고소·고발할 수 있음을 제가 품격 있게 말씀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임했다, 오전에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정몽규 예.

○양문석 위원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임했는데 첫 번째, 협회 정관 49조 4항 ‘전강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및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그런데 여기 11차는 5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원이 안 돼요.

○증인 정몽규 예, 성원이 안 된다고……

○양문석 위원 안 돼서, 그다음에 49조 6항 ‘각 분과위원은 다른 분과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해서 이임생 이사는 전력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을 자격이 없어요. 맞지요?

○증인 정몽규 이임생 이사는 협회의 기술총괄이사로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문석 위원 다른 분과위원은 겸임할 수 없음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분과위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시간상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임생 이사한테 정몽규 증인은 무슨 권한으로 전권을 위임하지요? 무슨 권한이에요? 정관 어디에 있나요, 그 정도로 기분 좋게 던질 수 있는 권한은?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임생 이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회장으로부터 전권 위임을 받고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증인 정몽규 전강위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계약하는 것까지 협회에서 할 일이고요. 그걸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걸 전강위에서 정확하게 추천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임생 이사가 무슨 자격으로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축구 철학과 그다음에 게임 포맷에 맞니 안 맞니 이런 판단을 하지요?

저 1분만 딱 더 주세요.

이임생 이사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하지요?

○증인 정몽규 정해성 위원장께서 갑자기 사임하셔서 가지고……

○양문석 위원 정해성 위원장은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전제했던 것처럼 정해성 위원장의 인간적 고뇌를 자꾸……

○증인 정몽규 협회에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해라 이렇게……

○양문석 위원 정해성 위원장이 선의로 참고 있는 침묵을 계속해서 악의로 써먹지 말고 팔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사회 최종 결정 언제 하지요?

○증인 정몽규 이 이사회 할 때 추인……

○양문석 위원 아니, 이번 최종 결정 언제 했어요? 이사회 결정 언제 했어요? 7월 13일에 했지요? 11일, 12일 서면 받아 가지고, 그렇지요? 축구감독 선임 과정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증인 정몽규 예, 서면결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7월 8일 날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스스로 이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의 평가와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홍명보호 응원해 달라, 이미 7월 8일 날 이임생 이사가 국가대표 선임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그 5일 뒤에 7월 13일 이사회를 통해서 23명 중에 21명이 찬성해서 홍명보 감독을 추인합니다.

이 절차가 절차대로 공정하게 했습니까?

○증인 정몽규 전강위원회가 상당히 독립적인 방법으로 추천을…… 독립적인 기구로서 위원회로서 추천을 했고 기술총괄이사인 이임생 이사가 그걸 마무리 지었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회장님, 자격 없는 전강위고 자격 없는 전강위가 위임한 이임생…… 자격 없는, 정관에 위반되는 이임생이 두 사람을 면접하고 한 사람을 설득해서 그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일방적으로 본인이 결정해서 발표하고 그 뒤에 이사회에서 추인하고.

여기에 문제는요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누적돼서 홍명보 감독까지 이르렀는데,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불법적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감독은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몽규 회장만 합법이다. 그리고 본인은 서류도 제출해 본 적도 없고 운영계획서도 제출해 본 적이 없는 홍명보 감독도 절차에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정몽규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

○양문석 위원 문제라니까요. 클린스만 감독, 왜 비밀리에 전강위를 열었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왜 사무국에 전강위의 권한을 달라 그랬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위원장 전재수 자, 양문석 위원님.

○증인 정몽규 클린스만 감독 때도 그랬고요 벤투 감독 때도……

○양문석 위원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 때도 전강위가 결정하지 않고 전강위에게 사무국에다가 위임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걸 왜 뿔러가 비밀스럽게,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데 비밀스럽게 해요?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협회의 불투명성 아니에요, 그게. 사유화고!

좀 품격 있게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하시네.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이기흥 회장님께, 아까 제가 전에 했던 체육회의 2021년 불법적인 수의 계약 관련해서 당시에 기재부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고 기재부의 회신을 받았다는 식으로 체육회는 문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증인 이기흥 기획재정부로부터요?

○정연욱 위원 예.

○증인 이기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문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오전에, 아마 기재부 계약정책과 주무관입니다, 그쪽에서 관련 내용 문의를 받았 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신을 보낸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찾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인 사무관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체육회가 관련 협의를 하러 오기는 했지만 회신한 기억이 없다, 본인도 지금 기억이 없다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얘기는 유 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체육회는 이 관련해서 기재부에게 어떤 형태로 회 신을 받았는지 그 회신받은 문건을 사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기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정몽규 회장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력강화위원장이 자진 사임한 날 한 6시간 전까지 실제로 감독 면접 등에 대한 출장 계획은 회장님한테 보고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맞지요?

○증인 정몽규 저랑 헤어진 다음에 김대업 본부장한테 전화해서 출장계획을 짜라고 이 렇게 얘기한 것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감독 협의를 하기 위해서 출장계획을 회장님하고 얘기한 건 맞는 것 아닙니까?

○증인 정몽규 뭐 출장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고 그런데……

○정연욱 위원 그런데 갑자기 6시간 뒤에 사임을 한 거지요?

○증인 정몽규 예.

○정연욱 위원 왜 그런 겁니까, 갑자기?

○증인 정몽규 저는 오전에 사임 얘기를 듣고 여러 번 통화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정연욱 위원 누가 봐도 6시간 만에 입장이 확 바뀌는, 180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 까?

○증인 정몽규 6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연욱 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1년이 걸린 건 아니고……

○증인 정몽규 그러니까 그다음 날 한 12시간 이상, 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2시간 이상.....

○정연욱 위원 그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같이 보이는 거지요.

○증인 정몽규 여러 가지 심적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홍명보 감독을 추천했는데 제가 홍명보 감독을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힘드.....

○정연욱 위원 그것은 지금 회장님의 추정이지요?

○증인 정몽규 예, 제 추정입니다.

○정연욱 위원 추정일 뿐이지요? 명확한 건 아니지요?

○증인 정몽규 저는 아마 그래서 힘드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것은 뭐 회장님의 생각이시지 팩트는 아니니까.

○증인 정몽규 예, 제 생각입니다.

○정연욱 위원 유인촌 장관님께도 여쭙보겠습니다.

최근에 죽, 장관님이 옆에 계시지만 정몽규 회장의 4연임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거취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배경이 특별히 있으십니까?

○증인 유인촌 그것은 언론이나 그동안에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또는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사정을 봤을 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마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명예롭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다시 정몽규 회장께 여쭙보겠습니다.

본인은 다음 회장직 연임에 대한 생각이 지금 어떻습니까?

○증인 정몽규 아까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잘 생각해 가지고 현명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아직까지 나갈 용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증인 정몽규 아니, 뭐 그런.....

○정연욱 위원 아니, 그것도 다 열어 놓은 것 아닙니까?

○증인 정몽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장님이 내신 ‘축구의 시대’라는 자서전이 있지요?

○증인 정몽규 예.

○정연욱 위원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다 읽어 보지는 못했지만.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 그쪽에 하나의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축구협회장 임기를 아예 최대 3선까지로 못 박고 싶었다’ 이렇게 쓰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의 핵심은 회장 연임 횟수를 3회로 못 박아서 4선 이상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려는 데 있었고, 그런데 스스로 나의 선의에 따른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대한 체육회와 문체부 반대에 부딪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결심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정몽규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AFC의 경우에 3연임이 아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5월 달인가 6월 달에 3연임 제한했다가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런 사회적 물의나, 지금 축구협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안 하겠습니다. 다만 뭔가 한 조직의 수장이시라면……

○증인 정몽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쓰신 책에 언급한, 내가 선의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체육회와 문체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루어지지 못한 뜻이라면 본인이 거취를 결단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증인 정몽규 제가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좋은 결론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 질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님, 아까 이임생 이사께서 7월 5일 날 저녁에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11시 경에 홍 감독님 지인이 운영하는 빵집인지 카페인지 모르는 곳에서 불을 희미하게 켜 놓고 두 분이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그 빵집 이름이 뭐니까?

○증인 홍명보 그것을 혹시 여기에서 얘기해도 되는 문제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기현 위원 뭐 빵집이라면서요, 유흥가가 아니고?

○증인 홍명보 예.

이스트파크라는 저희 집 근처에,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빵집입니다. 베이커리집입니다.

○이기현 위원 빵만 파는 집인가요?

○증인 홍명보 빵하고 커피 팝니다.

○이기현 위원 빵하고 커피 팔고.

그 자리에서 빵 드셨습니까, 아니면 커피 드셨습니까?

○증인 홍명보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안 드셨고요?

○증인 홍명보 예.

○이기현 위원 지인이니까 열어 주셨다 이 말씀이지요?

○증인 홍명보 예, 장소만 좀 제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장소를 제공해 주신 거네요, 그 늦은 시간에 빵집 주인께서?

○증인 홍명보 예.

○이기현 위원 저는 처음에 이임생 이사께서 이 문제를 카페에 가서 불 꺼 놓고 두 분이 얘기하셨다길래 다 큰 성인 남자들끼리 늦은 시간에 맥주 한 잔 하셨으려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빵집이라니까 좀 오해는 풀립니다만 어떤 형태가 됐든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2명의 외국인 감독들은 물론 현지, 유럽이지만 정상적인 면접 절차에 응했어요. 그분들이 이동을 했고 장소에 왔고 비용을 들여서 면접에 응했습니다. 감독님은 집 근처에 온 이임생 이사님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렸고, 편의를 제공해 드린 거지요. 이임생 이사님은 기다리다가 그곳에 가서 커피값도, 빵도 드시지 않으시고 면접을 진행하신 겁니다, 2시간 동안, 본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아무리 좋게 봐도 황제 면접 아니면 접대 면접입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공정해야 할 면접 절차입니다.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공정하지 않다면 대단히 큰 절차상 하자가 생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십시오.

저는 이임생 이사가 전강위의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정몽규 회장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것이든 둘 다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 정관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 절차도 다른 감독들과 홍명보 감독이 확연히 다릅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축구협회, 불법 그리고 부당한 업무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클린스만 감독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불법 어거지 감독이 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감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장관님,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관을 그냥 봐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증인 유인촌 지금 언론에 계속 노출돼 있는 걸로 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여러 사람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하여간 감사 끝나는 대로 저희가 10월 2일 발표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꼭 그대로 처리하셔야지요?

○증인 유인촌 저희들은 그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처리는 협회가.....

○이기현 위원 지금 협회에서 정몽규 회장이 계속 합법적이었고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몽규 회장님 국회에서 위증하신 것이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 나는 변호사들한테 그렇게 듣지 못했다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어느 규정으로 봐도, 제가 봐도, 누가 봐도 불법의 여지가 분명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정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1분 20초 남았는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몽규 회장님 아까 두 분, 제 앞에 계신 분들이 4선 연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확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이것 패스하고요.

정몽규 회장님, 성공한 기업인 그리고 협회의 수장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렵습니다만 현대산업개발, 회장님께서 축구협회 회장 되시고 나서 10년 동안 주식이 반토막 났습니다. 시가총액 물론 반이 된 것이지요.

21년도에 HDC에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9명이 죽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이파크 건물 붕괴사고로 6명이 사망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현대라는 이름을 가진 대기업의 이름으로서 사회적으로 참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부실기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협회의 불법적, 불공정 운영이 클린스만 감독, 홍명보 감독의 선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부조작 관련자에 대한 기습 사면 등 여러 가지 불법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내가 재벌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협회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2013년서부터 22년까지 회장님께서 개인 사재로 치면 3000만 원을 협회에 출연하셨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조금만 더 주시지요.

55억을 같은 기간에 출연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정몽준 회장을 보니까 93년도에 회장이 되셨는데 96년 단 한 해에 43억 7000만 원을 출연하셨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협회 예산 76%였습니다. 그 당시 협회 예산이 100억도 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협회 예산이 1000억을 넘습니다. 천안 센터가 있어서 그걸 빼고 나면 약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거대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체육단체이고요. 이미 수익 구조가 충분합니다, 스폰서 그다음에 게임 수입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이미 1000억대를 능가하는. 그래서 어느 재벌이 와서 이 협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협회는 굴러갈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재벌기업 회장님인 정몽규 회장님의 역할이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축구협회가 가스라이팅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31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몽준 회장 16년, 현대가인 조중연 회장 4년 그리고 회장님께서 회장을 맡으신 지 12년, 31년째 대한축구협회는 이제는 현대가문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내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축구협회가 현대가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조직처럼, 현대가가 빠지면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슬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가 정몽준, 몽 자 집안이 이제 대한축구협회를 손에서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축구를 지켜보고 있고 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가가 불필요한 책임감 이제는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충분한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 떠나가셔야 될 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말씀 잘 새겨들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전재수 예.

○박정하 위원 오전에 대한체육회장과 관련한 질의에서 제가 볼 때는 대한체육회장이

분명한 위증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더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대한체육회장이 이 건에 대해서 잘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문체위원님들께 양해와 사과의 말을 한다면 위증에 대한 고발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걸 한번 여쭙봐 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질의 수위를 좀 맞춰 볼까 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 오전에 박정하 간사님께 질의 답변하시는 중에 증인으로서 위증에 해당될 수 있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증인 이기흥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오후 식사 후에 강원도체육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어제 열여덟 분의 시군구 회장님들이 계셨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그 발언취지는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저도 많은 얘기를 어제 2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잘못 인식이 됐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것은 정정을 하고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발언취지는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국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셔서 국회가 위증에 대해서 불필요한 고소고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박정하 위원님께 사과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대로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은 사과를 받아 주신 결로 이해하신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여쭙겠습니다.

분명하게 깨끗하게 사과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세요? 어제 그런 취지의 발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증인 이기흥 그런 취지의 말씀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박정하 위원 자, 그만, 그만.

이 앞에 기사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제 이기흥 회장님께서 강원도체육회에 가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보도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아니라고 했지만, 그리고 오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처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괴물이고 정치집단이다라는 것은 시군구 회장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랬다, 그렇지요?

○증인 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이것은 오전 녹취록이에요.

그리고 체육계에서 들어 왔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선동을 해서 집단행동을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체부가 괴물이다, 정치집단이다, 지사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경고했다 이런 말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이기흥 아니, 경고라는……

○박정하 위원 아니, 다만……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말씀만 하시면 되지 왜……

○증인 이기흥 저는 경고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녹취록에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녹취록 봅시다.

어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볼 때는 문광부가 괴물이고 정치집단입니다’, 내가 볼 때는……

소리 나오나요, 이거?

(녹음자료 재생)

누구 목소리예요?

○증인 이기흥 제 목소리입니다.

○박정하 위원 이래도 아니예요?

○증인 이기흥 아니, 제가 지금……

○박정하 위원 자, 두 번째 봅시다.

김진태 지사 건 나오는 데 봐요. ‘김진태 지사한테도 도의회 의장한테도 경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녹취 봅시다.

녹취 안 나와요? 이래도 아니예요?

○증인 이기흥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정하 위원 (녹음자료 재생)

그러면 이것도 아니예요?

○증인 이기흥 아니, 제가 말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뭘 잘못해요, 어떻게?

○증인 이기흥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지사님한테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하 위원 그게 경고라고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예요?

○증인 이기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박정하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부가 괴물이고 정치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래?

○증인 이기흥 아니,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혹시라도 많은 얘기를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박정하 위원 아니, 왜 그러면 오전에 제가 여쭙을 때 보도 내용이 아니라고 해요?

○증인 이기흥 아니, 저는 그리고……

○박정하 위원 그리고 확인했냐고 제가 또 한 번 물어봤는데도 아니라고 해요?

○증인 이기흥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하 위원 자, 이 뒤의 부분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증인 이기흥 뒤의 부분이요?

○박정하 위원 뒤의 부분, 강원도 국회의원 죽 언급한 것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녹취 안 틀을 테니까 사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증인 이기흥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뭐라고 했는데요?

자, 저는 도저히 이거 묵과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진중오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폄훼하고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훼손한 거예요. 국민들이 더 많이 알으라고 대한체육회장이 이렇게 잘못 얘기한 것 그리고 잘못 운영되어 온 것 자료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망조가 들었

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이기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요? 들어 봅시다.

나와요, 녹취? 제가 읽을게요.

해 보세요.

(녹음자료 재생)

필이 어떻게 잘못 쏘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한체육회에서 받은 자료가 기사화됐다고 망조가 들었고 필이 잘못 쏘았다고, 박정하 위원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진중오 위원 잘못됐다는 얘기고. 맞아요, 틀려요?

○증인 이기흥 저는 그런 취지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뭐예요?

○증인 이기흥 저희는 저희 체육회에서 자료가 나가면 나가는 즉시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날그날 바로 릴리즈(release)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임위 질의할 것을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 알리는 게 잘못된 거예요?

○증인 이기흥 아니, 물론 저희는 자료를 드리지요. 드리는데 그게 너무 확실하게 전부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도 보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박정하 위원 제가 손이 떨려서 읽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 회장님들이 지역에 계신 의원님한테 설명도 좀 해 주고’…… 설명이에요? 이게 정치행위지?

‘속 썩이는 양반들이 여기 다 있어’, 그리고 ‘이 모, 권 모, 유 모, 속초의 이 모……’ 그다음에 ‘우리 체계를 제일 애매하게 하는 게 누구인 줄 알아요? 박정하 의원, 진중오 의원, 이게 필이 잘못 쏘힌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게 망조로 가는 길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 회장님들이 너무 조용히 있어요. 의원들한테 가 설명을 하세요. 나만 보지 말고 가 말씀하세요’, 이게 대한체육회장이 하실 일이에요, 어디 정치 선동가가 하실 일이에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증인 이기흥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 체육회의 일들을 각 지역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같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강조하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망조는 뭐고 필이 잘못 꽃혔다는 건 뭐예요?

○증인 이기흥 그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국회의원한테, 지역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 지역 죽 다 거명하면서, 이게 대한체육회장이 하실 말씀이에요?

자, 사과 진심으로 한 것 같지 않아요.

○증인 이기흥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중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하고 야당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체육회장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회장님의 거취까지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 더는 못 하겠어요.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 위중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 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제가 보더라도 ‘필이 잘못 꽃혔다’ 또 ‘망조가 들었다’, 굉장히 과하신 표현 같고 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자율성이라든지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답변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위중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체위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박정하 간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장님께서 좀 정리를 하셔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증인 이기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지금 해 주시지요.

○증인 이기흥 하여튼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동안 체육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얘기 또 올림픽 이후에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과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희가 올림픽에서 성적을 정말로 잘 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 체육인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많은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과열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언행에 철저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박정하 위원님 한번 찾아 뵙고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기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간사님.

○임오경 위원 지금 박정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PT 기사 내용 중에 팩트 체크를 한번 꼭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홍 회장의 말씀 중에 내용이 장관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괴물이다, 정치집단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까? 이기홍 회장님 개인을 말한 겁니까, 체육단체를 말한 겁니까?

○증인 이기홍 저는 체육회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에게도 사과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장관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체육회, 체육단체인들이, 체육인들이 괴물이고 정치집단입니까?

위원장님, 이 또한 장관님에게 사과 요청드립니다. 사과받아야 되겠습니다. 팩트 체크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이라면 체육인을 대상으로 해서 괴물이다, 정치집단이라고 장관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박인 것 같은데 반박 또한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과를 하셨으니 장관님이 진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유인촌 장관님, 이기홍 대한체육회장님이 괴물, 정치집단이라는 표현 인가요? 아니면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종목 가맹단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종목단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인 유인촌 임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체육회를 지칭한 것이고요. 체육인들 또는 선수들, 지도자들, 체육을 전공하신 분들을 통칭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체육과 관계없이 체육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것을 통칭해서 체육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체육회가 괴물이 됐고 체육회가 정치집단화됐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장관님, 대한체육회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문체부와 문체부장관에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렇다면 체육회가 사실상 괴물이 됐고 정치집단이 됐다라고, 그것이 팩트라 하더라도 그것의 책임이 전적으로 체육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장관으로서 유인촌 장관님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유인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물론 제가 와서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작년 가을 이후 겨울, 올 초부터 사실은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왔고, 물론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조심을 한 거지요.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사실은 이런저런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래서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단체들이 괴물이 되고 정치집단이 됐다 이렇게 들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유인촌 장관님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체육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고민을 하시는데 서로 이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인 유인촌 예.

○위원장 전재수 두 분 다 언론에 나가서 가지고 언론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정말로 그러한 공방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임오경 간사님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임오경 위원 저는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장관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 기사 지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아까 박정하 간사님께서 PT를 띄워 줬을 때 이기홍 회장님 발언에 있어서 장관님께서 먼저 이렇게 괴물이다, 정치집단이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한체육회가’라고 하셨는데 대한체육회는 83개 종목단체가 다 회원·가맹단체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정몽준 전 회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체육인 영웅들이 모두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민관식·김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유인촌 장관님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증인 유인촌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장관님.

○증인 유인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체육회 특보, 자문, 참관단 이기홍 회장 취임 이후에, 통합된 이후에…… 위원회가 14개밖에 없었습니다. 취임 이후에 31개로 늘어났고 거기에 체육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400명 이상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쓴 돈 엄청 많습니다. 선수들과 감독들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그런 예산을 오히려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에 더 많이 써야 하는데 저는 이런……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요청한 것은 장관님의 얘기를 듣자고 해서……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 잠시만 들어 보시지요.

○증인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취지를 지금 잘못 장관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고 사과하십시오.

○증인 유인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지칭한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님께서 그 취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대한체육회라고 지칭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전에 임오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83개에 달하는 대한체육회의 체육 가맹단체가 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이 모든 단체들이 정치집단화되고 괴물이 됐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 나가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촌 장관님께서, 그 이전에도 대한체육회가 어떻게 됐는지 간에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관리 감독의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장관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런 차원에서 이전에도 사과를 몇 번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 유인촌 아니, 저는 앞부분에도 저희들의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의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피물, 정치집단 이런 것이 정치적 표현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유인촌 그런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게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사과하시는 거지요?

○증인 유인촌 아니, 앞부분은 사과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김윤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장난은 하지 마시지요.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윤덕 위원 예.

장관님, 그러니까……

○배현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한테 하셔야지요.

○김윤덕 위원 저쪽 보고 하면 안 됩니까?

○배현진 위원 장관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전재수 하십시오.

○김윤덕 위원 지금 임오경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관님의 의도가 어땠냐라고 하는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이 있으니, 그 점이 이기홍 회장도 사과했으니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장관이 사과 코멘트를 해 주는 게 어렵습니까?

문체부에 포괄적 책임이 있다는 점만 사과하지 마시고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도 장관님이 인정해 주셔야 뭔가 이 논의를 마무리하고 정리가 되는 거지요.

○배현진 위원 질의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정리 좀 해 주세요.

○증인 유인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체육회에 많은 의견도 전달을 했고요. 그것이 사실은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그러면서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어서 나중에 올림픽 끝난 이후에, 특히나 우리가 잘 와서 해단식 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런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선수나 감독, 체육을 하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김윤덕 위원 누구한테 한 겁니까?

○증인 유인촌 체육회의……

○김윤덕 위원 그 사람을 일일이 거명하지 않는 이상 체육회를 거론하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인촌** 위원님, 알지요. 그런데……

○**위원장 전재수**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됐습니다.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정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박정하 위원님이나 또 진종오 위원님, 우리 문체위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에 대해서 필이 잘못 쏘혔고 또 망조가 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홍 체육회장님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드린 것이고 또 흔쾌히 사과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장관님께 사과를 말씀드리는데 것은 기왕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대한민국 전체 체육단체가 정치집단이 되고 또 괴물이 됐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 유인촌** 그러면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지금 여러 증인들께서 나와 계시고 오늘 이것은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오경 간사 의사진행발언을 마지막으로 하고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40년 가까이 체육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하 간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기홍 회장께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하지 말아야 될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PT 기사 내용을 보는데 문체부장관님께서 괴물이다, 정치집단이라는 발언을 해서 거기에 반박되는 말을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한 걸로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읽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께서 괴물이다, 정치집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기홍 회장이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시작은 장관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를 대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일단 실수를 하셨으니까 공식적인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장관님이 먼저 괴물이다, 정치집단이라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제가 위원장으로서 유인촌 장관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이 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은 오늘 현안질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 건은 유인촌 장관과 이기홍 회장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욱 위원** 잠깐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제가 동료 위원들 말씀하시는데 웬만하면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문체부장관이든 체육회장님이든 상대를 향해서 ‘괴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표현 자체가.

그러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유인촌 장관께서 대한민국의 전체 체

육인을 향해서 괴물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는 저는 도저히 읽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대한체육회라는 단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예를 드는 겁니다—교육부가 요즘 참 이상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부를 비난하는 것이지 전국의 교사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도 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억지로 문체부장관님이 대한민국의 전체 체육인을 모욕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이것은 정말 우리 체육인들도 굉장히 분개할 일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우리 체육인들을 우리가 모욕하는 겁니다. 국회가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문체부장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단정 짓고 이렇게 문체부장관님의 사과를 자꾸 요구를 하시면 체육인들을 우리가 모욕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우리 진중오 위원도 계시지만 스포츠 영웅들을 향해서…… 대한체육회를 비판하는 것은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체 체육인을 모욕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 체육회를 상대로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협회를 상대로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몽규 회장님을 향해서 저희가 따지면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따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큰 오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물론 유인촌 장관님의 사과를 받을 일이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자꾸 너무 해석을 하시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인촌 장관님, 체육계 전체가 정치집단 또는 괴물이 됐다라고 들릴 만한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하시는 거지요?

○증인 유인촌 예, 오해가 됐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안질의를 원만하게 진행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부분은 추후에 추가질의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정몽규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몽규 증인, 대한축구협회가 현대가의 전유물은 아니지요?

○증인 정몽규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현대가의 사유물도 아니지요?

○증인 정몽규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동안 31년 동안 현대가에서 대한축구협회를 회장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그에 대한 공과 사 폄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증인이 이끌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점 정말 직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축구 아시안컵 국가대표팀 성적 부진과 내분 사태, 전술 부재 등의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전격 경질한 후에 스트레이트뉴스가 지난 2월에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 64%의 국민들 여론이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 국민의 여론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축구지도자협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의 위선적 행태를 지적하고 4선 연임을 위해 축구인을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축구협회를 이끌어 갈 수장 자격이 있는지 심한 우려와 회의감이 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성명서를 보면 더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2024년 9월 12일 자인데요 ‘연속적 헛발질, 한국 축구의 참사’, ‘축구의 시대, 절망의 시대’, ‘부끄러움은 이제 정몽규 회장의 몫’, ‘이번 임기까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그리고 ‘정 회장의 불출마 선언이 한국 축구 위기를 수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증인 정몽규 축구협회에 대한 그리고 또 저에 대한 평가라고 하고 깊이 새겨들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몽규 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인 정몽규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다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자리에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참고인 나와 계십니까? 체육인들의 생각과 여론은 어떠한지 한번 좀 듣고 싶네요.

○참고인 김현수 우선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해서 대한체육회 할 것 없이 또 많은 경기단체들이 지금 조직이 사유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모임들이 이끌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사실상의 제왕적 회장 체제로 인해서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절차, 해임 절차 이 모든 과정들이 완전히 불공정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홍명보 감독께서는 본인은 불공정하게 선임되지 않았고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역으로 표현하면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됐다면 분명하게 사퇴 의사를 밝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정몽규 회장님께서도 분명하게 결단을 해 주시는 게 앞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체육회의 발전 그리고 축구계, 대한축구협회의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길이라는, 그것을 위한 올바른 선택의 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회장님께서 결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증인 정몽규 거듭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박문성 참고인님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부연설명해서 말씀을 하실 부

분 없습니까, 축구협회의 제왕적 운영과 관련해서?

○참고인 박문성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지요.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 나갈 능력도 없는 거지요.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 하겠다, 지도자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비단 이번 사건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해서는 안 되지요. A매치 있는 날 꿈수사면을 한 거지요.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꿈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발표 당일 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지요.

파리 올림픽 진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 올림픽을 이끌어야 되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요,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 합니다. 결국은 파리 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지요.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팬들도 그러겠지만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홍명보 감독님 좀 나오시겠어요? 앞으로 나오시지요.

정몽규 황제회장님, 팀트웰브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서 아직 제출 안 했지요?

○증인 정몽규 여기 알아 왔습니다.

○김윤덕 위원 알아 왔어요?

○증인 정몽규 예.

○김윤덕 위원 이것 공개해서 발표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잡혀가요. 전에는 잡혀 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안 잡혀갑니까?

○증인 정몽규 뉴미디어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덕 위원 예,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서.

○증인 정몽규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덕 위원 예.

○증인 정몽규 협회는 2020년 말 뉴미디어 통합권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 입찰을 시행했고 전부 유찰되었습니다. 당시 2차 입찰로 유일하게 참가한 곳이 텐츠 컨소시엄이고

텐츠는 세계적인 마케팅 회사이며 국제축구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곳입니다. 협회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텐츠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텐츠 컨소시엄은 뉴미디어 중계권을 쿠팡에 재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 전에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요 쿠팡으로 돼 있어요.

○증인 정몽규 그러니까 팀트웰브가 텐츠 컨소시엄의 일원이었고요. 일원이어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재판매한 것을 지금 저희 보고서에는, 축구협회가 제출할 때는 쿠팡하고 계약했다고 발표했고요. 텐츠는 뭐지요, 아까 팀트웰브 회사하고 컨소시엄 회사라고 발표했어요.

○증인 정몽규 예, 컨소시엄의 일원이었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면 누가 계약한 겁니까? 텐츠는 일본 기업인데 한국 기업은 누구입니까?

○증인 정몽규 그러니까 텐츠랑 결국 주 계약자는 쿠팡이었습니다.

○김윤덕 위원 예?

○증인 정몽규 주 계약자는, 메인, 그 계약을 사 간 것은 쿠팡이었고요.

○김윤덕 위원 축구협회하고 계약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증인 정몽규 텐츠 컨소시엄입니다.

○김윤덕 위원 텐츠 컨소시엄하고 계약한 회사가 쿠팡입니까?

○증인 정몽규 예.

○김윤덕 위원 그러면 텐츠가 쿠팡에게 판 거구면, 그렇지요?

○증인 정몽규 텐츠가 쿠팡에게 재판매한 겁니다.

○김윤덕 위원 그렇지요? 재판매한 거지요?

○증인 정몽규 예.

○김윤덕 위원 축구협회가 우리한테 보내온 공문에는 쿠팡하고 계약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이것 사가지요?

○증인 정몽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장관님!

○증인 유인촌 예.

○김윤덕 위원 체육국장님 계세요? 그것 제대로 보고가 된 겁니까, 아닙니까?

축구협회에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을 누구하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텐츠라고 말해야 됩니까, 쿠팡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증인 유인촌 이것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정확하게 감사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장관님, 지금 여기 증인 채택해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 서류 축구협회에서 그렇게 제출했다면 징계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보고인데요?

○증인 유인촌 글썄, 판단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만.

○김윤덕 위원 어떤 판단이 필요합니까?

○증인 유인촌 저는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윤덕 위원** 제가 물어보잖아요. 전제로 축구협회 뉴미디어 중계권 누구하고 계약했습니까 물어보니 쿠팡입니다라고 말했으면 잘못된 겁니까, 안 잘못된 겁니까?

○**증인 유인촌** 계약 주체가 다르다면 잘못된 거지요.

○**김윤덕 위원** 잘못된 거고, 잘못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증인 유인촌** 그렇지요.

○**김윤덕 위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감독님, 팀트웰브가 2012년 창립하자마자 홍명보 개인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홍명보** 예.

○**김윤덕 위원** 홍명보재단 마케팅 대행을 맡았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홍명보** 예, 맞습니다.

○**김윤덕 위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홍명보 자선축구대회 행사를 총괄해 왔던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홍명보**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요, 저희 장학재단 자선경기를 맡아서 한 대 행사입니다.

○**김윤덕 위원**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시고 잘 알기만 하는 사이시지요?

○**증인 홍명보** 예, 아는 사이입니다.

○**김윤덕 위원** 대한민국 축구감독, 대한민국 축구스타가 참 부끄럽습니다, 감독님.

○**증인 홍명보** 저하고 아는 사이입니다.

○**김윤덕 위원** 홍명보 자선축구대회 행사를 총괄해 왔고 개인 매니지먼트를 계약했고 그런 팀트웰브 회사는 박정선 대표가 현대차그룹 광고대행사 출신이더라고요. 뭔가 참 구린내가 너무 많이 나고, 축구협회가 자료를 안 내고 있는 게 아니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돼 보입니다.

장관님, 이 문제 철저히 조사·감사 중이니까요 정확히 조사해서, 홍명보 감독께서 전무이사 시절에 계약으로 진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감사 결과 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증인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몽규 회장님, 지난 3선 하실 때 그때도 홍명보 감독한테 회장직도 제안했었고 그 당시에 3선 이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3선까지 연임을 제한하는 정관을 제출했던 것 아닙니까, 개정 안을? 그렇지만 그게 그때 부결됐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라면, 정몽규 회장이 그때와 같은 마음 갖고 있다면 지금 4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정몽규** 그때 생각은 그랬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그렇게 3선 이상은

본인 스스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규정까지 개정하려고 했던 분이 지금 그렇게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뭡니까?

○**증인 정몽규** 마음 바뀐 것 없고요. 저는 오직 축구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작년에 승부조작 선수들에 대해서 기습 사면해서 국민들의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몽규 회장이 2011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로 취임하자마자 겪었던 가장 큰 사건이 그때 승부조작 사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손영배 검사가 대한축구협회 초청특강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장님의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승부조작, 금품수수 등의 악습을 축구인 내의 문화로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내부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지만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축구계 밖에 있는 팬과 국민의 기준과 기대 수준은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이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정몽규** 예.

○**김승수 위원** 그런데 또 뒤에 가면 슬쩍 이야기가 바뀝니다. 작년에 기습 사면 겪고 나서 굉장히 동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때 제명된 선수들이 한국 축구계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범죄에 대해서 대표로 중징계를 받은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동정적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사면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옹호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선수들이, 축구계에 승부조작 이런 것들이 다 만연돼 있는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적발되고 징계받았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증인 정몽규** 제가 2011년도에 프로연맹 총재로 있을 때 이것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거됐고……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정몽규** 그 와중에 5명이 사망까지도 하고……

○**김승수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증인 정몽규** 그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홍명보 감독님,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에 국가대표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또 훈련계획서, 지도법 평가, 면접을 하도록 돼 있지요? 어떤 것 하나 하신 것 있습니까? 이 중에 하신 것 있습니까?

○**증인 홍명보** 국가대표……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선발기준에 따른 이 절차들을 하신 게 있느냐 그거지요, 이번에 선발되면서.

○**증인 홍명보** 저는 제의를 받은, 이임생 위원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없지 않습니까? 없었고, 이임생 위원장 자체는 사실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관련된 권한이 없는 분하고 옆의 동네 커피숍, 빵집에서 그것도 면접도 아닌 말아달라고 읍소해서 이렇게 국가대표 선임되는 것이 정상적인 선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홍명보** 그런데 저는 국가대표 감독직에 먼저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와 가지고 선정되는 것이 정상적인 선정 절차라고 생각하시느냐 그겁니다.

○**증인 홍명보** 그런데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상식 수준에서 정상적인 절차가,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서 박문성 참고인이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저는 그대로 공감이 갑니다. 다른 세상의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정몽규 회장님이나 축구협회 임원들입니다.

국민들 상식선에서는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국가대표 감독이 임명되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임 절차 자체가 무효이고 이 무효인 선임을 한 회장과 관계자는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오늘 오전 오후 엉뚱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정당했다는 겁니다.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팬들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 홍명보**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승수 위원** 해 보세요.

○**증인 홍명보** 짧게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에이전트의 추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협회에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감독직을 수락했을 때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제가 1순위로 올랐다고 해서 수락을 한 겁니다.

○**김승수 위원** 그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협회 밖의 생각과 상식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특권의식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압도적으로 축구 감독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증인 홍명보**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물론 저도 홍명보 감독의 여러 가지 역량이나 능력도, 우리 한국 축구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과 절차가 국민의 상식에서는 너무 반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그렇게 국민의 상식 수준에 반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구팬들이, 국민들이 우리 대한 축구에 대한 사랑이 식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증인 홍명보** 예,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김승수 위원**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위를 선양하고 축구를 통해서 국민 통합 또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하는 건데,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전에서 우리 축구팬들이 감독을 또 축구협회 회장을 비난하는, 이게 지금 국민 통합하는 겁니까?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왜 그 책임질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이기흥 회장님,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장이 누구입니까?

○**증인 이기흥** 김병철 위원장입니다.

○**강유정 위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임기 연장이 허용되는 구조지요?

○**증인 이기흥** 예.

○**강유정 위원** 3선 하실 겁니까?

○**증인 이기흥** 그건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3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증인 이기흥 그것은 전국체전하고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그때 걱정한 시점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강유정 위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병철 위원회장은 심의 주체인 스포츠공정위원회장이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기흥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일했습니다. 매달 세전 300 해서 총 7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월급을 받았어요, 7000만 원을. 그리고 나서 그해 5월에 이기흥 회장께서 스포츠공정위원회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기흥 회장이 임명한, 3년간 월급도 준 스포츠공정위원회장이 다시 연임에 대한, 임기 연장에 대한 허용을 하는 구조가 맞습니까? ‘예, 아니요’만 대답해 주세요. 맞지요?

○증인 이기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좀 이의가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아니요, 맞지요? 이 구조 맞지요?

○증인 이기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유정 위원 여기서 위배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사실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니다. 제가 말한 것 전부 사실이고 앞뒤, 선후관계 다 맞습니니다.

정몽규 회장님, 2021년 3선 선임된 이후 바로 이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회장과 골프쳤다고 아까 김승수 위원의 질문에 맞다고 했습니다.

○증인 정몽규 체육계의……

○강유정 위원 맞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속기록 다시 안 꺼내 볼게요. 맞다고 하셨지요?

○증인 정몽규 체육계의 여러 분이랑 쳤는데 그분이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 질문이 아니라……

다시 묻겠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장도 거기 있었지요?

○증인 이기흥 저는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니다.

○강유정 위원 거기 8명 중에 없었습니까?

○증인 이기흥 8명이 아닙니다. 더 많았습니니다, 수가.

○강유정 위원 8명이 아닌 건 알고 계시고 거기에는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기흥 예.

○강유정 위원 정몽규 회장님, 대한축구협회 4선 하실 겁니까?

○증인 정몽규 아까, 거듭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심사숙고가 아니라 지금 여러 부문에서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의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데 왜 정몽규 회장이 4선을 꼭 해야 합니까? 그걸 고민을 해서……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회장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대의원, 각 단체 임원 1인과 추천으로 결정된 선수, 감독,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회장님의 영

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시도 축구협회장에서 선거할 수 있는데 인준 동의를 해 줘야 하고요. 전국연맹 대표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진,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단체들이 너무 많은, 선거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126명에 불과한 선거인단인데……

이것 좀 뭔가 소위 말해서 내가 사람을 선거인단, 아까 구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스포츠공정위원회장에게 월급을 주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연임을 결정해 주고 그리고 이 선거인단 역시도 지금 회장님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또 이 선거를 통해서 회장으로 모실 수 있는 관계라는 게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축구팬들의 많은 의혹과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는 건데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게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증인 정몽규 정확히는 모르지만 필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유정 위원 정관상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증인 정몽규 정확히 지금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유정 위원 선거관리위원들 역시도 회장이 위촉합니다.

○증인 정몽규 선거관리인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유정 위원 위원회 위원들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회장이 결국 위촉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회장님 마음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모든 걸 전폭적으로 시정할 생각 있으십니까?

○증인 정몽규 선거인단의 대부분은, 지도자가 47명이고요 선수가 63명이고 심판이 15명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추천으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고요.

○강유정 위원 제가 1분만 더 얘기를 하면요 현재 축구선수가 17만 4000명, 지도자만 1만여 명 그리고 심판이 2950명인데 그중에 126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증인 정몽규 그 126명을 추천으로, 1만여 명 중에서 추천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고 또……

○강유정 위원 추천된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된 축구협회장이 일단 축구협회를, 축구계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증인 정몽규 그러면 1만여 명이 다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강유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모든 축구인들이 그 영향력이……

○강유정 위원 정관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나면 선택사항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도 바꾸셔야 돼요, 의무로.

○증인 정몽규 잘못됐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선거관리 업무를 선관위에 맡기겠다 선언을 하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위탁이 아니라……

○증인 정몽규 제가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아니면 축구협회 회장은 아무도 안 됩니까?

○증인 정몽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 본인의 생각을 여쭙니다.

○증인 정몽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유정 위원 본인이 아니라도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다 축구협회 회장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증인 정몽규 당연히 누구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신상발언에 있어서 저도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진종오 위원 이렇게 국회의원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기흥 회장에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거기서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 국회의원을 이렇게 모독한다는 것 자체가 저 또한 매우 유감스럽고 저의, 본인 이름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정식으로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오경 간사가 얘기했던, 장관님께서 대한체육회를 얘기했다라고 하시는 데, 이기흥 회장님 발언 또한 체육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체육인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지도부나 임원들이 잘못을 한 것이지 체육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기흥 회장님.

○증인 이기흥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때 상황이 많은 논란들이 있고……

○위원장 전재수 거기까지만, 사과하셨으면 됐습니다.

○증인 이기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어서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이기흥 회장님, 저에게 거짓말한 것 있으시지요?

○증인 이기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진종오 위원 오전 질의에서 회장님께서 대한체육회장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기흥 예.

○진종오 위원 그런데 법령을 보시면 회장님 말씀과 다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직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PPT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인정하십니까?

○증인 이기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진종오 위원 알고 있지 않으시다면 이제는 똑바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이기흥 예.

○진종오 위원 또 두 번째, 허위증언이 또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선거는 대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으로 치르게 됩니다.

○증인 이기흥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오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증인 이기흥 아닙니다. 선관위에 저희가……

○진종오 위원 말을 잘못하셨습니다.

○증인 이기흥 예, 그러면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증인 이기흥 저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위탁으로 합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장선거에 관련해서 제출하는 서류 또한 제대로 한번 수정해서 저에게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이기흥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회장님, 그리고 어저께 8시 SBS 뉴스 보셨습니까?

○증인 이기흥 못 봤습니다.

○진종오 위원 8시 뉴스에 태백시체육회장의 성희롱, 폭언 그리고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태백시체육회장, 직원에게 욕설도 하고 성희롱 그리고 비공식 행사에 동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대한체육회장이라면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증인 이기흥 몰랐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면 회장님, 올해 1월 1일 태백시체육회 류철호 회장님하고 동해 해돋이 보러 가신 것 기억하십니까?

○증인 이기흥 예, 그때는 강원도 회장님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강원도 회장님들하고요?

○증인 이기흥 예.

○진종오 위원 태백시 회장님만 계신 게 아니고요?

○증인 이기흥 다른 회장님들도 다 계셨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 행사가 비공식 행사인데 새벽 5시에 사무처 직원을 동원했습니다, 의전을 지시했고. 그 직원이 새해 첫날 비공식 행사에 함께하다 보니 앓아누웠다고 합니다.

회장님 이 부분, 비공식 행사에 대해서 직원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기흥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종오 위원 부적절하지요?

○증인 이기흥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이 태백시체육회장을 징계 처분할 수도 있겠지요?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증인 이기흥 일단은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 뉴스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여러 가지 제보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비리는 심지어 제보자 또한 숨겨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체육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겁니다. 제보자들이 말을 못 건넵니다. 왜?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종오 당신은 왜 현역일 때 얘기 안 했냐?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하면 생계가 위협받으니까.

제가 이기흥 회장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회장님과 저와의 둘의 대화를 다 여기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제 있던 자리, 회장님이 있던 자리 다 믿으십니까? 다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기흥 그렇지 않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못 믿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요. 그런데……

○증인 이기흥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진종오 위원 다양한 의견이 아니라 못 믿으니까 이런 속기록이 나왔고 이런 녹취록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물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특정인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이고 이렇게 정말 분노되고 긴장되면서 얘기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회장님,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인 이기흥 예.

○진종오 위원 빠르게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정해성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전력강화위원장에서 갑자기 사퇴하신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사퇴하실 때 사임서 바로 수리되셨습니까? 사퇴하시고 나서 사임서가 언제 수리가 되셨습니까?

○증인 정해성 정확하게 사임서는 7월 21일 날 제출, 확실한 날짜 일정은 구두로 먼저 했다가 공식적으로 7월 21일……

○진종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몽규 회장님, 위원장님이 사퇴하고 논란이 일어난다는 건 당연히 예상하셨지요?

○증인 정몽규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진종오 위원 사퇴에 대해서 혹시 만류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으셨나요?

○증인 정몽규 예?

○진종오 위원 위원장의 사퇴를 만류하셨는지요, 아니면 그냥 사임을 바로 승인하셨는지요?

○증인 정몽규 정해성 위원장께서 처음에 제시 마시 그 1차……

○진종오 위원 만류를 하셨는지만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증인 정몽규 그때도 한번 사의를 표해서 만류했었고요, 이번에도 만류했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협회 내부에서 호주의 아놀드 감독을 지지한다는 문자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위원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문자 받으셨습니까?

○증인 정해성 아니요.

○진종오 위원 안 받으셨습니까?

○증인 정해성 문자보다는 저희는 그때 당시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외국 감독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는 가운데……

○진종오 위원 호주 감독을 지지한다라는 걸 인지하셨습니까?

○증인 정해성 아니요, 못 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못 하셨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 또한 아까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제보자분께서 생계가 걱정돼서 본인을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또는 모든 체육계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조리함을 정말로 부조리하다고 말 못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체육계가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오늘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위원장 전재수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진종오 위원 감사합니다.

배드민턴협회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한우구 사무처장님 계시지요?

○증인 한우구 예.

○진종오 위원 협회 직원이 출장 가게 되면 출장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증인 한우구 주말은 주말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혹시 국내출장 여비 기준이 있습니까? 그 여비에 맞게 지급이 됐습니까?

○증인 한우구 예, 국내출장 규정이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규정에 대해서 했다고요?

○증인 한우구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본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직원들이 대회운영요원으로 편법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개최지 보조금으로 1일에 부장급은 15만 원, 그 외 직원은 10만 원씩, 맞습니까?

○증인 한우구 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규정에 돼 있다고요? 규정에 대회운영요원으로요?

○증인 한우구 예.

○진종오 위원 직원들이요?

○증인 한우구 직원들은……

○진종오 위원 이게 규정에 안 맞지 않습니까?

○증인 한우구 경기가, 저희가……

○진종오 위원 이게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사무처장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회장님 책임입니까, 임원 책임입니까?

○증인 한우구 그 규정은 이사회를 정식으로 통과한 규정이고요. 저희가 경기가 늦게 끝나는 것까지 감안해서……

○진종오 위원 이게 지금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인정을 못 하시는 겁니까?

○증인 한우구 그 규정이 잘못돼 있는지는 뭐 그렇게 판단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건데, 저희는 이사회를 통해서 그 내용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규정화돼 있다고요? 규정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회장님, 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택규 회장님?

○증인 김택규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김택규 예, 제가 처음에 회장 취임했을 때 직원이 왜 일비를 받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진종오 위원 규정에 대회운영요원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증인 김택규 대회운영요원이라는 것이 직원이 가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금액이 다르다는 건 잘못된 거지요.

○증인 김택규 부장급, 직원, 팀장, 차장 이렇게 따질 때 그 부분이 틀렸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틀린 거지요. 해서 이 금액이 토털로 보면 2억 6000만 원이 규정 위반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2억 6000만 원입니다.

○증인 김택규 보면 이 조직이 엘리트 조직으로 진행이 되다가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그게 알려진 건데요, 모든……

○진종오 위원 그게 알려진 것을 회장님이 인지를……

○증인 김택규 그때 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때 하신 거지요?

○증인 김택규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는 빨리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증인 김택규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알아봤을 때 그 부분을 본인들의 규정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진종오 위원 이게 잘못된 거는 회장님께서 빨리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김택규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한번 확인이 아니라 이 부분은 회장님이 약간 근무태만이 아닌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장이라면 그런 것 또한, 금액이 오고 가는 거라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한우구 제가 보충설명 잠깐……

○진종오 위원 아닙니다. 보충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증인 김택규 일비의 개념이 경기 진행하는 요원으로 편성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진종오 위원 저도 현역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압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증인 김택규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김종웅 전무이사님 계시지요?

○증인 김종웅 예.

○진종오 위원 전무이사님, 감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감독의 역할.

○증인 김종웅 선수들 잘 지도하고 좋은 경기력 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진종오 위원 전무님은 수원시청 감독 겸직하고 계시지요?

○증인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전무이사 역할이 맞습니까, 감독 역할이 맞습니까?

○증인 김종웅 감독 역할이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만약에 선수들이 대회를 참가한다면 전무 역할을 해야 됩니까, 감독 역할을 해야 됩니까?

○증인 김종웅 저는 감독을, 전무이사는 비상근직이고요. 저는 감독의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비상근직에도 불구하고 제64회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종별 선수권대회 그리고 2024 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 종별 배드민턴대회는 감독으로 등록한 대회에서 협회에서 495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종웅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일비 개념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진종오 위원 일비 개념이긴 한데 이게 지금, 감독의 자리로서 전무를 겸직하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금액을 많이 받으면서 지도자 역할까지 과연 선수들을 위해서 원활하게 했는지가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감독과 임직원, 너무 협회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배드민턴협회가……

회장님, 협회 후원금 안 내시지요?

○증인 김택규 예.

○진종오 위원 이사들도 안 내지요?

○증인 김택규 예.

○진종오 위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증인 김택규 문제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저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점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김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우리 진종오 위원님께서 오늘 대통령실 만찬이 있어서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렸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정해성 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몽규 회장님, 전력강화위원장은 회장이 선임을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증인 정몽규 예.

○임오경 위원 위원들은 위원장이 선임을 하게 되어 있지요?

○증인 정몽규 위원장이 추천해 가지고……

○임오경 위원 그것도 이사회의 절차를 거치나요?

○증인 정몽규 예, 그렇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정해성 위원장님, 10차 회의에서 세 사람으로 압축된 후 외국인 2명은 화상으로 면접을 보셨지요?

○증인 정해성 예.

○임오경 위원 홍명보 감독은 면접 보셨나요?

○증인 정해성 아니요,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외국 감독하고 똑같이 울산 HD팀의 영상을 편집해서 홍명보 감독의 전술……

○임오경 위원 그러면 영상으로 보셨네요?

○증인 정해성 예.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10차 회의가 강화위원장으로 마지막 회의였네요? 그리고 그 위원들에게, 마지막 세 사람으로 압축되어서 이 부분은 위원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받았지요?

○증인 정해성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위원장님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충 그 안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회장님에게 보고하고 이사회 승인만 남아 있었던 거지요?

○증인 정해성 예.

○임오경 위원 그거는 어디까지나 위원들에게 다 동의를 얻으신 거지요?

○증인 정해성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더 이상 강화위원들에게는 보고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에 세 명으로 압축해서 그 전력강화위원회의 회의는 마무리가 되었고 위원들에게 모든 것을, 그 세 사람 안에서 최종 결정한다라고 회의 내용은 끝난 거지요?

○증인 정해성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는 답변들을 하시니까 10차나 11차나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시는 겁니다. 10차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정해성 위원장님에게 위임하고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정해성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지금 전달받은 게 정확한 거지요?

○증인 정해성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저는 가장 이해를 못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사람을 가지고 정몽규 회장님에게 설명을 하러 갔습니다. 설명

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달받은 것은 회장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지도자 선임에 있어서 화상으로 되겠냐, 직접 대면 면접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 정해성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 말이 기분 나쁘셨나요?

○증인 정해성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정했던 거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1순위를 접촉을 하고 1순위에서 거기서 결렬이 되면 그다음에 차순으로 2순위로 가고 2순위에서 결렬되면 3순위로 가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1·2·3순위로 정했던 그런 걸……

○임오경 위원 그 1순위가 홍명보 감독이고 2순위가 바그너, 포엣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증인 정해성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이시, 회장님에게 전달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회장님은 직접 대면으로 그래도 세 사람을 면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책임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은 열 차례에 걸쳐서 다섯 달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최선을 다했는데, 1순위만 면접 보고 여기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2순위 3순위까지 직접 해외에 가서 면접을 하고 오라고 하니깐 거기서 조금 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증인 정해성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사직서를 내신 거지요?

○증인 정해성 그 이후에 다시 유럽으로 가는 상황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사실 1순위를 이렇게 제외하고 2순위·3순위부터 만나서, 그때 변호사하고 같이 대동을 해서 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2순위·3순위하고 결정이 되면 1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또 건강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여기 그만하는 게……

○임오경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건강상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저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순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2순위 3순위를 만났을 때, 대면 면접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또 긍정적인 반응으로, 그 둘 중에 한 명이 채택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대표팀 감독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대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좀 잘못 받아들이면서 이 중요한 사안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좀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셨더라면 오늘 이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회장님, 정해성 위원장께서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냈고 회장님도 멘붕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6월 28일 정해성 위원장이 사임하고 이임생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게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저는 회장님께서 전강위 긴급 이사회라도 열든가 아니면 서면결의라도 거쳐서 마지막 부분, 전력강화위원들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 정해성 위원장이 이 세 사람의 면접을 이임생 위원장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싶었으면 저는 긴급 이사회라도 열었으면 간단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면결의라도 받았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뒤로 백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임생 위원장은 회장님에게 권한을 전달받아서 자기 역할만 충실하면 되는데 다시 일일이 위원들에게 전화해서 그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더 커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 이사회를 열든지 아니면 서면결의라도 했으면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쩍게 의구심이 남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하물며 국민들까지, 축구팬들까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5개월 동안 너무나 잘 밟아 왔다는 정해성 위원장님의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정해성 위원장님도 화날 만합니다. 5개월 동안 시간 내어서 가족 버리고 건강 악화되면서까지도 축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정해성 위원장한테는 언짢았던 거지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두 분 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임생 위원장에게 이 부분을 다 전가할 때는 이 절차 하나만 밟아 줬으면 더 이상의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장님,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저는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보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축구팬들에게도, 회장님은 이 마지막 절차 부분에서 국민들과 축구팬들에게 이 자리를 비롯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정몽규 제가 마지막, 5개월 동안 정해성 위원장이 많은 노력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제가 정해성 위원장님한테 유령을 가서, 저는 협회장으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유럽 가는 게 굉장히 힘드시지만 꼭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어서 그 자리에서 아주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밤사이에 아마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 사의를 표명해 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하여튼 이렇게 온 국민이 국가대표 선임에 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는 건 따끔히 받고 앞으로 이런 형태의,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국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저도 그런 면에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기흥 증인께 짧막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강유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스포츠공정위원장 김병철 위원장 문제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두 분의 관계라는 것이 특보로 2년 동안 급여를 줬고 또 그다음에 공정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본인의 연임 문제를 결정짓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3연임에 도전을 하시든 안 하든 이거는 이기흥 회장님의 자유입니다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불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공정위원회라도 좀 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로 교체를 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특히 김병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기흥 회장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이기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김병철 위원께서 특보로 일을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회라고 하는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한 것이고 또 위원을……

○**신동욱 위원** 아니요, 회장님……

○**증인 이기흥** 잠시만요.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은 제가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있고 이걸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구조가 안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특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특보가 계시잖아요? 특보는 사실상 본인의 의사를 거의 수족처럼 잘 반영하시는 분이 보통 특보를 합니다.

○**증인 이기흥** 그런데 이게 말이 특보지 특보가 아닙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요, 특보를 하셨던 분이 갔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사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굳이 이분을 두고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드리고요.

○**증인 이기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김택규 회장님……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에 요넥스하고 후원계약 다시 하셨지요?

○**증인 김택규** 예.

○**신동욱 위원**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왜 저렇게 절규를 했느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다 떠나서 2013년에 요넥스하고 맺은 이 후원계약서만 봐도 왜 선수들이 저렇게 절규했는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뭐, 숙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거는 제가 잘 모릅시다라는 하나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대표팀이 요넥스하고 계약에 따르면 2019년 계약에서는 최소한 10개 국제대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합니다. 그런데 2023년을 보면 15개입니다. 최소한 15개의 국제대회에 참가를 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이 발을 보여 줬지만 신발도 잘 안 맞았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5개 대회에 참가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혹시시킨 것 아닙니까, 선수? 왜 이런 무리한 계약을 하셨을까요?

○증인 김택규 보통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등급이 높은 등급이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대회를 저희들이 출전을 시키지 무리하게 15개 대회……

○신동욱 위원 아니, 최소한 15개 대회를……

○증인 김택규 15개 대회를 의무적으로 그렇게 출전시키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요, 지금 계약서에 최소한 15개 국제대회에 참가시키는 것에 동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증인 김택규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신동욱 위원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무슨 질문을 해도 계약상 그렇게 돼 있다라고 자꾸 해명을 하셨는데 이제 불리하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증인 김택규 불리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신동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넥스 용품을 구입을 하는데요. 2019년도 계약을 보면, 이거 다음 거요,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2019년 후원계약을 보면 ‘최상의 가격 조건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도 계약서를 보면 ‘제품출고가격 조건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을 회장님이 페이지백 받으셔서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당연히 요넥스에게 돈 많이 갓겠지요. 이거 제가 답변 안 받아도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시지요.

양측에 분쟁이, 후원사와 분쟁이 생기면 2019년도 계약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도 계약을 보면 ‘일본의 동경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계약을 하면 상식적으로 이를 테면 우리 협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관할이 되고 일본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본이 이거는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밀도 끝도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일본의 동경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이렇게 해 놔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왜 김택규 회장님이 이렇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요넥스에게 감행을 했는지……

○증인 김택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수나 선수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 회장님 불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분들도 다 퇴진하라고 성명 내셨잖아요.

○증인 김택규 그거는 엘리트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 협회는 엘리트와 생활체

육이 통합된 협회입니다.

그리고 중앙법원과 동경법원 부분은 예전에 빅터하고 계약을 했을 때 대만법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빅터가 중도에 해지를 하면서……

○신동욱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쭙 보는 거는 2019년도에는 한국 법원으로 돼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지요.

○증인 김택규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서울중앙법원으로 돼 있던 부분은 제가 계약했을 때, 당시는 아닌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일본 담당자가 그 계약을 잘못했고……

○신동욱 위원 아니요, 계약서에……

○증인 김택규 그다음에 2023년도에 할 때는 일본 측에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동경법원으로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보면요, 대개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이전 계약서를 가져 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시고 우리 협회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증인 김택규 당초에 190만 불이었던 거를 290만 불로 올렸지요.

○신동욱 위원 아니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거는 세월이 4년이 지났으니까……

○증인 김택규 아닙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요, 4년이 지났고 우리 배드민턴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190만 불에서 290만 불,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요 100만 불 더 받은 것도 제품 가격 정상가격으로……

○증인 김택규 출고가라는 거는 소비자가도 아니고요 제품 최초에 나오는, 소비자가보다 밑에 있는 단가입니다.

○신동욱 위원 굳이 그렇게, 그렇다면 바꿀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라든지 국민들이 대체 김택규 회장님은 요넥스의 대리인이셨는지 대한민국배드민턴회 회장님이셨는지 의심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김택규 회장님, 오전질의 때 그러셨지요, 회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증인 김택규 아까요?

○민형배 위원 예.

○증인 김택규 예.

○민형배 위원 회장을 왜 하십니까, 도대체?

○증인 김택규 협회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협회 발전이 지금처럼 하는 겁니까?

○증인 김택규 엘리트만……

○민형배 위원 자꾸 탄소리 하지 마세요, 회장님.

○증인 김택규 아니 위원님, 엘리트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민형배 위원 배드민턴만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을 합한 게 아니에요.

○증인 김택규 생활체육이 228개 시군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여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둘을 같이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고요. 협회장으로서 생활체육 영역은 생활체육대로 하시고 엘리트 선수를, 국가대표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따지고 있는데 자꾸 탄소리하고 계세요.

○증인 김택규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형배 위원 협회에서 높으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라고 선수가, 이것 다 읽어 보셨어요, 여섯 장?

○증인 김택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뭘 개정을 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해 놓고.

○증인 김택규 이번에 하고……

○민형배 위원 열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 놓으셨다고요, 아홉 달 동안. 그냥 무능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다른 쪽으로 피해 가지 마세요.

제가 빨리빨리 여쭙 테니까 말씀하세요.

장재근 선수촌장님, 김학균 감독님, 김택규 회장님 같이 모여서 술자리 한 적 있지요, 올해에?

○증인 김택규 술자리요?

○민형배 위원 몇 번 했습니까?

○증인 김택규 올해 한 적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올해 한 적 없으면 작년에는요? 그 자리에서 안세영 선수 내보내려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증인 김택규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장재근 촌장님, 안세영 선수한테 항의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장재근 어떤 항의 말씀하시는……

○민형배 위원 왜 나를 내보내려고 하느냐?

○증인 장재근 저한테 항의한 적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회장님은 왜 없다 그러지요?

○증인 장재근 그것은 술 먹을 때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선수촌에서 제가……

○민형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나오게 된 발단이 세 분이 모인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있지요?

그러니까……

○증인 장재근 안세영 선수가 저한테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가서 항의를 한 거지요. 왜 저

를 나가라 하십니까라고 항의한……

○증인 장재근 아니, 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요. 회장님이 아니라 김학균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안세영 선수가 되게 힘들어 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민형배 위원 됐습니다.

회장님, 셔틀콧페이백받아 가지고……

○증인 김택규 후원물품입니다, 페이백이 아니고요.

○민형배 위원 회장님, 꼭 그러실 겁니까?

○증인 김택규 진짜입니다. 후원물품입니다. 왜 페이백입니까, 그게?

○민형배 위원 다른 분들이 다 페이백이라고 하는데 회장님만 후원물품……

○증인 김택규 저는 요넥스하고 할 때 후원물품으로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좋아요. 그것 나눠 줄 때 무슨 기준으로 나눠 줬는지 보니까 참가율로 나눠 줬다고 그러셨는데 표를 보니까 하나도 아니네요?

○증인 김택규 제가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에요, 말씀하실 것 없어요.

○증인 김택규 아니요,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시지요.

○민형배 위원 회장님 말씀은 들어 봐야 옳은 게 없습니다.

파리 올림픽 갈 때……

○증인 김택규 2022년도의 리그 사업입니다. 리그 사업인데……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 잠시만.

협회 회장님……

○민형배 위원 회장님, 파리 올림픽 갈 때……

○위원장 전재수 민형배 위원님 잠시만요.

김택규 회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다 듣고 거기에 필요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택규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파리 올림픽 갈 때 몇 분 시도 협회 회장들 같이 모시고 갔지요?

○증인 김택규 예.

○민형배 위원 어떤 기준으로 모시고 갔습니까?

○증인 김택규 기여도입니다.

○민형배 위원 기여도요?

○증인 김택규 예.

○민형배 위원 무슨 기여도?

○증인 김택규 생활체육대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다른 협회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지요?

○증인 김택규 다른 협회장한테는 물어봤는데 간다고 안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됐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가족 중에 요넥스 골프채 받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택규 예?

○민형배 위원 가족 중에 요넥스 골프채 받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증인 김택규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한 번 치고 돌려준 적 없어요?

○증인 김택규 예,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올해 초에 받았다가 2월 이사회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셔틀콕 페이백 문제 터지니까 모 위원장 통해서 돌려준 적 있다고 하시는데……

○증인 김택규 그런 적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없어요?

○증인 김택규 예.

○민형배 위원 여기 국회 증언하셨지요? 증인 선서하셨지요?

○증인 김택규 예.

○민형배 위원 그것 있으면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증인 김택규 예.

○민형배 위원 확실히 없습니다.

○증인 김택규 예.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들 혼내셔야겠네요.

○증인 김택규 예.

○민형배 위원 전경훈 연맹 회장님 혹시 계신가요, 실업연맹 회장님?

가셨나요, 계신가요?

지금 안세영 선수의 거기서도 그렇고 규정에도 그렇고 선수 연봉 계약 규정, 국제대회 참가 나이 제한 규정, 국가대표 선발 규정 그다음에 배드민턴협회, 배드민턴의 프로화 등등 조금 그렇습니다만 배드민턴협회의 현재 문제와 해결 방법 그리고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오랫동안 계신 생활체육 출신이시니까…… 지금 생활체육 출신인 회장님이 왜 자꾸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저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배드민턴협회가 당면한 과제 그리고 이걸 풀기 위한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짧게, 그러나 하실 말씀을 다 해 보세요. 그리고 협회 회장님의 거취까지 한번 의견을 좀 내 주십시오.

○증인 전경훈 실업연맹 회장 전경훈입니다.

회장이라고 함은 생활체육과 엘리트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인데 지금 현재 협회장님은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회장이라면 나라에서 만든 형태로 엘리트와 생활체육인을 합해서 통일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싸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트 회장으로서 지켜보면서 협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불공정한 것들을 봐 왔기 때문에 이런 안세영 선수의 사건도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거라 예측을 했고, 또한 이사회 때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저 또한 회의 때 회장님하고 싸워서 발언권을 뺏기고 대회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제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엘리트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파리 올림픽에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 생활체육인만 4명이 가셨고 과연 이 올림픽 대회, 이 나라를 진정으로 빛내는 게 과연 누군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불과 작년 7월 달에 실업연맹 회장으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막상 이 체육계에 들어와 보니 도덕적 불감증이 너무 심각합니다. 2016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맞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고 국민들의 생각과 체육인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아주 선진국 수준인데 체육인들의 생각은 그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기업인으로서 실업연맹 회장으로 엘리트 회장으로 더 부끄러움 없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형배 위원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회장님, 배드민턴도 프로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증인 김택규 프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것 고민해 보신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지금 들으셨을 텐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 그리고 사건이 터진 것은 협회를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유화하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축구협회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배드민턴이 유난히 심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데 자꾸 탄소리를 하시거든요. 그런 태도를 계속하시면 협회장에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하실 수도 없을 거예요, 내부 저항이 심해져서.

혁신안을 만들어서……

○증인 김택규 엘리트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민형배 위원 또 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네요.

○증인 김택규 사실이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으로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정몽규 회장님,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띄워서 보여 드렸던 이 현대산업개발 출신 축구협회 근무내역 이것 축구협회에서 저한테 제공해 주신 자료예요. 지금 같이 보고 계시지요?

천안 NFC 건립 현장소장, 제가 팩트 정정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진 모 씨는 HDC를 그만둔 뒤에 현장소장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분도 근무 중에, HDC 소속원인 중에 파견 형태로 갔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현대산업개발에 재직 중인 중에 이곳에 천안 NFC 건립 현장소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셨다고 지금 축구협회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발주처가 축구협회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아까 회장님께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응답을 못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동부건설이지요. 그러면 현장소장은 어디서 나가야

됩니까? 동부건설에서 나가지요?

○증인 정몽규 동부건설에서……

○배현진 위원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증인 정몽규 또 현장소장은 법적인 거기 때문에, 동부건설에서 나가서……

○배현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응답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저도……

○증인 정몽규 현장 공식적인……

○배현진 위원 지금도 동부건설 현장소장이 있지요?

○증인 정몽규 당연히 그쪽에서 건립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동부건설에서……

○배현진 위원 그런데 천안 NFC 현장소장으로 HDC에서 두 분이 연이어서 나가셨어요, 파견 형태로. 그러면 이것은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면밀히 봐야 될 지점이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저희가 축구협회에 질문을 했더니 동부건설에만 맡기기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어서 축구협회 차원에서 파견을 했다는 식으로 응답을 주셨는데 축구협회 직원도 아닌 현대산업개발의 직원이 그곳에 나가신 거예요. 대단히 이상한 형태지요. ‘예, 아니요’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정몽규 예, 아니요로 대답할 형태는 아닐 것 같고요.

○배현진 위원 아니 회장님, 지금 시공사가 동부건설인데……

○증인 정몽규 그러니까 건립 현장소장이라는 것은, 현장소장은 동부건설에서 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현장소장의 역할처럼, 지금 축구협회에서 저희한테 응답을 주셨잖아요?

○증인 정몽규 현장소장이 아니라……

○배현진 위원 동부건설에만 맡기기가 불안해서 현장의 건설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파견했다고 응답을 하셨다고요. 맞습니까?

○증인 정몽규 예, 그건 맞고요.

○배현진 위원 그러면 그 역할 동일한 역할인 거지요.

○증인 정몽규 현장소장이라는 거는 건 건설에 대한 책임을……

○배현진 위원 법적인 현장소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역할상 파견을 했는데 이게 지금 법적인 지위가 없는데 파견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증인 정몽규 그러니까 제가……

○배현진 위원 오전에 제게 이렇게 응답 주셨어요, ‘축구협회를 돕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 임직원을 가서 도우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시공 상황을 관리 감독하라,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하라고 회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증인 정몽규 그러니까 발주처는 축구협회고요 건설 현장소장은 동부건설이고요.

○배현진 위원 잘 아시네요. 그런데 왜 현대산업개발에서 현장 관리를 나갔을까요?

○증인 정몽규 현대산업에서 저거 한 것은 축구협회가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배현진 위원 전문지식이 없어서 불안해서 자문차 내보냈다 이런 말씀이세요?

○증인 정몽규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누가 봐도 이상한 형태지요.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묻는 것은 축구협회가 해야 할 일을 회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대기업에서 모두 나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메일, 유엔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수신한 메일 하나 아까 보여 드렸지요. 회장님 보고 계시지요?

○**증인 정몽규** 예.

○**배현진 위원** 수신자 중에 HDC 직원 한 분이 받으셨어요, 실무진이. 이것 누가 수신하셨는지, 어느 부서의 누가 수신하셨는지 이후에 저희 의원실로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몽규** 예.

○**배현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감 증인 꼭 참석하실 거지요?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알기로 지금 강유정 위원님께서 국감 증인 신청하신 바로 아는데 출장이나 이런 문제로 회피하지 않으실 거지요?

○**증인 정몽규** 국감이 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되도록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왜냐하면 회장님께서 오늘 지금 응답하신, 시간상 혹은 내용을 잘 몰라서 응답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그 사이에 저희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축구협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위법, 편법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축구협회를 장악하고 지휘해 왔는지 저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증인으로서는 위증인 것 아시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정몽규 증인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이 현안질의가 잡히고 나서 내심 그런 것을 한번 상상을 해 봤습니다. 기대일 수도 있지요. 정몽규 회장님께서 적어도 연임에 관한 입장만큼은 이 현안질의가 되기 전에 발표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 출석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정몽규 증인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더 이해가 잘 갈 수 있고 국민에게 또 공감도 얻을 수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진정성이 있고 이 축구협회의 사태를 진정시키고 또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계기가 그래야 될 것이라는 그런 충정에서…… 저는 정몽규 증인과 개인적으로도 압니다만 오늘 그런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계속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위원님들께서 거취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런 질의를 하시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전혀 하시지 않고 오히려 연임에 대한 의지를 계속 밝히시는 듯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시고.

심지어 지금 정몽규 증인, 시중에 어떤 소리가 도는지 압니까? 정몽규 증인이 한 번 더 연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집안의 누구에게인가 그거를 물려주려고 한대라고 하는 시쳇말로 그런 소문까지 돌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신뢰를 잃으신 거예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증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술선수범의 철학입니다. 오늘 저 뒤에서 말씀하셨던 아까 박문성 위원의 그런 말씀들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증인의 지도력 가지고 축구협회를,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족하다고 보여요.

지금 증인께서는 위로는 유인촌 장관께서 지난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요즘 국민들 여론을 들어 보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지금 똑같은 의견들을 국회도 개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화면을 띄우셨습시다만 국민 64%가 증인의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증인께서 축구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증인이 거취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증인의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입장을 그렇게 밝히지 못하시는 걸 보면 아까 박문성 위원의 말씀처럼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체를 인식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총체적인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증인,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오해를 받지 않으셔야 돼요. 현대가가 정말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온 점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현대가가 이 대한민국 축구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혹시 현대가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축구를 젊어져 왔다는 그런 과도한 교만한 자부심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입장 표명을 정확히 못 하시고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것은 증인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현대가 그리고 증인이 지금 하고 계신 기업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무너지는 조직을 증인이 정말 술선수범으로 살신성인으로 그렇게 해서 지켜 낼 때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증인 정말 명예롭게, 현대가의 명예도 생각하시고 개인의 명예도 생각하시고 또 향후에…… 지금 아시아축구연맹 이사이신가 그렇지요? 그러면 아시아축구연맹의 회장에도 도전하시려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축구협회의 이 문제를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증인이 모든 것을 살신성인의 자세로 처리해야만이 증인 개인에게도 더욱 큰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진심을 담은 그런 거취에 대한 말씀을 표명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잘 새겨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축구협회에 질문하겠습니다. 정몽규 증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축구협회 이사님들, 관련자들 다 잘 들어서야 됩니다.

홈리스 월드컵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회장님?

○증인 정몽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나 국제경기 그동안 비자 지원 어떻게 해왔습니까, 협회에서?

○증인 정몽규 저희 협회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판 지원, 유니폼 지원, 물품 지원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번에 홈리스 월드컵 출전 국가들 비자 지원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정몽규 그거 외교부에서 뭐……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외교부에서요?

비자 발급 프로토콜 말씀드리면 축협에서 문체부로 신청을 하고 문체부에서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비자를 내 주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하셨으면, 회장님께서 증인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대회조직위, 홈리스월드컵재단에서 의원실 보좌관한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까, 그것도 추석 연휴 중에? ‘미안하다, 그런데 아프리카 선수들이 비자가 안 나오니까 지금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연락이 지난 추석 연휴에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관에 축구협회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의 정관 보시면 이번 홈리스 월드컵, 축구협회가 이 정관 따라서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난 1월에 대회 개최 확정됐었을 때 축구협회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회조직위가 3월에 협조 공문을 보내니까 답변도 안 하고, ‘비자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협회가 법무부 콜센터 번호만 보냈습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증인 정몽규 홈리스 월드컵이 축구를 매개체로 해 가지고 하는……

○김재원 위원 예, 내일도 국회에서 홈리스 종식 콘퍼런스가 관련해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축구협회 회장이 FIFA 회장이 오면 한다고 그러고, 거기 홍보 책임자가 연락을 하니까 축구협회에서 지원을 안 하기로 했다 그랬다가 FIFA 회장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금방 말을 바꾸어서 또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장 방한 얘기가 있어야지 이런 것도 도와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외교부 직원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대사관에 비자 어떻게 됐냐라고 외교부에서 물어봅니까, 이거를? 이거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 오던 경기를 문제없이 해 왔는데 축협에서 지금 일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이거 어떻게 챙기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대회 잘 마무리되게 하실 겁니까?

○증인 정몽규 홈리스 월드컵의 비자 문제는 저희가 비자를 발급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김재원 위원 비자 발급이 아니라 축협에서 신청을 해 주셔야지 문체부에서 외교부에 요청을 하지요. 그걸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이거 프로토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찾아보고 꼭 지원해 주십시오.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거.

○증인 정몽규 예, 알았습니다.

○김재원 위원 배드민턴협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드민턴협회의 핵심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있었다고 보십니까? 화면 보이시지요?

○증인 김택규 예.

○김재원 위원 그동안 배드민턴협회 감시 시스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증인이 협회가 잘못되지 않도록 이사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지도자 회의가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증인 김택규 이 부분은 국가대표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대표팀에서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와야 하는 거고요. 다른 부분, 아까 화면 지나간 부분 스포츠공정위원회 부분도……

○김재원 위원 그렇지 않지요. 선수촌 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본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와 같은 인권 모독성 강제규정이 남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증인 김택규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김재원 위원 왜 이런 건 개선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사회 검토사항이잖아요.

○증인 김택규 예, 이사회를 통해서 삭제할 예정입니다.

○김재원 위원 협회의 징계 빨리 삭제하십시오. 징계 소관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공이 있다고, 내 제자니까 그리고 아동학대 판결이 난 지도자까지도 판결이 본인이 항소를 했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이 징계를 취소를 해 줘 버립니다.

○증인 김택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엄청난 질타를 했었고요. 그 재판이 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개월 징계를 할 때 제가 상당히 어떻게 말도 못할 표현이 발생되고 했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사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어떻게, 2023년도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에서 협회의 제규정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이사회에서 총회를 통해서 개정을 함부로 합니까? 협회 운영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거 회장으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증인 김택규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사회라는 데서, 분명히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하고 나서 협회 제규정을 이사회 총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따르고 이사회 총회에서만 개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김택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 자료 봤는데 대한배드민턴협회 제도개선 과제 이행하셔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 방안 역시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증인 김택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정말 정해성 위원장의 개인적 고뇌를 제가 존중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과 거짓말들을 한꺼번에 쏟아 냈습니다.

박주호 위원님, 10차 전강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전원 동의하셨어요?

○증인 박주호 전원 순위를 매기지 않기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 투표로 이어졌고 그리고 5명의…… 1차부터 회의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언론에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5명의 투표를 모두 1순위로 놓고 모두 각자 협상을 한 뒤에 마지막에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결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양문석 위원 정해성 위원장의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졌고’라고 하는 부분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정해성 위원장님, 27일 날 그렇지요, 그날이지요? 정몽규 회장 집무실이 있는 용산에 가셨습니까?

○증인 정해성 아니요, 잠실.

○양문석 위원 잠실에 가셨습니까?

○증인 정해성 예.

○양문석 위원 거기에 가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올렸습니까, 홍명보 한 사람만 올렸습니까?

○증인 정해성 1순위, 2순위, 3순위를 같이 올렸습니다.

○양문석 위원 1순위, 2순위, 3순위 같이 올렸습니까?

○증인 정해성 예.

○양문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명보 한 사람만 올렸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정해성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여기에서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인간적인 모멸감을 당할 정도로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증인 정해성 받지 않았습니다.

○양문석 위원 안 받았다 말씀하시지요?

○증인 정해성 예.

○양문석 위원 그리고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인간적인 모멸감을 받을 정도로 질책을 받고 그리고 나보고 그만두라 하나 보더라고 오판하고 그리고 출장 준비하시다가 결국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야기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증인 정해성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양문석 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정해성 예.

○양문석 위원 그리고 28일 사임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홍명보가 까였다는 내용들이 홍명보 감독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0일 홍명보 감독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더 이상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감독직도 제안받지 않았고 받을

의향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해성 위원장님, 제가 앞서 정해성 위원장님이 다 안고 가려고 다 품고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일부러 질문을 안 했어요. 정해성 위원장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혼자서 끌고다들 간들 아무도 정해성 위원장님의 그 인간적 모멸감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임생 이사님, 7월 8일 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발언들을 하시지요?

○증인 이임생 어떤……

○양문석 위원 홍명보호 응원해 달라, 후회 없다, 오전에 브리핑하시지요?

○증인 이임생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오후에 또 전강위 위원 몇 분에게 전화했지요?

○증인 이임생 그거는 기억이……

○양문석 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증인 이임생 예.

○양문석 위원 똑같이 10차 전강위에서…… 전강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이야기하셨지요?

○증인 이임생 제가 전화로 개별적……

○양문석 위원 아니, 브리핑할 때.

그리고 기자들의 취재가 들어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 전강위원에게 전화하시지요? 실명 깔까요?

○증인 이임생 아니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요.

○양문석 위원 위증죄로 고소하면 통신기록 다 나옵니다.

○증인 이임생 그런데 위원님, 사실 진짜로 기억이 안 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앞서도 카톡에 내용 나왔잖아요!

○증인 이임생 그 부분은 혹시 제가 이름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어떤 위원인지요?

위원님, 제가 기자분한테, 그거를 알려 달라고 그래서 혹시 해 줄 수 있냐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그걸 해 주셨습니다, 기자분한테.

○양문석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왜 거짓말을 해요. 제가……

○증인 이임생 거짓말 아닙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갑자기 11차를, 없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임생 이사께서, 김정배 상근부회장이 절차대로 해라, 규정에 문제없다 하면서 11차 전강위를 합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임생 예.

○양문석 위원 그때부터 정몽규 보호를 위한 정치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온갖 불법과 탈법이 누적됩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임생 이사가 전강위를 주도하고 10차 이어 11차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연장된 계속되는 기능과……

○증인 이임생 위원님, 죄송한데 10차 회의는요 제가 병원에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아니, 아까도 제가 수없이 읽어 드렸잖아요. 11차도……

○증인 이임생 예, 11차 임시회의는 제가 들어갔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증인 이임생 예.

○양문석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위임을 받아요. 그렇지요?

○증인 이임생 예.

○양문석 위원 정족수도 안 되고 구성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이임생 이사가 위임을 받고 그다음에 또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정몽규로부터 위임을 받고 해서 면접을 하러 갑니다, 외국으로.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어떤 특해도 받지 않았다고 우기는 홍명보 감독, 어떤 서류도 어떤 훈련계획도, 그렇게 축구협회가 강조하는 KFA 철학과 게임 포맷과 관련해 가지고도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설득을 하고 부락을 해서 홍명보 감독이 입장을 바꿉니다. 이게 실제적 진실입니다.

○증인 이임생 위원님,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양문석 위원 설명도 하세요. 하는데 분명한 거는……

이임생 이사님!

○증인 이임생 예.

○양문석 위원 증인입니다. 여기에서 거짓말하면요 바로 고발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증인 이임생 위원님, 저희가 전력강화위에서 최종 후보 3명을 뽑지 않습니까, 10차 회의 때?

○양문석 위원 예.

○증인 이임생 이 3명의 후보는 이미 전력강화위에서 검증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다시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의사를 확인해서 다시 협상에 들어간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홍명보 감독님이랑 바그너가 공동 1위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1·2·3번 순위를 매겨서 이사회에 보내는 역할이 제 임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최종 후보에서 나온 3명이건 4명이건 5명의 후보들은 우리가 다시 그분들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1차에서부터 협상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양문석 위원 오케이.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문석 위원 홍명보 감독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축구협회로부터 그 어떤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앞선 증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의사 확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증인 이임생 그 후보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뽑은 후보자들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양문석 위원 보세요.

6월 30일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는데 그 이전에 무슨 의사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증인 이임생** 아니요, 최종 제가 만나러 갈 때 그분을 만나서 의사나 사실은 앞으로 감독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걸……

○**양문석 위원** 이임생 이사님.

○**증인 이임생** 예.

○**양문석 위원** 지금 상황에서 정몽규 회장의 독단과 독선과 그리고 협회 내에서의 갑질들을 아무리 막는다 해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존경했던 그 이임생이 여기서 희생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 이임생** 위원님, 저는 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재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부산 수영구의 정연욱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좀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이번 7월 달에 체육회 임원들 연임 횟수 제한이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지요?

○**증인 유인촌** 예, 체육회 이사회에서 아마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래서 아마 체육회 이사회에서 명분은 중소도시 및 회원 종목단체 임원들의 인력풀이 절대 부족해서, 명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단체는 체육회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서 체육회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서 체육회 규정부터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랬지요.

그런데 문화체육부가 그 결과에 대한 정관 변경 허가 요청을 받고 이렇게 답신을 했지요, ‘체육계 정관이 아닌 임원들의 임기는 시도 체육회 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되고 임기 연장에 관한 사항은 현직이 아닌 차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법 원칙이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증인 유인촌** 예.

○**정연욱 위원** 7월 16일 날 체육회가 문체부에 정관 변경 허가를 요청하고 23일 날 불허 통보를 합니다.

○**증인 유인촌** 예,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정관 변경을 하면, 그것도 불허를 하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유인촌** 뭐 실제적인 효력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정관 변경을 불허한들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으면 문체부가 감시·감독, 그에 대한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증인 유인촌** 아니, 그 얘기는 결국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정연욱 위원**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증인 유인촌** 아니, 그렇지만 그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승인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어떤 부분을 승인 안 하는데요?

○증인 유인촌 회장이냐 마지막 선거에서 뽑혀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승인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기흥 회장님,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정관 변경을 불허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이달 말까지 내기로 돼 있지요?

○증인 이기흥 예,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달 말 며칠 남지도……

○증인 이기흥 예, 이제 제출할 겁니다.

○정연욱 위원 대략적인 것도 없습니까?

○증인 이기흥 예?

○정연욱 위원 대략적인 방향도 없습니까?

○증인 이기흥 금주 중에 낼 겁니다.

○정연욱 위원 이기흥 회장이 아마 7월 4일 날 체육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아마 언론 보도도 났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체육회장이 3선을 하려고 자꾸 무슨 규정을 고친다고 한다 하니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체육회장, 시도 회장들까지는 안 바뀌도 됩니다’, 사실상 저만 빼 달라 이거 아닙니까?

○증인 이기흥 예,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저 빼고 나머지 애들은 풀어 줘야 된다,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증인 이기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체육회장님, 안 나가실 용의가 있습니까?

○증인 이기흥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지금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확정적인 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나를 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증인 이기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정관을 지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바뀐 정관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증인 이기흥 아니, 지금 불허됐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되는 겁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돌려 가지 마시고 이거는 분명히 본인의 연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증인 이기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체전이 끝나고 국감 끝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만 제외를 시켜 달라 하시면 나머지는 다 연임 제한은 없어도 된다는 거니까……

○증인 이기흥 실질적으로 해 보면요 시군구 종목단체는 96%가 혼자 나옵니다. 이 의미가 사실상 없잖아요.

○정연욱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관 변경 요청 자체를 불허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행이 안 되면 문체부가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까?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회장에 취임을 해도 제가 승인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유인촌 예, 그렇지요. 그다음은 아마 그런 법적 분쟁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어떤 조직이 자율성이라는 부분 중요합니다. 체육회나 모든 부분의 자율적인 부분, 그래서 그동안 무간섭에 대한 대원칙이 지켜졌지만 자율성의 간판 아래에서 책임 있는 조치들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커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감시와 견제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보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아마 확실히 가려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증인 유인촌 앞으로 좀 확실하게 저희들이 이런저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페이백에 대해서 보면 후원물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페이백과 후원물품의 차이가 뭘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증인 김택규 제가 볼 때는 페이백은 금전이 섞여 있는 걸로 보고요, 후원물품은 배드민턴 용품이라고 봅니다.

○이기현 위원 배드민턴 용품 그리고 후원물품을 받으셨으면 이게 23년도에 1억 5000, 24년도에 1억 4000만 원 상당인데 협회에 등재하셨습니까, 장부에?

○증인 김택규 후원물품을 등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거 횡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품 회장님께서 임의로 쓰셨잖아요?

○증인 김택규 그런 게 아니고요. 후원물품을 등재한 적이 없다는 것은 협회에서 후원물품에 대한 등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기현 위원 회장님, 1억 5000을 받아서 쓰셨는데, 아까 기여도 내지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내려 주셨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감사했던 중간 감사 결과를 보면 1억 5000 중에 3분의 1인 5300만 원이……

회장님께서 서산배드민턴협회장 출신이시지요?

○증인 김택규 예.

○이기현 위원 충남협회장을 하셨고요, 중앙회장 하셨는데 충남에 3분의 1인 5300만 원이 집중돼 있습니다. 맞지요?

○증인 김택규 예.

○이기현 위원 그리고 서산과 태안이 한 동네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도 하나지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서산회장을 하셨는데 태안이 서산보다 더 작지요. 인구도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군 단위 지역인데 이 한 회장님에게, 최병주 회장님이시던데 맞습니까?

○증인 김택규 예.

○이기현 위원 이분에게 전체 전국에 뿌려질 용품의 27%인 약 4000만 원이 갑니다. 왜 이렇게 보내 주셨나요?

○증인 김택규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한 건데 제가 보낸 건 아니고요. 그게 본인이 물

품을, 공모사업위원장이었는데 그 물품을 본인 위주로 사용해서 그 부분은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본인이 공모사업위원장이어서 1억 5000 중에, 전국에 나가야 할 것 중에 4000만 원을 본인이 쓰셨다? 자기 동네로 가져가셨다?

○증인 김택규 예.

○이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회수 중에 계시다?

○증인 김택규 예.

○이기현 위원 징계 절차 밟고 있습니까?

○증인 김택규 지금 일단 내용증명을 보냈고요, 형법이 됐든 민법이 됐든 회수를 하면서 하고 일단 공모사업위원장 부분은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배드민턴 감독님, 김학균 감독님!

○증인 김학균 예.

○이기현 위원 지난번에 저희하고 간담회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본인이 22년 10월에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안세영 선수가 감독님 방문을 두드리고 ‘감독님 빨래 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돌려보내셨다, ‘난 내 빨래 내가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학균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고 나서 약 십몇 개월이 지난 올 2월에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에 낸 진정서에 보면 빨래를 그때까지도 막내 선수들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줄 교체도 했고 청소도 했고 빨래도 했고.

감독님, 선수촌이 굉장히 폐쇄적인 곳인데 감독님이 선수들의 생활 관리도 본인의 책임하에서 하시는 거지요?

○증인 김학균 일부분은 저희 지도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감독님이 지도자를 관리하고 계신 분 아니신가요?

○증인 김학균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독님은 어른이지않아요. 20대 초반의, 안세영 선수가 제 딸보다도 어린 친구인데 속옷 빨래, 빨래를 가지러 온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보셨으면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선수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으셨어야지요. 관리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2월까지도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감독님, 이것에 대해서 지도자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증인 김학균 저도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그런 조치를 모르는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지도자들에게 하여금 선수들에게 그렇게 지시할 수 있도록 저기를 했습니다, 유도를 했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가 많은 시험들을 가고 중간에 선수촌에서 훈련도 하는 과정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건 생각합니다.

○이기현 위원 정말 안세영 선수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한심하고

그리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지금 선수촌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이러한 조건하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수촌장님 그리고 체육부장관님, 차관님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의 책임이 단지 감독 한 명에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체육계의 최고 어르신들이고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수십 년간 진행된 관행이 여러 선수들에게서 지적됐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계셨던 겁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관님, 요새 최근에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그리고 배드민턴협회 이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관들이 생기니까 여러 언론에 출연하시면서 체육계의 개혁을 내가 내 손으로 해내겠다고 얘기하셨고 감사 얘기도 하시고 감사의 중간결과 발표도 배드민턴협회 등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저는 일부 인정은 됩니다만 장관님은 행정가이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적 행위로 비쳐지는 행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결코 하셔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이 개혁을 한다는 명분하에서 실제로 조직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사과하셨던 체육회가 정치화돼 있고 괴물이 됐다고 얘기하신 발언도 대단히 신중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체육계의 비리는 단순히 이권에 대한 비리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는 잘못 건드리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명심하시고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중간 조사 발표는 신중하게 진행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유인촌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마지막으로 축구협회 말씀드립니다.

정해성 위원장님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셨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정해성 위원장님이 10차까지 전강위 회의를 했던 모든 기록들을 보면 정해성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어떤 결과인지 모르지만 홍명보 감독을…… 6월 30일까지 본인은 할 의사도 없었고 심지어 인터뷰를 보면 대한축구협회를 비판하는 얘기도 합니다, 내 처지가 이런데 이 처지를 무시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더라는 표현까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축구협회에 대해서 비판적 언사들을 합니다, 홍명보 감독께서.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입장이 바뀌시는 거지요.

관련해서 정해성 위원장님께서 1차로 홍명보 감독을 추천했다는 것 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모든 걸 짚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처럼 보여져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못하시겠지만 어느 공간에서라도, 어느 시간 이후에라도 위원장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 이후에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축구계의 원로로서, 대선배로서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계신 박문성 위원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축구협회의 지도부, 회장님 그리고 홍명보 감독님, 이임생 기술이사님, 전혀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 절차적으로 완벽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1분만 마지막 쓰겠습니다.

축구협회에서,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축구협회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 그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선수들, 국민들, 팬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축구를 지탱하고 있는 큰 힘인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이번 축구협회의 불공정한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마지막으로 주십시오.

○참고인 박문성 그동안도 그랬고 오늘도 이렇게 뒤에서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왜 눈치를 보지 않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옆에 있는 박주호 위원이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확실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과 다른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허락하지 않지요. 즉 예를 들면 인사권 같은데 전혀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아웃, 홍명보 아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는 이런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팬들은,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축구협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표현대로 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지요. 내 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 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들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눈치를 보지 않는 건 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님들의 눈치도 보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한테 자꾸 인사권에 개입하면 FIFA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겁박을 주지요. 그러면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분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 어디 눈치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라고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 구조와 어떤 단혀져 있는 이 조직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으로서 정몽규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문성 해설위원님 저 말씀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감독 선임에 관련해서 그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협회의 행정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잘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아니, 그 말씀은 오늘 하루 종일 하고 계시고.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 이 문체위 회의를 유튜브라든지 또 TV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텐데 하루 종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박문성 위원님께서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왜 그럴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잘 알아 가지고 내가 정했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신데 이런 게……

저는 두 번밖에 만난 적이, 뭐 잠깐잠깐 만난 적밖에 없는데 왜 내가 알았다고 이렇게 온 국민이 다들 아실까, 이것 왜 이렇게 정보가 잘못 유통이 됐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새 여기 계신 박문성 해설위원님께서도 유튜브를 하시지만 상당히, 팔로우가 60만이고 어떻게 보면 신문 기사나 방송보다도 더 영향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저희가 그 정정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의해서 정정보도를 할 수 있고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뭐라고 그러는 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마냐……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정몽규 회장님 답변하고 제가 지금 원하는 답변하고는 자꾸 미스매치가 좀 심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는 현대가의 역사이고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도 우리 현대가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역이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외에는 없다 이런 특권의식 뭐 이런 것 없습니까?

○**증인 정몽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축구협회나 축구 발전,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아니면 지식이 모자라 가지고 잘못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맞고 계속……

○**위원장 전재수** 조금 전에 박문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몽규 회장님 답변이 궁금해서 여쭙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율의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정몽규 회장님, 지금 이렇게 이미 결정이 됐고 홍명보 감독 선임이 됐고 월드컵 예선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성적이 좋으면 국민들의 분노, 여론이 수그러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국민들의 그런 분노 또 여론 때문에 홍명보 감독 경질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 국민들의, 축구팬의 분노가 그때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여러 가지 감독 선임이나 아니면 외국 감독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절차적인,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감독을 뽑아서 잘못된 건지 절차적으로 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외국 감독을 안 뽑아서 저거 한 건지 여러 가지 이슈가 다 같이 겹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오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시다만 한두 개의 분노, 한두 개가 쌓여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반복되지만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왜 축구팬들이 이렇게 지금 회장 퇴진을 외치는

지 제대로 인지를,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브라질 월드컵 이후의 축구팬과 국민들의 분노보다 지금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면. 감독이 제대로 리더십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결국 마지막 카드는 경질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증인 정몽규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에는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회장님께서 더 버티시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한국 축구 더 절단나고, 저는 그동안 회장님이 쌓아 온 한국 축구계에 있어서 또 세계 축구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영예, 명예 이런 것들도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면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당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결단을 촉구합니다.

체육회장님, 이번에 파리 올림픽 관련해서 굉장히 최고 수준의 좋은 성적을 가지고 귀국했는데 해단식도 없이 그냥 헤어졌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해단식을 취소하신 것이 회장님의 독단적인 결정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지난 8월 문체위에 왔을 때 회장님께서서는 전혀 해단식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해단식 장소까지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단식을 취소했다, 이게 맞습니까?

○증인 이기흥 예.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또 저희는 인천공항공사에 3일 전에 문서로도 드렸고 또 선수들이 너무 지치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과거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오고 나서……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이 몰랐다는 게 뭐니까? 해단식 계획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장소를 몰랐다는 거예요?

○증인 이기흥 그 장소를 거기다 별도로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김승수 위원 그 장소가 그쪽에 준비됐다는 사실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증인 이기흥 예, 못 받았습시다. 도착해서……

○김승수 위원 대한체육회 직원들은 당시 행사 장소에서 준비까지 다 마치고 있었습시다. 그런데도 회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증인 이기흥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알았습시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행사장까지 선수들이 계단도 이동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타야 되고 굉장히 이동에 불편이 있고 지체가 됐다는데 입국장과 이 장소까지 그렇게 거리가 멀고 불편합니까?

○증인 이기흥 그게 짐들하고 캐리어가 많아 가지고 계단을 내려간다는지……

○김승수 위원 거리가 얼마였습니까, 입국장하고 여기가?

○증인 이기흥 한 칠팔십 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김승수 위원 80m 정도밖에 안 되고 아주 천천히 걸어도 1분입니다.

○증인 이기흥 그런데 문제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김승수 위원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증인 이기흥 안 됩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이후에 패럴림픽 선수단 여기 똑같은 장소에서 해단식 했습시다. 패럴림픽 선수단은 걸어서 이동해서 해단식 하는데 일반 운동 선수들이 그거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인 이기흥 왜냐하면요 저희는 그날 진천까지 또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22일 날……

○김승수 위원 아니, 패럴림픽 선수단은 그렇게 안 갑니까?

그러면 해단식 안 하고 보낸 그런 선수들은, 기존에 이미 귀국했던 선수들은 왜 해단식에 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증인 이기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 장소를 정해 놓은 거는 몰랐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김승수 위원 장소도 그렇게 핑계 댈 정도의 그런 먼 거리에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보니까 당초에 대한체육회에서 했던 해단식 일정 계획과 그 이후에 변경된 게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문체부장관이 축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장관이 참석한다 그러니까 그냥 심기 불편해서 돌연 취소한 거 아닙니까?

○증인 이기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그 뒤에, 입국하고 나서 22일 날 대통령님 행사가 용산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었고……

○김승수 위원 이기흥 회장님께서 파리에서 관련해서 해단식 행사에 장차관이 온다고 하니까 장차관이 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책임 못 진다, 문체부 직원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체육회 직원한테도 장관이 해단식 행사에 오면 당신을 인사 조치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까?

○증인 이기흥 아니 어떻게, 직원한테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지요,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다만 저희는……

○김승수 위원 안 했습니까?

○증인 이기흥 이 장소에서는, 그레이트홀에서는 안 된다, 게이트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김승수 위원 여기 체육협력관 나와 있지요?

체육협력관한테 질의할게요.

당시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이기흥 회장님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이기흥 회장이 이런 발언을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증인 이기흥 제가 한 얘기는요,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지금……

○증인 이기흥 그 장소에서는……

○김승수 위원 회장님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증인 이기흥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앞서도 박정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증인 이기흥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을 좀……

○김승수 위원 허위로 위증하셨다가 다시 사과한 거 아닙니까?

○증인 이기흥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세요.

그때 협력관이 왔을 때 거리 이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동 이런 상황 때문에 이

거는 안 된다, 그레이트홀은 분명히 안 된다. 안 되고……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런데 80m밖에 안 되는데 이격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인 이기흥** 아니, 그게 지하로 내려가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김승수 위원** 패럴림픽 선수들도 이동해 가지고 무사히 해단식 행사를 했는데 그게 일반 선수들이 이동이 힘들어서 안 했다는 거 자체가……

○**증인 이기흥** 힘이 들어서……

○**김승수 위원**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핑계 아닙니까?

○**증인 이기흥**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또 틀린 문제입니다.

○**김승수 위원** 누가 보더라도 문제부장관이 참석하는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심기가 불편하니까 취소한 거 아닙니까?

○**증인 이기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김승수 위원** 그렇게 개인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진짜 국가대표선수들이 얼마나 해단식을 꿈꿨겠습니까. 평생 꿈꿔 왔던 그런 행사 또 많은 국민들도 이번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보고 싶어 했을 거 아닙니까?

○**증인 이기흥** 위원님,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국하고 나서 그런 상황들을 보고 또 취재를 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던 언론이라든지 또는 그걸 시청하시는 우리 국민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이 점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이 온다고 해 가지고 직접 인사 조치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이 이게 갑질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들었다는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증인 이기흥** 위원님, 저는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회장님께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대한체육회를 전횡한다, 체육계의 황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 이기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라든지 또 언론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상황은 제가 미리 충분히 거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문서로도 이미 제출을 한……

○**김승수 위원** 그때 해단식 예산만 2200만 원이 책정이 됐었고 여비까지 하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지만 기획사한테 16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1600만 원 지급한 거는 회장님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 회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1600만 원을 대한체육회의 국민 세금으로 지급해서야 되겠습니까? 회장님이 독단적으로 취소했으니까 회장님 돈으로 이것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기흥** 거기에 그런 장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그거지요. 80m밖에 안 되는 그 거리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귀중한 소중한 기회를 독단적으로 발로 차

버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선수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할 태도가 아니지요, 체육회 회장으로서는.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조금 전에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께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바그너와 홍명보가 동일한 추천 1순위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해성 위원장님도 1순위로 바그너와 홍명보 감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몽규 회장이 언론을 통해서 1·2·3위로 해서 1순위로 홍명보 감독으로 추천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깐 그것에 말을 맞춰 주기 위해서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증인 정해성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10차 회의 때 일단 1순위, 2순위, 3순위가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결정을 해서 그거는 전장위에서……

○조계원 위원 비대면 회의가 11차 회의였고 정해성 위원장님 안 계셨고요.

○증인 정해성 10차……

○조계원 위원 10차 때는, 박주호 위원도 계신데 박주호 위원도 그때 추천한 거는 전체 언론 비보도 전체로 해서 추천을 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추천 수가 홍명보 감독과 바그너 감독이 둘 다 1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임생 이사도 알고 있었고, 방금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왜 1순위로 홍명보 단일, 단수로 얘기를 하셨습니까?

○증인 정해성 아니요.

○조계원 위원 단수로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까?

○증인 정해성 예.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결정을, 위원회에서 나온 전체적인 추천의 득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 안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협회 행정직원들과 비대면으로 일단 인터뷰를 통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회장님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아까 1순위가 2명이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본인이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증인 이임생 위원님, 제가 받기로는 공동 1순위 홍명보 감독과 바그너 그다음에 3순위에 거스 포엣, 이 3명을 면담하고 1·2·3위를 순위를 매겨서 이사회에 보내는 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거는 30일 이후의 일이고요. 홍명보 감독을 만나기 전까지는 1순위가 2명이었잖아요?

○증인 이임생 예, 홍명보 감독이랑……

○조계원 위원 그런데 왜 홍명보 감독한테는 1순위가 홍명보 감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1위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 본인은 전혀 응모하지도 않고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고 했으면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이임생 이 부분은 아마 공동 1순위에서……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공동 1순위라는 얘기를 했어요, 홍명보 감독한테?

○증인 이임생 그러니까 그거를 잘…… 헛갈려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게 무슨 헛갈려 할 수 있는 거예요? 1순위가 2명이고, 2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헛갈립니까?

○증인 이임생 저는 공동 1순위라고……

○조계원 위원 그 얘기를 홍명보 감독한테 면접도 아닌 면담에서 얘기를 했느냐 이거지요. 홍명보 감독에게는 1순위가 됐으니까 대한민국 축구를 지키기 위해서 제발 감독을 맡아 달라, 면접이 아닌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증인 이임생 맞습니다. 3명의 후보자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나중에 끝나고 맡아 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게 면접입니까, 면담입니까, 요청입니까?

○증인 이임생 면담입니다.

○조계원 위원 면접 아니지요?

○증인 이임생 면접은……

○조계원 위원 면접이 아니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봐도 되겠지요?

○증인 이임생 저의 역할은 3명을 면담한 거였습니다.

○조계원 위원 면담이었습니까, 면접이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증인 이임생 면담이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까지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면접 절차를 통해서, 면접을 위해서 바그너와 포엣은 직접 가서, 여러 명을 동행해서 가서 면접을 했고 그를 통해서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아무 동행도 없이 혼자서 밤에, 밤늦게 빵집에 가서……

○증인 이임생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위에서 보고받은 내용은 3명의 후보자를 반드시 면담하고 1·2·3위를 매겨서 이사회에 내는 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 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까지는 면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홍명보 감독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로부터 본인을 1순위로 통보받았습니까, 공동 1순위라고 통보받았습니까?

○증인 홍명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처음에 얘기 들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까는 1위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표현했거든요.

○증인 홍명보 그러니까 처음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얘기를 마치고 나서는 1순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높은 순위를 받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계원 위원 6월 30일 날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연 이 시점에 왜 우리가 이 대표팀 감독을 뽑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면 클린스만을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 얼마만큼 학습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타하면서 본인은 축구협회 감독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 선언이 있고 나서 혹시 비공개 11차 회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증인 홍명보** 아니, 저는 제가 대표팀 감독을……

○**조계원 위원** 아니, 이임생 기술이사님.

비대면 회의 1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홍명보 감독 인터뷰 직후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까?

○**증인 이임생** 10차 이후에 임시회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계원 위원** 11차 회의라고 돼 있잖아요?

○**증인 이임생**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직원이, 11차가 그거는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11차, 임시회의가 됐든 11차 회의에서, 11차 회의가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전에 있었어요,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본인은 대표팀 감독 출마 의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었는데.

○**증인 이임생** 저도 그 기사를 봤지만 날짜를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감독 인터뷰하고 나서 부랴부랴 비대면 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본인이 전력강화위원장대리를 맡았는데, 그 부회장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김정배 상근부회장하고 같이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고 나서 대책 회의 가졌지요?

○**증인 이임생** 예.

○**조계원 위원** 김정배 부회장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장을 맡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증을 했었나요?

○**증인 이임생**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게 규정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 것 확인됐지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홍명보 감독은 임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홍명보 감독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홍명보** 저도 그동안 회의록을 볼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저는 10차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차, 저는 11차가 어떤 회의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약간 행정의 착오가 좀 있지 않았었다. 예를 들면 위원장 교체하면서 임명장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거는 조금 인정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10차까지는 전혀, 정해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전강위의 역할이나 그런 것은 전혀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박문성 참고인님, 지금까지 시계열적인 얘기를 들으셨지요? 상황이나 전개 이게 지금 공정한 절차를 통한 감독 선임의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참고인 박문성** 지금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했던 게 그냥 그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차까지는 공정했는데 11차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선택을 했던 이임생 이사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일주일 만에 자기 의사를 푼다. 그러니까 6월 30일 포항과 울산과의 경기, 포항 원정을 가서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요, 하지 않겠다. 울산 팬

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주일 사이에 바뀐 건데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문제의 11차 회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그 마지막에 분명히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가 감독 선임에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은 이미 훼손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조계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조계원 위원 홍명보 감독님께, 지금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은 간에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감독 선임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홍명보 감독께서 본인은 분명하게 공정한 절차로 선임되었다고 믿었지만 실제 상황과 결과, 절차 진행 과정은 불공정한 과정 속에서 감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직을 사임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증인 홍명보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성적이 안 좋으면 언젠가는 경질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은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시다. 행정적인 오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문제와 오차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 바꾸기 할 겁니까?

○증인 홍명보 아니, 그러니까 11차 회의에서의 행정적인 오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재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조금 사변적인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침 10시부터 현안질의를 하고 있는데 정몽규 회장님은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 중 거의 유일하게 등을 뒤로 대고 되게 편안하게 계시네요. 안타깝게도 뒤에 계신 이임생 이사라든가 홍명보 감독이라든가 모든 축구인들이 매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편안해 보여서 그 태도는 뭘까 좀 궁금증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회장님 증인으로 출석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밖에 증인을 요청하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오늘 문제점들에 대한 어느 정도 소명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국정감사에 관한 증인을 철회할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철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겠습니다.

여기 왜 와 계신 것 같습니까, 회장님?

○증인 정몽규 감독 선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어서 궁금증을,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하려고 현안질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유체이탈식 대답 말고요. 회장님 여기 왜 와 계신 것 같습니까? 그 문제 있는 것 저희 다 압니다. 뭐 때문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증인 정몽규 여기서 증인 채택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왔습시다.

○강유정 위원 중인 채택되니까 그냥 오셨군요.

이런 겁니다. 오해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요약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확산이 가장 큰,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을 비롯해서 지금 그게 좀 문제다라고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유튜버 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오전 질의에서 그러면 입증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내고 대답도 용어도 헛갈리면서, 제가 7월 23일 날 우리가 비공개 간담회에서 봤던 그 서류를 다시 뒤져 봤더니 이게 바로 축구협회 현실 아닌가 싶어요. 대면 면접 실시라고 해 놓고 그 밑에는 이임생 이사가 말한 것처럼 또 면담이란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 밑에 7월 5일 한국,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 대면 면접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또 면담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회에 낸 서류에서도 그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축구협회 오늘 느낀 문제점을 요약해 드리자면 첫 번째, 입증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로 하는 설득력도 없습니다. 세 번째, 제가 보기에는 자정 능력이 전무해 보입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오차와 잘못을 또 수정하는 홍명보 감독을 보고 너무 답답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도 아까 회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개인적인 인연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입증 능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임생 총괄이사가, 이 문제 불거진 것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언제였냐면 7월 13일 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 선임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임생 이사님 언론에 대고? 이것 제 말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문제된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임생 이사님? ‘아는 사람이라 면접이 필요 없다. 너무 뛰어나 부탁을 해서 모셔왔다’이라는 취지의 말을 해서 축구팬들이 들끓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7월 23일 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또 어떤 말을 했느냐. 김정배 부회장께서 ‘홍명보 감독 면접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을 또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공정하다…… 홍명보 감독 알지요.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처음 말했다시피 이것 인사입니다, 인사.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장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국민들에게 염려를 이렇게 끼치고 피로감을 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7항, 사회적 물의, 협회나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에 적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으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입니다. 3항에도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이제 문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문제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불사하고서라도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겠다는 각오를 보여 주셨습니다.

○증인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대한체육협회처럼 축구협회 임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회장이 본인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회장의 자격정지를 요구하고 임원 자격이 정지되면 4연임에 도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사 있으십니까?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행정소송을 불사하고라도 4연임 저지할 수 있다라는 문체부장관의 약속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증인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임오경 위원입니다.

정몽규 회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뒤에 계시는 축구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증인 정몽규 표현상 규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익숙치 않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회장님이 지금 그 답변들을 들으시면서 절차상에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10차,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차에서 정해성 위원장이 3명으로 추천을 마쳤고요.

○임오경 위원 아니지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지금 두 사람의 얘기가 다릅니다. 저희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박주호 위원과 정해성 위원장님의 말이 너무나 달라요.

박주호 위원 좀 일어나 주실 수 있겠어요?

정해성 위원장님이 앞으로 나오실래요, 박주호 위원이 앞으로 나오실래요?

정해성 위원장님은 10차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세 사람의 결정권에 있어서. 그렇지요?

○증인 정해성 예.

○임오경 위원 박주호 위원은 10차 회의에서 그렇게 위임한 적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증인 박주호 예, 맞습니다. 동의를 하기는 했지만 모두가 언론에 나가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이 좋은 5명의 감독님을 똑같이 검토하고 그리고 똑같이 위원장님이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걸 동의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박주호 위원은 지금 5명으로 압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해성 위원장님은 3명으로 압축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증인 정해성 예.

○임오경 위원 같은 공간에서 같은 10차 회의를 했는데 왜 다른 얘기가 나오지요?

회장님, 지금 듣고 계시지요?

○증인 정몽규 예.

○임오경 위원 지금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차 회의에서 부터, 10차 회의가 저는 정확하게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듣다 보니 10차 회의부터, 10차 마지막 회의에서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5명이라고 하고 3명으로 추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성 위원장은 3명으로 압축해서 그것을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해성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증인 정해성 전체적인 강화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7표, 7표가 동표가 나왔고 그다음에 6표가 나와서 그다음에 그 이후의 어떤 결정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한테 일임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대면으로, 일단 우선 국내 감독인 홍명보 감독은 국내에 잔류하고 있으니까 외국 감독 두 분, 바그너랑 거스 포엣 두 분을 대한축구협회 3층에서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임오경 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최종 회의가 끝난 다음 일이지요.

○증인 정해성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지금 10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동의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위원장님은 또 동의를 받아서 3명…… 아니, 외국인 2명은 화상으로 면접을 봤다고, 면담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지금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게 말씀을 답변들을 해 주셔야지 지금 도저히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아마 이것을 보면서 헷갈려 할 것 같습니다.

○증인 정해성 위원님, 그것은 제 생각엔 10차 회의록에 아마 다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박주호 위원이나 저나 일단 10차 회의까지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왔는데 거기서 서로 말이 달라졌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10차 회의 때 마지막에 득표수를, 우리가 추천한 득표수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장한테 우리가 일임을 하자, 그러면 좋다 해서 그다음에 득표수에 따른, 7표, 7표, 6표에 대한 어떤 인터뷰를 비대면으로 해서, 분명히 그다음의 순위는 위원장한테 일임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제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임오경 위원 10차 마지막 회의에서 17명의 후보가 있었지요?

○증인 정해성 예.

○임오경 위원 그것도 중간에 5명인가 어느 모 위원이 끼워 넣어서 갑자기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7명에서, 순위를 매겼다고 하는데 지금 박주호 위원은 그 현장에서 5명이라고 합니다.

박주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정해성 위원장은 위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속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합니다, 회의 기록이.

○증인 박주호 1차 제시 마시 감독까지 하는 과정은 1·2·3순위를 정해서 정확하게 위원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진행된 것으로 모두가 공유가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가 7표, 7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어떤 좋은 감독, 능력이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복수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감독이 우리 축구 발전 그리고 축구 여러 가지…… 제시 마시 감독을 뽑는 과정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안에 있으면서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괴리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마지막 보고가 되는 이런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원장님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일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리는데 회의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두 분 앉으셔도 됩니다.

회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증인 정몽규 예.

○임오경 위원 지금 이 한 자리에 패밀리가 다 나와 있는데 홍명보 감독은 감독대로 절차에 문제없이 자기는 선임됐다, 최종 자기가 1순위라고 해서 마음의 결정을 했다. 축구 발전을 위해서 일주일 전에 감독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뒤집어엎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를 10차 회의에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 10차 회의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증인 정몽규 지금 박주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시 마시 때랑 마지막 10차를, 박주호 위원도 똑같이 10차 위원 때 누구를 선임하느냐는 정해성 위원장이라고 동의해 줬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성 위원장께서 그중에서 제일 위에 세 사람을 보고서 결정하고 순서를 매긴 게 그렇다고 저는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임오경 위원 회장님, 그게 박주호 위원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5명이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회장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10차 회의에서 이거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증인 정몽규 그러니까 박주호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5명이든 3명이든 모든 절차를 위원장에게 동의했다 이 말씀 한 거는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일부 동의했다라고 합니다.

○증인 정몽규 일부 어떻게 동의……

○임오경 위원 지금 일어나서 답변을 박주호 위원은 일부 동의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안 한 거예요.

○증인 정몽규 저는 동의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선임에 관해서 동의했다 이렇게……

○임오경 위원 박주호 위원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지요.

박주호 위원은 일부 동의했지만 나머지 9명의 위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증인 박주호 저 역시도 동의를 한 건 맞고요. 하지만 제시 마시 동의를 했다는 거는 제시 마시 하는 과정, 감독을 뽑는 점수에 따라서 정말로 한국 축구 발전에서 뽑을 수 있는 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뽑는 걸 위원장님에게 맡기는, 이 5명을 후보를 뽑아 놓고 위원장님에게 그 마지막 위임을 맡기는 걸 동의를 한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중요시 여겼던 건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전문

이었습니다. 축구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중요 요소들이 있는데 기술적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경험 이 세 가지가 모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회의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을 뽑자, 그리고 그다음이 리더십, 경험도 추가적으로 보면서 뽑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회의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단의 중요성을 말을 했습니다. 감독님도 중요하지만 사단이 구성이 돼 있는……

이번에 벤투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벤투 사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을 이름으로써 그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지도자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 축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게 국가대표 감독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게 계속해서 회의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결과가 나고 혼란스러웠던 점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모든 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복잡하고 괴리감을 느끼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제가 모든 이야기를 다 듣지는 못하고 마지막 회의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10차 회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정몽규 저도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시 마시 감독은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초청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세금 문제도 저희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결국에 제시 마시의 결론은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저도 그 협상 와중에 정해성 위원장도 제시 마시 감독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제시 마시 감독이 캐나다, 저희와 협상하는 과정에 캐나다랑 같이 네고를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벤투 감독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벤투 감독이 꼭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1순위는 에르베 레나르 감독이 1순위였는데 그분도 그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 저희 올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거기 모로코 왕이랑 이야기해야 된다 만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를 지렛대 삼아서 그쪽이랑 네고했고요. 그다음에 2순위로 했던 거는 케이로스 감독, 이란 감독했던 분이 2순위로 그때 됐는데 이분도 한국 온다 온다 온다 이러다가 마지막 계약은 안 하고 그러고서 콜롬비아하고…… 3순위로 한 게 벤투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거를 계속 말씀 안 드렸던 이유는 누가 1순위고 누가 2순위고…… 기왕 같이 결혼을 했는데 네가 3순위였다, 4순위였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항상 오시는 분을 최고로 잘 모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과정이 어땠었다 이런 거는 좀 얘기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어 가지고 계속 이런 거를 이야기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이용수 이사께서……

○위원장 전재수 정몽규 회장님 거기까지,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아니까요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파악되신 위원님들이 한 여섯 분 계시거든요. 재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딱 3분씩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주질의 그리고 오후에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추가질의를 딱 3분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이임생 이사님, 다시 한번 여쭙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하신 적 있지요? 7월 8일 오전 제가 이렇게 해 왔고 제가 주신 최종 후보 중에서 최종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라는 동의를 얻어 내고 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증인 이임생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다음 PT 쭉 보세요. 올려 보세요.

저거는 그 다섯 분 중에 한 분이예요. 저거 왜 보내셨습니까? 저 회유는 왜 하신 거예요? 한 걸로 해 달라.

○증인 이임생 한 걸로 해 달라고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저기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시잖아요, ‘미안합니다. 저는 제외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동의 못 한다……

○증인 이임생 제가, 저기 써 있지만 문자 넣었다고 하는데 제가 ‘최종 결정 동의 부탁 드린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민형배 위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분은 전강위원들이 동의한 대상에 홍명보 감독이 없었다 그래요.

○증인 이임생 위원님, 제가……

○민형배 위원 아니, 제가 없는 말 꾸미는 게 아니고 그 위원한테 지금 가지고 와서 공개하는 거잖아요?

○증인 이임생 제가 다섯……

○민형배 위원 왜 저 회유를 하셨습니까?

○증인 이임생 회유가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이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홍명보 감독 내정 기사 발표 전까지 외국인 후보 2명 중에 1명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홍명보에 대한 동의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증인 이임생 이분이랑 전에도 통화를 했고요, 위원님……

○민형배 위원 박주호 위원님, 홍 감독이 선임될 거라고 예상했었나요, 저 시점에서?

○증인 박주호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했다면 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민형배 위원 보세요.

○증인 이임생 위원님, 저는 박주호 위원님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통화한 분 중에 한 분이고, 지금 제가 다른 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 다 홍명보 감독이 선임될 거라고 예상을 못 했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까지.

더, 지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축구협회 행정 역량이……

됐습니다.

○증인 이임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명예도 달린 문제라……

○민형배 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보세요. 이 문제는 축구협회 행정 역량이 엉망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무슨 일을 해 가려면 홍명보 감독을 만들고 싶으면 이를테면 다 규정과 절차를 밟아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아니면 축구협회가 원래부터 이렇게 조직 자체가 기본도 갖추어지지 않은 엉터리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정몽규 회장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임원분들이 지금 일을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임원분들 다 일제히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세요, 정몽규 회장님이 하시든지. 자꾸 없는 얘기 만들어 가지고 맞추려고 옛날 지난번에 비공개 간담회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복장이 터져서 죽겠어요.

○위원장 전재수 이임생 이사님.

○증인 이임생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증인 이임생 제 명예가 달린 거라 말씀하게, 드리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증인 이임생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조금 이따가 하세요, 조금 이따가.

○증인 이임생 저는 위원님, 이거는 제 명예가 달린 일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증인 이임생 제가 결정하게끔 부탁을 드려서 동의를 다섯 분 다 받았습니다. 박주호 위원은 아까 1분이라고 했지만 2분 44초를 통화했고요.

이거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명예로서 제가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거는 절대 이거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왜 이런 카톡을 보내세요?

○증인 이임생 기자 한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원들한테 그거를 받았으면 좋겠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나 빼고 해 달라.

○증인 이임생 아닙니다. 통화를……

○민형배 위원 아니, 이렇게 보내 놓고 그러세요?

○증인 이임생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기자분이 요구한 거를 그걸 못 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민형배 위원 대표팀 감독 선정 하나를 매끄럽게 못 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증인 이임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민형배 위원 홍명보 감독이 무슨 죄고 정몽규 회장이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증인 이임생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민형배 위원 절차를 밟아 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회장입니까?

○위원장 전재수 자……

○민형배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딱 1분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장관님, 지금 오늘 보셨지요?

○증인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체육계 온 곳곳에가 이른바 사유화하고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임원 선출 과정의 제한 때문에 제약 때문에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온 동네가 다 민주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디 종교단체들도 다 투표해 가지고 뽑아요. 그런데 여기만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끼리끼리 놀고먹게 되어 있다고요. 이 체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문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증인 유인촌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수 보호도 안 돼요. 내부에서 부조리는 계속 생겨요. 그런데 국가는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국고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장관님이 이거를 체육계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어떻게 풀어 갈지 혁신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주십시오.

○증인 유인촌 우선 오늘 제가 체육 전체를 사실은 맡고 있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정말 저도 답답하고, 또 물론 저는 작년 취임하면서부터 이런 문제, 체육계 문제에 대한 이의를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결국 오늘 제가 또 느낀 건 제도나 어떤 방식보다도 결국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 이렇게 이 상임위에서 청문회까지 열면서 이 마당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정말 체육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체육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임생 위원장께 발언 기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이임생 이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됩니다.

○증인 이임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대표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게 잔디가 너무 뛰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국 축구를 위해서 우리 선수들한테 좋은 잔디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 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제가 듣기에는 진짜 도와주셔야 될 분들은 거기 계신 분들 같습니다. 아마 오늘 생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기 이전에 정몽규 회장님을 비롯해서 대한축구협회를 지금 현재 책임지고 이끌고 계신 분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임을 이성한 데로 돌리고 또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오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 분 한 분 말씀 억지스러운 얘기 저는 단 한 토막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오간 얘기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대로 돌아가시면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런 불길한 예감이 확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개 국회가 여야 정쟁의 장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는 적어도 여야 위원님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서류나 이런 것은 잘 모르시지만 직감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다들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 많은 국민들의 실망감 이런 것들과 오늘 스포츠계에서 나오신 분들의 답변의 괴리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따질 게 또 있습니다. 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를 필두로 해서 우리 스포츠계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뭔가 저희 국회 차원의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정말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라도 좀 공유를 하고 가시고 또 우리 지켜보는 국민들도 결과에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쳐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스포츠계는 끼리끼리 나랏돈 가져다가 이리저리 헤쳐서 쓰고 마음대로 사람 임명하고 이런 곳이구나라는 확신을 우리 국민들이 오늘 더 많이 가지시지 않을까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서 뭐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지금이라도 오늘 이 청문회가 우리 스포츠계 변화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앉아 계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 방송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이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사죄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체위원으로서 오늘 굳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계

속적으로 오늘 제기됐던 이 많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지켜보고 국민을 대신해서 따져보겠다라는 결심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만 끝나면 그만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만이 아까 정몽규 증인에게서 말씀하신 사회에 문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결과적으로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오늘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다짐으로 끝까지 함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께는 정말 문체위원으로서, 오늘 청문위원으로서 속 시원하게 어떤 것 하나 답변을 이끌어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국민께 대한 죄송함을 문체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택규 회장님께 좀 부탁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종합정리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종합정리를 쪽 해 났었는데 해 주셔서, 동일한 것이니까 그 문제 절대 잊지 말고.

그리고 아까 저 뒤의 우리 증인에게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협회장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택규 예.

○박수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시도록 적극 나서셔야 합니다.

○증인 김택규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 문제고.

또 아까 그페이백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느끼셔야 돼요. 용어를 후원물품과 구분해서 쓰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 알겠어요, 무슨 뜻인가.

그런데 이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속기록이 없다고 그랬지만 이 속기록에 보면 회장께서도 분명하게 대회 셔틀콕 구매 시 페이백식으로 몇 퍼센트를 주는,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개평이지요. 그리고 많지 않은 물품이기에 어떤 데는 더 주고 어떤 데는 덜 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속기록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물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한 기준에서 배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설사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안세영 선수가 쏘아올렸던 그 작은 공, 그 문제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김재원 위원님께서 종합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말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정말 지도력 있는 협회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다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택규 먼저 배드민턴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페이백이 됐든 후원물품이 됐든 그 지급한 부분은, 이 리그 사업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 오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후원물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그 사업 자체가 17개 시도 중에 10개 시도가 참여를 해서 33%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2% 정도 되는 사업을 전라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차등을 줘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2024년은 어느 정도 균등하게 지급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배드민턴협회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계속해서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최종 정리합시다.

정몽규 증인, 11차 전력강화위원회 이 자료를 직원이 임의로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증인 정몽규 11차 전강위원회라기보다는 10차의 팔로우,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11차 아니다, 끝까지? 아까 11차라고 이야기해 놓고 이제 또 한 번 바꾸는 거지요?

이임생 이사님, 아까 11차라고 했다가 또 말 바뀌서 임시회의라고 바꿨지요?

○증인 이임생 위원님, 저희 잠깐 쉴 때 저희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양문석 위원 뭘 설명을요? 보내온 게,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증인 이임생 저희 직원……

○양문석 위원 ‘KFA 전력강화위원회 임시회의(비대면)’이 작은 제목이고 큰 제목이 ‘전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록’입니다. 어느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장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회에 보낸 자료는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회장이 비겁하게 우리 직원이 했다, 직원 탓을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지요. 그때도 했었잖아요. 승부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축구협회 부회장단·이사진들 전원 사퇴했었을 때 ‘나마저 사퇴하면 축구계의 혼란이 불가피해서 물러나지 않았다, 정몽규’.

이번에는 그렇게 자신의 수족처럼 움직였던 이임생 이사가 그만두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작 그렇게 이임생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정몽규는 아직까지 생각 중이다…… 최소한 국민에게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이 마지 못해서 물의를 빚었다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말장난합니다. ‘11차 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잘못이 아니고요 오차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해성 위원장님, 모두가 다 동의했다면서요? 부끄럽습니다.

(전재수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우리 민형배 위원은 축구협회의 행정 역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는 축구협회 여러분들의 역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의 변덕입니다. 변덕스러운 회장이 이랬다 저랬다, 클린스만 때 다르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해성 위원장이 당황했고요. 이 변덕이 통하는 게 바로, 축구협회가 정 씨 가문의 사유재산입니까? 왕국입니까? 황제입니까? 그만두세요. 그만둔다고 하세요!

이 모든 문제는 정몽규 회장의 변덕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국민이 지금 왕창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정 씨 일가, 특히 정몽규가 일으킨 사달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몽규 회장? 마지막으로 사퇴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정몽규** 위원님 말 듣고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생각하지 마시고 사퇴하세요, 제발.

○**위원장대리 박정하** 양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3분이라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양문석 위원님께 특별히 1분 더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딱 3분입니다.

조계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계원 위원** 홍명보 감독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선수로서의 홍명보 감독, 정말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고 대한민국 주장으로서, 최종 스위퍼로서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큰 기쁨을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도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급, 여전히 아직도 특혜라고 생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도 축구지도자 자격증 취득 문제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축구국가대표 코치는 1급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당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지 한 달 만에 2006 독일 월드컵 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 코치에 선임됐습니다. 이거 특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홍명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저는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런데 이 논란이 2006년에도 이어집니다. 1급 지도자 자격증 취득 조건은 2급 자격증 취득 1년이 지나야 하는데……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협회가 통상 10월이나 11월에 열리는 지도자 강습회를 7월로 당겨서 1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지요.

내용 보시면 당시 현직 지도자 중 78.9%인 266명이 2급 자격증을 가진 홍명보 코치가 자격 규정을 위반하면서 독일 월드컵 대표팀 코치에 선임된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답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도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하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증인 홍명보** 위원님, 저는 저때 은퇴를 해 가지고 1년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때도 마찬가지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 월드컵 대표팀의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저한테, 2002년도 월드컵 코치를 했던 펴 베퍼백 코치인데 코칭스태프가 바뀌니까 한국인 코칭스태프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한테 와 가지고, 그때도 제발 한국의 코치로 네가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 상황도 있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남들은 4~5년은 족히 걸리는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아무런 지도자 자격증도 없던 사람이 불과 10개월 만에 1급 지도자가

되고 국가대표 코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간에 지금의 감독 선임 과정 자체도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축구팬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축구도 대한민국 국민의 열정과 사랑으로 인해서 발전하고 그 꿈과 응원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는 어땠습니까? 축구팬들의 분노 그 속에서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0 대 0 승부가 났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열정과 응원, 축구팬들의 응원이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선수를 이끄는 과정에서도, 지도자의 리더십이 올바르게 관철되기 위해서도, 먹혀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런 공정한 절차에 의한 감독의 선임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축구팬들의 분노를 제대로 가라앉히고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홍명보 감독님과 정몽규 회장님께서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김택규 회장님 어디에 계시지요? 제가 잘 안 보여서요.

○증인 김택규 끝에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국가대표선수 선발할 때 평가위원 평가점수라는 게 있지요?

○증인 김택규 예.

○강유정 위원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아시안게임·올림픽 종목 44개 중에 복식에서 평가위원 점수를 반영한 유일한 종목이 배드민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관적 평가라는 문제가 좀 있는데 심지어 21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이 평가위원 점수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생겨서 아주 시끄러웠어요. 기억하시지요?

○증인 김택규 예.

○강유정 위원 그래서 어떤 식의 해결을 내놨냐? 결과 50%의 평가위원 점수가 50%나 이렇게 반영되는 건 너무하다 그래서 이 평가위원 점수를 10%로 줄이자. 이게 뭐였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하면 펀더멘털, 정신력 점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절반이나 주니까 너무 자의적으로 채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로 줄인 것 맞지요?

○증인 김택규 예.

○강유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PPT 보면 지난 2월에 다시 30%로 늘었습니다. 3년도 되지 않아서 원점으로 돌아온 건데 왜 늘어난 건가요?

○증인 김택규 정성평가와 경기력 평가 50 대 50으로 해서 2021년도에 정정은 선수가 피해를 본 선수고요.

○강유정 위원 그거 제가 다 얘기, 설명 간단히 했고요. 30%로 높였는데……

○증인 김택규 그로 인해서 정성평가를 10%로 줄였습니다.

○강유정 위원 거기까지도 얘기 다 했습니다.

○증인 김택규 경기력을 90%로 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20명의 선수가

나왔는데 10명은 성적이 좋습니다.

○강유정 위원 깔끔한 설명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증인 김택규 아니, 그렇게 해서……

○강유정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심지어 평가위원 6명 전원이 다른 대학 출신으로 구성되도록 나름의 자정력을 그때는 갖췄는데 이번에 또 30%로 높이면서 2명까지는 같은 대학 출신이 참여할 수 있다 완화했습니다. 이것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이것 설명 조금 이따 제가 들을게요.

또 PPT 두 번째 보면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2017년도 제정된 이래로 그리고 바로 직후 연도를 제외하고는 이놈의 규정이 매년 바뀝니다. 올림픽을 앞둔 최근 2년 동안은 네 번이나 바뀝니다. 저희가 공정성을 얘기할 때 출발선과 도착점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선수 선발을 하는 이 규정을 예외규정을 계속 바꾸고 계속 넣고 계속 개정을 하면 이 개정안을 보고 준비하던 선수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공정성이라는 건 출발점과 도착점일 때 이 규정은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무줄처럼 바뀌는 이런 규정들……

제가 하나만 비교해 드릴게요. 네트형 구기종목 테니스협회를 보자면 10년간 딱 세 번 개정됐어요. 이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이 제한, 연봉 제한, 경기물품 사용 제한, 해외경기 제한, 복종의무 규정, 이것만 해도 정말 입이 아프게 19세기적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규정이 바뀐다? 이렇게 전근대적인 정관이 있는 과정에서 선발 규정도 고무줄이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 개선 의지 어떻게 보여 줄지 답을 들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증인 김택규 이 부분은 전문성을 띤 그런 사안이라 국가대표 감독……

○강유정 위원 아니요, 테니스협회 보면 10년간 세 번 개정했다니까요. 비슷한 종목이고……

○증인 김택규 그러니까 그런 단점을 전문가, 경기인 출신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유정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전문가라는 이유로…… 개선 의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개선하셔야지요.

○증인 김택규 예, 그 부분은 지금 바뀌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저거 해서……

○강유정 위원 매년 바뀌었는데요. 또 바꾸려고요?

○증인 김택규 제가 검토자료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을 지적했는데 대한체육회도 지금 회계관리나 기금관리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이 한 4900억 정도, 거의 50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체육

진흥기금, 국고보조금 등이 한 95% 정도, 국가예산이 한 46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회원단체에 대해서는 법인화기금 또 경기력지원기금이 지금 지원돼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체육회장님, 법인화기금하고 경기력지원기금이 지금 각 종목별 단체에 몇 개 단체에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증인 이기흥 훈련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수 위원 아니, 법인화기금하고 경기력지원비, 93년, 94년도에 지급해서 지금 계속 원금과 이자가 관리되는 기금이 있어요.

○증인 이기흥 그게 한 1300억 정도 되는 걸로……

○김승수 위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증인 이기흥 그게 한 서른몇 개 단체로……

○김승수 위원 전혀 지금 회장님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천몇백억 되는 돈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회원단체가 대한체육회에 6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정회원단체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법인화기금하고 경기력지원기금이 지원돼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가지고 종목 단체의 운영이라든지 또 종사자에 대한 급여 이런 쪽, 후생복지에 쓰여지도록 이렇게 돼 있고 매년 대한체육회에서 원금과 이자 사항을 보고받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일단 받을 때마다 총액이 다르고 누락된 종목단체가 나오고 또 더 문제는 왜 누락됐는지조차 모릅니다. 연도별로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받아 보더라도 많은 단체들이 보면 연도별로 누락돼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나오고 2개 다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한 해에 중복돼서 통계가 잡혀 있는 그런 단체가 있을 정도로 보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한 280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기흥 예.

○김승수 위원 현원이 265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조직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기금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창올림픽 전후해 가지고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대한체육회에서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 협약을 맺어 가지고 조직위에서 마케팅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을 대한체육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한 8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뭉치돈이 들어왔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걸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목적으로 봤을 때는 평창올림픽 후속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계 발전을 또 체육인을 위한 사업에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예산들이, 한 70% 가까운 예산들이 체육회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경비, 경상적 경비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800억이나 되는 돈을 불과 몇 년 만에 소진해 놓고 나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작년에는 또 30억을 더 차입받았어요. 30억 차입받은 것 중에 10억은 직원 인건비로 쓰이고 20억을 동계스포츠센터 관련되는 예산으로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쓰여져야 될 돈에 대해서는 안 쓰고 있다가 다 쓰고는 돈이 없으니까 차입까지 받아서 이제 쓰고 있는 겁

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증인 이기흥**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의 한 10% 정도는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생긴 거고 올해 일시적으로 30억 정도가 연말까지 부족해서 돈을.....

○**김승수 위원** 기가 막힌 것은 그때 800억 중에 현물로 받은 것이 한 211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면 최신 휴대폰도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휴대폰들, 좋은 물품들은 전부 다 체육회 직원들한테 나눠 줬어요. 무려 체육회 직원들한테 휴대폰을 한 대당 128만 원 상당하는 것을 280개나 준 겁니다. 그리고 고급 의류, 가방, 신발 이런 것들도 체육회 직원들의 생일선물 또 체육회 행사복 이런 데 마구 그냥 주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30억 차입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관단 문제, 앞서 이야기했던 자문단 또 특보단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서너 건 자문해 주고 그냥 300만 원씩, 많게는 800만 원 받은 것 아닙니까? 1건 자문에 무려 한 100만 원씩 받은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한수정, 안세영 선수 트레이너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수정 트레이너가 받은 월급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필요한 이런 데.....

그런데 한수정 트레이너 계약기간 끝나 가지고 올림픽에 못 따라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쓰여져야 될 돈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엉뚱한 데 이렇게, 체육인도 아닌 이런 데 평평 써 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이기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김승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자체 조사는 물론이고 문체부 차원에서 지금 감사를 앞으로, 감사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세금이 줄줄 새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 누수 없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횡령이라든지 배임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위반·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의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유인촌**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돼 있어서 아마 곧 감사가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오늘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장미란 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3개의 종목단체가 정·준 인정 단체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차이점은 있지만 종목 특성상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종목은 고등학교 1순위 선수가 대학 진학을 원할까요, 아니면 실업 입단을 원할까요?

○**증인 장미란** 종목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특히 배드민턴과 탁구는 어떻습니까?

○**증인 장미란** 보통은 실업팀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고등학교 탑 클래스 선수는 졸업 후 프로나 실업팀 입단을 원하고 있어요. 요즘 대학 진학을 하는 선수들은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운동선수는 사무 직종이 아닌 기술 직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실력으로 계약기간, 계약금, 연봉이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장미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실업연맹 규정에 따르면 계약기간, 계약금, 연봉 등에 있어 고졸, 대졸을 차별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나오고 있지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장미란 필요에 따라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시대에 뒤 떨어진 배드민턴실업연맹 연봉 규정으로 인해서 얼마 전까지 연봉 수준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랭킹 13위인 인도 선수는 97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국민감정상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방수현 선수 다음으로 29년 만에 안세영 선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고졸이라는 것 때문에 6000만 원 상한액에 정지돼 있었던 거지요. 저는 이걸 바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택규 회장님, 하한은 없고 상한만 존재하는 배드민턴협회의 연봉 규정 바뀌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이해되십니까?

○증인 김택규 예.

○임오경 위원 예를 들어서 하한액을 3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실력이 낮은 선수는 30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상한만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력이 낮은 선수는 3000부터 시작하고 세계 랭킹 1위 선수는 팀과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택규 동의합니다.

○임오경 위원 동의하는데 왜 이것 개선 안 하세요?

○증인 김택규 그 부분은 실업연맹의 규정이기 때문에 실업연맹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실업연맹이 회장님 위에 있나요, 회장님?

○증인 김택규 밑에 있습니다.

○증인 전경훈 여기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규정이 잘못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

○증인 김택규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요……

안세영 선수가 29년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3년간 6000을 받아요. 하한은 없고 상한만 존재하는 연봉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또 나오더라도 이 규정하에서 세계랭킹 13위 선수는 97억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우리 선수는 6000 벌어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업 규정을 지금 여기에서 저한테 논하시고 계십니까? 회장님이 그 자리에 계

시기 때문에 실업 규정을 뒤집어엮어서라도 바꾸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증인 김택규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나는 왜 회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회장님,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모든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지요?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언론 인터뷰에서? ‘감독의 개인적 성향이 많다. 올림픽 출전 선수 위주로만 관리한다. 선수와 소통 부재다’ 이거 회장님이 하신 말 맞나요, 안 맞나요? 맞지요?

○증인 김택규 예.

○임오경 위원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 올림픽 성적이 좋은 감독이었고, 올림픽을 앞두고 출전 선수 중심으로 훈련해야지, 올림픽 앞두고 꿈나무들 훈련 지도하는 게 감독이 해야 될 역할입니까?

○증인 김택규 아닙니다. 국가대표는 꿈나무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선수하고 소통 부재라고 한다면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하향해야 되는데 성적은 상향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 말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증인 김택규 그것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선수들의 성적은 좋지만 그 밑에 있는 국가대표선수들의 성적이 낮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오경 위원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성적 낼 수 있는 중심으로 가서 최상으로 끌어내야 되는 게 지도자의 역할 아닙니까?

○증인 김택규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모든 선수를 관리 감독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 아닙니까?

○증인 김택규 올림픽 끝나고 제가 한 말입니다.

○임오경 위원 올림픽 끝나고, 그러면 말씀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이거는 올림픽 끝나고 ‘나 책임 없어. 이 모든 것은 감독에게 있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회장님은?

○증인 김택규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실업 규정이나 계속해서 논하시고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계속해서 실업 규정, 엘리트…… 엘리트라고 하지 마십시오. 전문체육인들의 썩어 빠진 이 관례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게 회장이 할 소리입니까?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만두셔야지요.

○증인 김택규 엘리트들이 말 안 듣는 거는 사실입니다.

○임오경 위원 회장님이 그 컨트롤을 못 하시니까, 그거는 회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증인 김택규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에요?

○증인 김택규 예.

○임오경 위원 전문체육인 출신들이 말을 안 듣는 게 전문체육인들의 잘못이다?

○증인 김택규 아니 위원님, 전문체육에 터줏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협회가 더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중에 김중수 부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김택규 예,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김중수 부회장은 회장님을 추천한 사람인데요?

○증인 김택규 예?

○임오경 위원 김중수 부회장은 회장님을 추천한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증인 김택규 선거를 같이 했지요.

○임오경 위원 회장님, 김중수 부회장은 회장님을 추천해서 회장님을 만들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경기인 출신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회장님의 의지대로만 그냥 앞장…… 질러대니까 경기인하고 계속해서 트러블이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택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저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권한을 전문체육 선수들이, 전문체육 출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회 하나를 통과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을 없애려고 해도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는……

○임오경 위원 그거는 회장님이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다 그거……

○증인 김택규 아닙니다. 그거는 2022년도입니다.

○임오경 위원 개선했다고 했습니다. 개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김택규 개정을 못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개선해서 지금 선수들이 이코노미에서 개인이 돈을 내고 비즈니스를 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증인 김택규 아니, 그거는 선수들이고요. 임원이 비즈니스석 타는 것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걸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자질 부족으로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지요. 그게 자질 부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아시안게임 전에 진천선수촌에서 한 선수가 무단이탈, 무단외박, 음주, 혼숙 등의 문제를 일으켰고 그거를 감독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무마시켰지요? 그리고 그 선수는 당당하게 아시안게임 출전했지요?

○증인 김택규 무마시킨 것보다는 아시안게임의 엔트리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한 번 준 겁니다.

○임오경 위원 회장님, 진천선수촌에서 이탈, 무단외박, 음주, 혼숙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선수입니다.

장재근 촌장님, 이게 선수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증인 장재근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회장님,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수 등록을 했어도 그 선수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회장님의 그 답변을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깐요.

○증인 김택규 저는 감독이 잘못했다고 하기 이전예요, 순천에서 코리아오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솔규 선수하고 김원호 선수가 파트너였는데 김원호 선수가 부상을 당했

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파트너가 경기를 못 뛰니까 그 선수가, 부상 당한 선수는 귀가했고 그 선수가 숙소에서 저거 하면서 불미스러운 그런 행동을 한 부분을 가지고 징계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왜 그 선수를 아시안게임을 내보냈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엔트리가 있고 다른 선수로 바꿀 수 있는 엔트리는 없는 겁니다, 배드민턴은. 그래서 그 선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줬던 거고 그래서 은메달을 딴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회장님,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민형배 위원님께서 꼭 한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고 하니까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택규 회장님은 거기 계셔도 아무 일도 못 하시니까 얼른 사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부터 지금까지 봤는데 거기 계시면 안 되겠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전문체육인들 때문에. 얼른 그만두세요.

정몽규 회장님, 오늘 증인으로 모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홍명보 감독이나 정몽규 회장이 된 잘못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곧 이끝대로 받으셨습니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증인 정몽규 여러 가지……

○민형배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 쪽 보니까 회장님이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저거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세 달 전에 ‘축구의 시대’라는 책을 내셨지요? 저한테도 한 권 보내 주셔서 제가 쪽 한번 훑어 봤습니다. 잘 쓰셨더라고요. 저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감독 선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회장이 진다. 아니, 협회의 주요 정책과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모두 회장에게 있다. 남과 상의 없이 혼자서 결정하거나 책임질 일이 있으면 꿈무늬를 빼는 것은 독단이다’.

책임입니까 독단입니까, 지금 회장님 스탠스가? 지금 회장님 스탠스가 책임입니까 독단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증인 정몽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책임입니까 독단입니까, 지금 마음가짐이? 다시요, 책임입니까 독단입니까?

회장님, 증인께서 지금 써 놓은 책, 그 책 좀 다시 띄워 놓으세요. 이번에 감독 선임은 요 여기 증인께서 적어 놓으신 대로 명확하게 회장 책임입니다. 이 과정에 있었던 모든 과정은 회장 책임이라고요.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를 저는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어요. 두 번이나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책임을 뒤로 미루고 계십니다. 오늘 이게 끝나고 나서도 책임 있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몽규 예, 알았습니다.

○**민형배 위원** 임원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회장 책임인데.

그리고 이기흥 회장님, 아까 공직자가 아니라 그러셨지요?

○**증인 이기흥** 예.

○**민형배 위원** 그만하세요. 공직자 아닌데 왜 거기 앉아 계세요? 대한체육회 회장이, 공공기관장이 공직자가 아니면 누가 공직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누가 공무원이냐고 물었습니까?

오늘 쪽 보니까요 공인의식의 부재 때문에 이런 무책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전재수** 저기 아까부터, 실업연맹 회장님입니까?

○**증인 전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손을 계속……

괜찮습니까? 발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전경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업연맹 회장님이 아까부터 뒤에서 손을 들고 계시서,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언하십시오.

○**증인 전경훈** 제가 경험은 짧고 여기 엘리트 외 생활체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실업연맹 회장, 엘리트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런 선수계약 관리 규정도 짧지만 저는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회장이 됐지만 정관을 조사한 이후에 바로 잘못된 것을 파악을 하고 11월 달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차·4차 간담회를 거쳐서 모집단한 60명가량으로 의견을 받아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제 자신이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엘리트 전체가 200명입니다. 200명 전수 과정을 거쳐서 10월 초에 전체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선수계약 관리 규정이 사실 배드민턴에만 존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대한체육회와 위원님과 그리고 또 상급단체와 상의 과정을 거쳐서 10월 달까지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상 위원님들의 재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재원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직접 구성한 유일한 기관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다 보니까 한목소리, 똑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첨예한 이슈를 가지고서 때로는 이견으로 때로는 의견 대립으로 때로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심하다 할 정도의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오늘 문체위 현안질의를 지켜보셨겠지만, 제가 삼선 국회의원입니다만 국회의원 삼선을 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여야 위원님들께서 한 치

의 이견 없이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체육계를 질타하고 이대로는 우리 체육에 미래가 없다는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제가 10년 가까이 국회에 있으면서 처음 보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지켜보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런 말씀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서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여 주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국정감사입니다. 오늘 현안질의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야,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오늘 증인들이 말씀하시는 그 사이의 간극과 괴리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 아니고 반드시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고 국민들께서 질타하시는 부분, 국민들께서 공유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국회의 역할, 문체위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회의에 참석하여 증언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고생하신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 경위 및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31인)

성명	직업	요구 위원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신동욱	10. 7.(월) 문화체육관광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정연욱		
민경국	자영업	정연욱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민형배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	김윤덕 임오경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민형배		
정 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민형배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	강유정		
이재진	인터넷신문윤리위원장	김재원	10. 15.(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11개 기관	
정진섭	GKL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조계원		
최재혁	전)한국정책방송원 기획관	임오경		
최지우	변호사, 전)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양문석		

성명	직업	요구 위원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하종대	전)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양문석 이기현		
곽영진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이사장	김재원	10. 17.(목)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5개 기관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김윤덕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신동욱 임오경 조계원		
조현래	전)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김윤덕		
강형모	대한골프협회 회장	진종오		
공선택	전)대한킥복싱협회 사무처장	임오경	10. 22.(화) 대한체육회 등 6개 기관	
김민수	충청북도축구협회 사무국장	정연욱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	박정하		
김종민	대한킥복싱협회 회장	진종오		
김철웅	요넥스코리아 대표	민형배		
손진영	FC세종 대표	진종오		
이민규	대한사격연맹 차장	진종오		
장재근	진천선수촌 촌장	정연욱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강유정		
주용일	서울시축구협회 회장	정연욱		
홍기용	대한민국축구협회 회장	정연욱		
홍 철	경기도체조협회 사무국장	김재원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	김윤덕 임오경	10. 24.(목)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종합감사	

참고인(29인)

성명	직업	요구 위원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조계원	10. 7.(월) 문화체육관광부	
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장	조계원		
이민석	KOK 피해자연대 고문 변호사	양문석		
진은자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양문석		
김장순	국악인	강유정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조계원	10. 10.(목) 국가유산청 등 8개 기관	

성명	직업	요구 위원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조계원	10. 15.(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11개 기관	
김규섭	건진사이다 유튜브채널 대표	양문석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이사	김승수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조계원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	김승수		
김성희	유튜버(김성희의 G식백과)	신동욱 진종오	10. 17.(목)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5개 기관	
김한민	영화감독	임오경		
김혜량 (리아킴)	한국안무저작권협회 초대협회장	강유정 신동욱		
박성일	작곡가	강유정		
박태준	더그림엔터테인먼트 대표	신동욱		
박해영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송병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회장	신동욱		
송창곤	배우	임오경		
원동연	영화제작자	임오경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진종오		
강신준	전)대한킥복싱협회 회장	진종오	10. 22.(화) 대한체육회 등 6개 기관	
문준호	자영업	진종오		
손증철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박정하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박정하		
주원홍	아시아테니스연맹 부회장	박정하		
최문철	학원 강사	김재원		
박기태	반크 대표	김승수	10. 24.(목)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종합감사	
서천범	(사)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	민형배		

○출석 위원(16인)

강유정 김승수 김윤덕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신동욱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정연욱 조계원 진종오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전완희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감사관 구경렬

정책기획관 이정미

체육협력관 송윤석

대한체육회

기획조정본부장 이현진

대한축구협회

상근부회장 김정배

경영본부장 전한진

대한배드민턴협회

차장 이화우

○출석 증인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이정우(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기홍(대한체육회 회장)

윤성욱(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김종수(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

장재근(진천선수촌 촌장)

정동국(진천선수촌 부촌장)

정강선(파리올림픽 선수단장)

김승곤(대한체육회 특보)

정몽규(대한축구협회 회장)

이임생(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홍명보(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정해성(전)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분과위원장)

박주호(전)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분과위원)

김택규(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김종웅(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

전명섭(대한배드민턴협회 의무위원장)

한우구(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처장)

전경훈(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

김학균(파리올림픽 배드민턴국가대표 감독)

한수정(전)배드민턴국가대표 트레이너)

이상순(대한배드민턴협회 체육인인권위원장)

○출석 참고인

김대업(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장)

박문성(스포츠해설가)

김현수(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차윤숙(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포천시청 감독))

【보고사항】

○의안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5.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5.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8)

이상 2건 9월 6일 회부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6.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6.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이상 3건 9월 9일 회부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9.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9.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4)

이상 2건 9월 10일 회부됨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4)

9월 11일 회부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이상 3건 9월 12일 회부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7)

이상 2건 9월 13일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9.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4)

9월 20일 회부됨

○관련 의안 회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6.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9)

9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7)

9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 9. 11.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7)

9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